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6 호 6 월 15 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59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제 6 호 (163)

1959년 6월 15일

내 용

수산업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

1959년 6월 11일 강원도 수산 부문
당 열성자 회의에서 한 연설

김 일 성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우리들은 금번 강원도의 당, 정권 기관들의 사업과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원도의 경제 발전에서 수산업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수산 부문 열성자들이 모인 이 회의는 도내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 회의가 있은 이후에 강원도 내 수산업에서는 적지 않은 성과들이 달성되였습니다.

도내 어선들의 수도 상당히 많아졌으며 수산물 생산량도 과거에 비하여 적지 않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랭동 공장과 통조림 공장을 비롯하여 가공 직장과 가공 공장들이 많이 건설되고 확장되였습니다.

수산 로동자들의 생활도 현저히 개선되였고 수산 협동 조합원들의 수입도 많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산 부문 일'군들이 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 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수산업을 개진시키려는 열성이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원도 내 수산업에서 이러한 성과가 있는 반면에 결함들도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수산물 생산고는 높지 못하며 물'고기에 대한 인민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함의 주되는 원인을 찾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바다에 물'고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연해와 원해에는 정착된 어족들도 많이 있으며 회유하는 어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양식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연적 조건도 매우 좋습니다. 우리는 풍부한 수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구가 부족하여 고기를 많이 못 잡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배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각종 어구도 갖추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공업이 발전된 조건하에서 배도 더 많이 건조할 수 있으며 그물 기타 각종 어구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수산 로동자들의 열성이 부족하거나 그들이 일을 잘못하는 데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열성은 높으며 그들은 당의 결정을 실천하려고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수산업이 아직 당이 요구하는 정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수산 부문의 각급 기관 지도 일'군들이 조직 사업을 잘 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수산 부문의 적지 않은 일'군들은 아래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여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좋은 의견을 제기하는 것조차 무조건 거부해 버리고 낡은 틀에 사로잡혀 계속 낡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당 중앙 위원회 편지에 고무되여 다 일을 열성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로동자들은 당 중앙 위원회 편지에 고무되여 열성을 내고 있으나 일부 지도 일'군들은 로동자들의 앙양된 열의를 옳게 조직 동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일에 저해를 주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나는 강원도 수산 사업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로해한 이러한 형편으로부터 출발하여 전국적으로 4월 전원 회의 결정을 더 철저히 관철하며 우리 나라 수산업에서 일대 혁신을 가져 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들을 동무들에게 제기하려 합니다.

우선 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 회의 결정을 수산 부문 일'군들과 로동자들에게 철저히 인식시키는 사업을 계속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당의 수산 정책 특히는 4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이 전체 당 단체들과 수산 부문 일'군들속에 깊이 침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산 부문 일'군들 가운데는 당 정책을 잘 모르며 수산 부문에서 당 정책을 관철하는 것이 곧 그들에게 부과된 혁명적 과업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당이 근로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며 혁명의 승리에로 대중을 령도하는 선봉적 조직이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 조직을 그 어떤 감독 기관으로 생각하며 당의 지도를 시끄러운 것으로 생각하면서 당의 결정을 잘 연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월 전원 회의》라는 말마디만 알았지 그 결정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4월 전원 회의 결정을 알기는 하지만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치밀한 조직 사업을 전개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당의 결정을 성실하게 집행하지 않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 부문 내 당 단체들은 이러한 경향들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 부문 내 전체 당 단체들에서 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 회의 결정 재토의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결정은 낡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 결정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아직도 계속 우리의 중요한 과업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4월 전원 회의 결정과 당 중앙 위원회 편지를 당 단체들에서 다시 한 번 더 토의함으로써 당의 수산 정책을 전체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속에 깊이 침투시켜야 하겠습니다.

물론 토론하는 것만으로써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 결정을 랑독하거나 외우는 것으로 접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전체 당원들, 전체 로동자들과 수산 협동 조합원들이 4월 전원 회의 결정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재토의 사업의 의의가 있습니다.

4월 전원 회의 결정이 어떻게 집행되였는가, 안 된 것이 무엇인가, 안 된 것을 어떻게 집행하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침을 세우며 그를 결정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 정책을 잘 실행하지 않은 것은 투기성을 계속 버리지 않고 중 소 어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지 않는 데서, 심해 어업에 대하여 구호로만 웨치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데서, 또한 양식 사업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는 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수산 부문 내 일'군들이 관료주의적으로 일하며 보수주의와 경험주의에 사로잡히여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라는 당의 호소에 순응하지 못하는 데 기인되고 있습니다.

완고한 사람들이 낡은 경험만 고집하고 발전하는 현실을 관찰할 줄 모르며 낡은 틀을

그냥 차리고 있으나 우리 당원들은 그것을 대담하게 마스지 못하고 있으며 수산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월 전원 회의 결정과 당 중앙 위원회 편지를 재토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보수주의, 신비주의, 경험주의에 사로잡힌 자들과 관료주의자들, 완고 분자들의 저항을 물리치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창발성을 내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기풍을 수산 부문 내에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철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심해 어업과 중 소 어업을 배합하며 다양한 어로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동무들이 토론한 바와 같이 심해에는 고기가 많으며 또 큰 고기들이 있습니다. 《심해 어업, 원해 어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심해 어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잘 갖추어 그것을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직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심해 어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더 큰 배들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원해와 심해 어업에서는 적어도 몇 백 톤짜리의 큰 배들이 자그마한 배들과 배합되여 장기간 원해에 나가 있으면서 물'고기들을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 계획 위원회와 수산성은 금년부터 큰 배들의 건조 사업을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심해와 원해 어업을 하는데 너무 멀리 나가지 말며 또 너무 여러 날씩 할 것이 아니라 단기간씩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함북도의 실례로 보아 고래 잡이도 적지 않은 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 곱등어같은 큰 고기를 잡아서 우리 나라에서 지금 매우 중요한 기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심해와 원해 어업을 하는 동시에 이와 배합하여 중 소 어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호망, 자망, 연승, 후리, 훑치기 등 여러 가지 중 소 어업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중 소 어업이 얼마나 유리한가 하는 것은 이를 잘 조직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수산 협동 조합들의 실례가 잘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과거 일제 시대에도 중 소 어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영흥만 내에서만도 600—700전의 호망을 쳤다고 합니다.

문천 수산 사업소 로동자들과의 담화에 의하면 일제 시대에 호망을 어찌나 많이 놓았던지 배를 저어 가려면 꼬불꼬불 피해서야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로 일'군들은 지금 큰 것만 하려 하며 이런 중 소 어업은 홀시하면서 잘 하지 않습니다.

중 소 어업은 수산 협동 조합이나 하는 것이고 국영 수산 사업소는 대규모 어업만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당 중앙 위원회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 투기 분자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국영 수산 사업소에서도 심해 어업도 하고 중 소 어업도 하며 대형 어선을 가지고도 하고 소형 어선을 가지고도 하며 지어 낚시질도 하고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무들이 토론한 바와 같이 호망이나 자망같은 것은 배를 타고 나가다가 치고 들어 오다가 걷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 못 하겠는가. 조개 잡이같은 것도 하기 쉽고 수익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홀시하고 있습니다.

쏘련과 같이 기술이 발전된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중 소 어업을 다 하는데 어째서 우리가 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중 소 어업을 등한히 하는 옳지 못한 경향들과 강하게 투쟁하며 중 소 어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로력이 부족하면 로력도 더 증가시켜 중 소 어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어, 명태, 까나리, 멸치 기타 회유하는 대어군을 따라 다니며 잡는 일도 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하고 중 소 어업도 하고 모든 방법을 다 쓰자는 것입니다.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사철 고기를 잡으며, 집단적으로도 잡고 분산적으로도 잡으며, 원해에서도 잡고 연해에서도 잡으며, 큰 배로도

잡고 작은 배로도 잡으며,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식으로 쉴새 없이 모든 방법으로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다에 있는 모든 어족들과 기타 수산물들을 항상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고기를 잡자고 하면 자연히 더 적합한 어구도 많이 갖추게 되고 적당한 배들도 더 만들게 될 것이며 로력 조직도 합리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수산 부문 로동자들은 출어 일수를 300일 이상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명태나 기타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고기떼만 바라보고 다른 것은 내버리는 낡은 투기적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지금 있는 배를 가지고도 다각적으로 고기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배에 구애되여서 못할 형편은 아닙니다. 어구도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산 부문 일'군들 속에 남아있는 보수주의와 투기적 사상을 극복하고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을 데 대한 당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해들과 호소들에서의 양식 사업을 강화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략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강원도에만 천해 양식을 할 수 있는 면적이 42,000 여 정보나 된다고 합니다.

해초 양식만 한다고 해도 곤포는 1만 정보, 미역은 1,600 여 정보, 파랭이같은 것은 2,300 여 정보 할 수 있다고 하며 천초, 김도 다 양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개는 17,000 정보, 해삼은 7,000 여 정보, 갈미는 1,300 여 정보 양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강원도에는 수다한 저수지들과 동정호, 시중호 등 호소들이 많습니다.

천해 양식을 할 수 있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호소들과 저수지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도 당 단체와 수산 부문 일'군들은 양식 사업에 큰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개별적인 열성 분자들이 이 사업을 시작한 데 불과합니다.

동무들이 양식 사업에 대한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의 결정을 대단히 불만족하게 집행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도 당 단체들과 전체 당원들과 수산 부문 일'군들에게 양식 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호소합니다.

초보적인 타산에 의하더라도 만약 양식 사업을 전면적으로 잘 전개한다면 1965년에 가서는 해초류와 조개류만 하여도 약 39만 톤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천해와 호소들에서의 양식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한쪽으로 기르고 한쪽으로 얼마든지 캐 먹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자원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양식 사업같은 것은 녀성 동무들이 훌륭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담수 양어도 역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지금 동무들이 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미약합니다. 전부 다 수공업적 방법으로 간단하게 되는 대로 하며 시험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시험만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다 양어를 하는데 무슨 시험만 자꾸 하겠는가. 우리 나라에서도 시험한지는 오랩니다. 일정한 기술을 배워 가지고 하면 됩니다.

문제는 소극성을 버리고 빨리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큰 호소들에 부화장 하나 없는 형편입니다. 되는 대로 지나가는 고기 한두 마리나 붙들어다 걸어 넣고 양식 사업을 한다고 해서야 언제 물'고기가 나오겠는가.

계획적으로 사업을 조직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시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양식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재를 못대

줄 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소, 저것이 없소 하며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양식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거저 다 해놓은 것을 어디서 주어 오자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 안 가서 자원이 말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족들을 계획적으로 보호하고 정착 어족들을 증식시키기 위한 사업도 전개해야 하며 닥치는 대로 잡아서 어족을 전부 소멸시키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어족을 보호 육성하지 않고 멸족시키는 것은 인민들 앞에서 죄를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잘 안되는 것은 어로 일'군들 속에서 충분한 해설 사업을 하지 않는 데 기인되는 것입니다.

수산 부문의 각급 기관 일'군들과 연구소 과학 일'군들은 사무실에만 앉아 있으면서 수산 자원의 보호 증식에 대한 강연 사업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어로 일'군들은 수산 자원을 어떻게 보호하고 증식시켜야 하며 또 그것이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군들에게 이런 지식을 보급하지 않으니 일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정착 어족이란 어떤 고기이며 회유 어족이란 어떤 고기인가? 여러 가지 어족들의 산란기는 어느 때이며 어떤 어족은 어떤 때에 잡지 말아야 하는가? 왜 큰 고기만 잡고 새끼 고기는 잡지 말아야 하는가? 수산 자원을 보호 증식시키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잡으면 어떤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잘 알려 주기만 한다면 그들은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서 어족을 소멸시키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로 일'군들에게 수산 자원 보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르쳐 주어야 하겠습니다.

수산 부문에서 **잡은 고기들을 잘 가공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 회의 결정에서는 잡은 고기를 잘 가공할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잡는 고기의 량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들을 모두 인민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가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산 수산물 가공 사업소 녀성 로동자 동무가 토론한 바와 같이 어로 로동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잡은 고기를 썩여 버리거나 못쓰게 만드는 것은 국가와 인민 앞에 큰 범죄로 됩니다.

인민들은 물'고기를 많이 요구하는데 가공 사업을 잘못하여 썩이거나 변질시키여 먹을 수 없게 만들며 설사 먹을 수 있다 하여도 질이 나쁜 것을 공급하는 것은 대단히 나쁜 일입니다.

어제 원산 수산 사업소에 가 보았는데 매일 물'고기 20톤 이상의 처리 능력을 가진 그 좋은 랭동고를 두고도 그것을 리용하지 않고 물이 나빠져서 냄새나는 공치를 상자에 담아 시장에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와 강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에서는 랭동을 잘 하며 건제품과 훈제품도 만들며 통조림도 하여야 합니다.

잡은 고기를 부패하지 않도록 하며 고기 맛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도처에 랭동고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에도 랭동기를 설치하고 수산 사업소마다, 나아가서는 수산 협동 조합마다에 크지 않고 알맞춤한 랭동고를 설치하여 잡은 고기들을 모두 생선으로서 인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약 그것을 하기 곤난한 때에는 한쪽으로 통조림도 하고 건제품도 만들어 공급하며 거기에서 나오는 페설물은 비료로 혹은 사료로서 다 리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랭동 공장과 더불어 도처에 건제품 공장도 설치하고 통조림 공장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통조림 공장도 너무 큰 것을 차리려고 하지 말고 중 소 규모의 것을 각지에 많이 건설해야 합니다.

통조림 공장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통조림을 만드는 공장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간단한 방법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부산물 가공에도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특히 명태는 살도 살이거니와 배'속에 들어있는 명란이나 창란이 조선 사람들의 구미에 더 맞는 좋은 식료품입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가공하여 명란젓, 창란젓, 간유를 많이 만들며 또한 운단 기타 조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료품을 만들어 인민들에게 잘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에서도 반드시 2월 전원 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맛 좋고 깨끗하고 값싼 수산물 가공품을 다종 다양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풍부히 공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국들과 또한 각 수산 사업소와 수산 협동 조합들에 기술적 토대를 조성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관리국들과 수산 기업소들에 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구축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수산 부문에서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기술적 토대를 조성한다는 것은 매개 관리국 산하에 필요한 공장들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수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개 도 관리국 산하에 어구 공장들이 있어야 합니다.** 대규모적인 공장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투자가 적게 들고 손쉽게 건설할 수 있는 쓸쓸한 규모의 공장, 례를 들면 현재의 지방 산업 기업소와 같은 공장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물도 뜨고 띄우개도 만들고 로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어구들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관리국 산하에 이런 공장이 없기 때문에 수산 사업소나 수산 협동 조합에서 요구하는 어구를 제때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번 어구들을 공급 받으려면 수속이 복잡하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론의된 바와 같이 문천 수산 사업소에서 호망을 설치하려고 작년 9월에 그물을 신청하였는데도 관리국에서 금년 4월에야 주었습니다. 필요한 어구를 제때에 보장 못 하니 시기를 놓치게 되고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구 공장을 각 관리국마다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공장들을 속한 시일 내에 적어도 몇 달 어간에 건설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국들은 종합적인 기계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작 기계를 자체로도 만들게 하고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을 통하여 나오는 기계도 주며 전문 기계 제작 공장에서 만든 정밀도가 높은 기계를 몇 대씩 배합하여 주어 약 50대 가량의 공작 기계를 가진 종합 기계 공장들을 하나씩 반드시 차려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공장을 설치하여 하륙 작업에 필요한 기중기도 만들고 와이야 로뿌를 꼬는 기계도 만들고 물'고기 할복기도 만들고 밀차도 만들고 벨트 콘베아도 만들고 기타 여러 가지 기계들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공장이 발전하는 데 따라서 필요한 소형 모타도 자체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소형 범선에도 발동기를 설치하여 기동력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어로 작업으로부터 수산물 가공에 이르기까지 작업을 기계화하여야 하며 수산 부문에서도 당이 내세우고 있는 기술 혁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의 수'자에 따라서 각 도에 선박 수리 공장을 하나 내지 둘씩 차려 놓아야 하겠습니다.** 함남도 같은 데는 두 개 정도 설치하고 강원도에는 하나이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박 수리 문제를 제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공장들에서 자체로 공작 기계를 만들어 설비를 확장하도록 하며 선박 수리를 신속하게 그리고 잘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수리도 제때에 하기 위하여 지금처럼 수리할 배가 도착한 다음에 기계를 뜯어서 수리하느라고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예비 부속품, 예비 엔진을 미리 생산하거나 정비하여

두었다가 배가 들어 오면 제때에 바꾸어 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수리 기간을 훨씬 단축하고 배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의 수리에서 제도와 규률을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문에서는 매우 무질서하게 무책임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배 수리에서 제정된 기간도 없으며 한 척을 수리하는 데 백날 이상 걸려도 아무런 추궁도 없습니다. 이런 결함을 시급히 퇴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배를 수리하는 종류에 따라 수리 기간을 명확히 제정하고 그 사이에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벌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된 수리 기한을 위반할 때에는 그 배의 선장이나 기관장은 수리 공장에 책임을 추궁하며 제 기일 내에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도 수산 관리국들은 또한 우에서 말한 공장들 외에 로뿌 공장, 와이야 공장 등 필요한 공장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체로 랭동기도 만들며 통조림 공장이나 포장 자재 공장의 설비들도 만들며 목통, 유리병 제조 공장도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관리국이 관리국다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창발적으로 전개력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관리국장이나 관리국 기사장들이 사업을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전개하려고 하여도 이러한 기술적 토대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관리국 사업에는 관료주의가 많고 사업을 잘 조직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결함이지만 이러한 조건을 보장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국이 주인다운 역할을 잘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급한 시일 내에 도 수산 관리국들에 기술적 토대를 조성하는 것이 선결 문제입니다.

이와 함께 **매개 수산 사업소와 수산 협동 조합들에 선반, 볼반, 쎄빠 등을 서너 대씩 설치하여 주어 간단한 수리는 다 자체로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부속품이 하나 잘못되여도 선박 수리 공장에까지 배를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간단한 수리까지 공장에서 하게 되면 선박 수리 공장에서의 수리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할 수도 없습니다.

선박 수리를 기동성있게 조직하며 배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간단한 수리는 수산 기업소들 자체에서 하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기술적 토대가 없이는 수산업을 더욱 높은 수준에 올려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산 부문의 기술 장비를 강화하는 사업에 심중한 당적 주목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특히 기계 공업성, 교통성, 금속 공업성, 화학 공업성 등 큰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들에서 생산하는 일부 기계들을 수산 부문에 많이 보내 주어야 하겠습니다.

원산시 내에 있는 각 성 산하 공장에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산 철도 공장, 문천 기계 공장, 문평 제련소,. 천내리 쎄멘트 공장 등 큰 공장들은 물론 지방 산업 공장들도 수산 부문에 기술적 토대를 닦아 주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산 부문의 기술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어구를 정상적으로 보장하며 선박의 수리를 제때에 신속히 보장하며 어로, 하륙, 가공, 모든 작업을 기계화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개조를 하지 않고 기술적 토대를 닦지 않고 거저 옛날같이 어기여차 어기여차 하는 식으로 고기를 잡자고 하여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산 부문에서 기술적 토대를 닦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 시급한 시일 내에 필요한 공장들을 완비하도록 하는 것이 수산업에서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함남, 함북, 서해안 도처에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할 때가 왔습니다. 2—3년 전만 하여도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형편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공업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올라 섰습니다. 더우기 기계에 대한 신비주의가 타파되고 전국적으로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이 광범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우리는 수산업의 기술적 토대를 닦기 위한 과업을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산 부문의 기술적 장비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수산업을 높은 과학적 토대 우에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선진 과학 기술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기술 일'군들을 대량적으로 양성하며 수산 일'군들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과업으로 나섭니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고기 잡이를 과학적 방법으로 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창발성을 발휘하여 과학 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방법을 창조하는 것이 부족하며 대체로 낡은 경험에 의하여 낡은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산 기관들과 과학 일'군들은 지어 해양 조건의 변동 상태, 해류의 변동 상태같은 것도 똑똑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족들의 회유, 서식 상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기를 탐색함에 있어서도 옛날에 고기가 다니던 길 하나만을 따라 다니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물'고기가 토끼와는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토끼는 항상 다니던 길로만 다닙니다. 토끼도 놀래워만 놓으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그 넓은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가 어찌 항상 같은 길로만 다니겠는가. 더우기 해양 조건이란 것은 항상 변동하는 것이며 해류도 늘 변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정착 어족의 서식 상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회유 어족의 상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을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탐색 사업을 하지 않고 거저 정어리가 달아났다, 고등어떼가 오지 않는다고만 합니다.

또한 어떠한 어구가 우리 나라 수산업에 적합한가, 어떻게 하면 고기를 빨리 잡겠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 사업들도 매우 미약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다른 어느 공업 부문보다도 수산 부문의 과학 연구 사업이 제일 뒤떨어졌습니다.

우리 나라는 삼면에 바다를 끼고 있으며 바다 속에는 무진장한 자원이 있습니다. 이 자원을 개발하며 리용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수산 부문의 과학 연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며 새로운 과학 일'군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과학 기술 인재 양성 사업도 우리 나라 실정에 적응하게 생산과의 밀접한 련계 밑에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기 원산 농업 대학에는 불순 분자들이 들어 앉아서 학생들의 교육 사업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습니다.

원산 농대에 수산학부가 생긴 이래 8년 간 많은 학생들을 졸업시키였는데 그들은 모두 바다에는 한 번도 나가 보지 못하였습니다.

작년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학생들이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 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 처음에는 학생들이 다 멀미를 하여 나가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 학생들이 멀미나는 것을 극복하고 바다에 익숙된 결과에 작년에는 자기들의 손으로 고기도 많이 잡았으며 이제는 해양에 진출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런 실습을 하지 못하고 학교를 졸업한 기술자들은 자신이 바다에 나가는 것을 겁내다나니 로동자들을 적극적인 어로 활동에로 추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기술자들이 응당 배를 같이 타고 나가 보아야 하겠는데 멀미가 나고 겁이나니까 사무실에 들어 배길 수 밖에 없고 실지 형편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기술자들을 양성하며 연구 사업을 하여서 일이 잘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높은 과학, 기술 지식을 소유하고 생산 활동에서 단련된 수산 부문 과학 일'군들과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사업에 특별한 당적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산 기술자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지금 어느 수산 사업소에 가 보아도 기술자들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고등 수산 전문 학교도 많이 열고 수산 기술 학교도 많이 열어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고성군이나 통천군같은 해변'가에 있는 군들에서는 고중을 다 수산 전문 학교로 개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수산 일'군들 가운데서 기술자들의 대렬이 장성하고 부단히 새로운 어로 방법들이 창조될 것이고 바다를 정복하려는 적극성이 더 나올 것입니다.

새 형의 기술자들, 새 형의 간부들이 많이 들어 가지 않고서는 수산업이 발전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수산 일'군들 속에서 기술 교양 사업을 광범히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로장같은 사람들도 한 번 면허를 받고 들어간 다음에는 기술 학습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산 일'군들 속에서는 기술 학습도 잘 하지 않고 선진 국가들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이때까지 하여 오던 뒤떨어진 방법밖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때까지의 경험도 중요하며 그것을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회는 부단히 변화하고 발전하므로 이에 따라 우리의 모든 과학과 기술도 전진하여야 합니다.

쏘련이나 기타 선진 국가들에서 배우고 자본주의 국가들의 좋은 경험도 배워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나라에서의 수산 기술을 연구하고 이 부문에서 창발성을 발휘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 사회주의 건설에서 고조기에 처하여 있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장차 공산주의에로 넘어 가기 위하여 기술 혁명을 전개하는 시기에 들어 서고 있습니다.

수산 부문도 전반적 인민 경제의 발전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다른 공업은 다 새로운 단계에 올라 서는데 수산업만 한자리에서 답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 부문에서 과학 연구 사업을 더욱 개선하며 기술 일'군들의 양성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산 일'군들의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 교양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다를 정복하며 바다에 있는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며 이를 위하여 바다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정신을 앙양시키기 위한 광범한 대중 교양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입니다.

광활한 바다를 정복하며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해양국에 사는 우리 인민들 특히 직접 바다'가에 사는 사람들의 자랑스럽고도 보람찬 임무입니다.

바다를 사랑하지 않고 바다에 익숙하지 않고 바다에 진출하려는 기세가 높지 못하고서는 이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인민 학교에서부터 바다에 대한 지식을 배워 주며 바다에 대한 동경심과 거기에서 씩씩하게 일하려는 정신을 배양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해변'가에 있는 학교들에서는 교수 과목에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바다에 대한 교양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들의 교수 과목들을 정하며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서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 교조주의적으로 한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류, 조수 등에 대하여서와 바다의 자원에 대하여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알게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바다의 보물을 캐내는 장쾌한 일을 즐겨 하도록 교양하며 바다에 나가서도 륙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유 자재로 활

동할 수 있게끔 그들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청년들을 바다에서 수영도 하게 하고 뽀트도 타게 하고 고기도 잡게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바다에 나가려는 대중적 기세가 앙양되며 누구나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되며 바다를 정복하며 그 자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양 사업을 학교에서도 하고 전체 인민들 속에서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다에 대한 노래조차 신통한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바다의 경치가 아름답다는 노래 한두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바다에 얼마나 자원이 많으며 바다에 진출하여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보람찬 일인가에 대하여 또는 어로 일'군들의 힘찬 투쟁 모습에 대하여 부른 노래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노래들을 많이 만들고 많이 불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바다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뜯어 먹으라》는 당의 구호가 바로 바다에 진출하고 바다를 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사람들이 바다를 뜯어 먹기는 고사하고 바다를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앉아있는 형편입니다. 바다를 무서워하고서야 어떻게 바다를 정복하겠는가.

바다는 조금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바다를 개척하고 바다 우에서 용감히 싸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리 순신 장군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지 못한 거북선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 기여 드는 왜적을 바다 우에서 물리쳤습니다.

오직 부패한 봉건 통치하에서 풍월이나 읊고 술이나 마시면서 부화한 생활을 한 지배 계급들만이 바다에 나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실상 우리 인민들은 과거로부터 항상 바다를 개척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바다를 정복하고 바다를 개척하는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바다의 자원을 개척하면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들만이 아니라 녀자들도 바다에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해녀들은 남자들을 앉혀 놓고 자기들이 바다에서 벌어 먹인다고 합니다. 녀자들도 바다에 나갈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 와 보니 민청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구 도시인 원산에 수영 구락부 하나도 없고 요트, 뽀트 타기 등의 운동도 조직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청은 이런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휴양을 가도 주을 온천이요, 석왕사요, 삼방이요 하면서 헛딴 데만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보통 날에도 으슬으슬해 하는 늙은이들이나 갈 곳입니다.

청년들은 바다에 많이 나가야 합니다. 더우기 수산 부문에서 보수주의를 배격하고 이 부문 사업을 혁신하며 한 걸음 더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바다에 많이 진출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자랑이 무엇인가? 그것은 청년들이 언제나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중요한 모퉁이를 담당해 나서며 언제나 용감하고 대담하게 앞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다야말로 진취성이 강하고 정열에 불타는 청년들의 일터입니다.

파도를 헤치고 광활한 바다에 나가 사회주의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무진장한 부원을 개발하는 것이 혈기 왕성한 청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보람찬 일인가! 바다에서 일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대담성과 용감성을 배양하여 주며 그들의 신체를 단련시킵니다.

청년들이 바다에 나가면 출어 회'수와 기망 회'수도 많아질 것이며 더 적극적인 어로 방법들이 나올 것이며 더 대담하게 새 것을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수산 부문에서 새로운 어로 방법들과 창의 고안들이 광범히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부문에 청년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초 고중 졸업생들과 수산 학교 졸업

생들을 대대적으로 바다에 진출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삼면에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나라 조건에서 국방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바다에 대대적으로 진출하여 수산 부문에서 청년이 80—90%를 차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청년들은 늙은이들과 배합되여 늙은이들로부터 경험을 배우며 어려운 부문은 자신들이 담당하면서 새로운 방법, 적극적인 방법으로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로 로동자들의 생활 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어로 로동자들은 사실상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날 추운 바람이 불 때에도 비 오는 날에도 풍랑을 헤치고 나가서 투쟁하는 어로 로동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원산 일대 도처에 수산 사업소 로동자들의 주택을 더 아름답게 짓고 문화 시설도 더 잘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어로 로동자들의 생활 문제와 관련하여 그들에 대한 임금 제도도 다시 연구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 같애서는 출어를 많이 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임금을 훨씬 더 많이 받도록 임금 제도를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데 도급량을 정하여 많이 잡는 사람에게는 보수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외에 1년에 300날 이상 출어하여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에는 국가로부터 일정한 상금을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어로 로동자들로 하여금 더 많이 출어하여 더 많이 물'고기를 잡는 데 비단 사상적으로만 동원되게 할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물'고기를 많이 잡으니 좋고 어로 로동자들의 수입이 증가되니 좋습니다.

그리고 어로 로동자들에게는 휴가를 더 많이 주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 부문 로동자들의 휴가 기간은 다른 부문 로동자들의 휴가 기간보다 더 많아 28일 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 된 것입니다. 어로 로동자들에게는 휴가 기일을 한 달씩 하고 두 번 꺾어서 쉬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4월 전원 회의 결정에도 있지만 어로 로동자들이 휴식할 장소를 원만히 해결하고 그들이 바다에서 돌아 오면 라지오도 듣고 영화도 보면서 즐거운 문화 오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휴양소도 잘 꾸리여 주어야 합니다.

또한 풍파가 세여 출어하지 못할 때에는 이 시간을 기동성있게 리용하여 교양 사업을 전개하는 제도를 수립하며 또 이런 때를 리용하여 휴양소에 가서 쉬도록 조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임금 제도를 개선하여 어로 로동자들이 바다에 나가 어로 작업을 하는 데 흥미를 가지도록 하며 륙지로 들어 와서는 즐거운 휴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 주며 문화적인 생활을 하게끔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수산 일'군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일부 어로 로동자들에게는 과거에 고기를 잡아 돈이나 좀 벌면 술이나 마시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던 그러한 낡은 생활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과거 자본가와 선주들에게 압박 받던 일본 제국주의 때에는 전망이 없고 전도가 막연하였기 때문에 번 돈으로 술이나 마시며 하루하루 지내는 식으로 살 수도 있었지만 오늘에는 처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오늘에는 자기 나라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데, 대대 손손 잘 살 수 있는 기초를 닦는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왜 술 먹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수산 일'군들 가운데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와 과거의 목재소나 금점판 로동자들 혹은 배'사공들과 같이 되는 대로 살던 룸펜식 생활 관습을 다 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산 로동자들은 당당한 사회주의 건설자요, 14년 동안 교양 받은 사회주의 사회의 로동자들입니다. 우리는 전체 수산 로동자들이 이와 같은 영예를 간직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역군이 되

도록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들을 혁명적 사상 의식으로 무장시키며 그들 속에서 공산주의적 생활 기풍을 확립하여 사회주의 건설자답게 일하며 생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바다에 늘 나가있는 그들이 우리 나라의 제반 생활에서 리탈되지 않도록 나라의 변천되는 형편, 당내 형편 기타 제반 정세를 그들에게 제때에 알려 주며 특히 우리 당 정책을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그 실천에서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사회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개인 리기주의와 강한 투쟁을 전개하며 국가와 공동의 재산인 배와 어구들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나운 바다에서 긴장된 투쟁을 전개하는 그들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도와 주는 집단주의 교양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료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산 부문 내 일부 지도 일'군들에게 남아있는 관료주의는 사업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관료주의를 청산함으로써 모든 일이 신속 정확히 집행되게 하며 대중의 창발적 의견들이 제때에 실제 사업에서 구현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전취물을 고수하며 적들의 파괴 암해 행동을 걸음마다 분쇄하여야 하겠습니다.** 적들은 우리가 사회주의를 더 빨리 건설하면 할수록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기 위하여 더욱 발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들은 해변을 통해서 많은 간첩들을 들여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산 일'군들은 경각성을 높이여 반간첩 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적들이 들어 와서 우리 내부를 파괴하거나 혹은 수산 부문 내에서 해독 행위를 하지 못하게 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간첩들과의 투쟁을 잘하기 위해서도 동무들이 생활에서 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들은 이 부화한 틈을 리용하려고 합니다.

지난 기간 강원도 당 단체 사업이 잘 안된 것도 이전에 도당과 도인민 위원회의 지도적 직위에 있었던 일부 건전치 못한 자들이 부화하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도내 인민들의 생활 형편을 더욱더 개선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 지도하지 않았으며 반간첩 투쟁도 강하게 전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비추어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매개 수산 사업소 일'군들과 매개 수산 협동 조합원들이 모두다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여 반간첩 투쟁을 더 강력히 전개하며 해이하고 부화 방탕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간첩 투쟁을 잘 하려면 질서와 규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 수산 부문에는 규률이 없고 제도가 수립되여 있지 못합니다.

수산 사업소에 가 보아도 그렇고 수산 협동 조합에 가 보아도 그러하며 조선소나 선박 수리 공장에 가 보아도 역시 그러합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암해 분자들이 마음대로 책동해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일이 글러져도 좋은 사람이 했는지 나쁜 사람이 했는지 또 잘 하느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고의적으로 잘못한 것인지 알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간첩은 자기가 간첩이라고 이마에 써 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숨어있는 적들을 적발해 내기 위해서 규률과 제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모든 부문에서 질서와 규률을 정연하게 세우고 부화 방탕한 현상을 근절하고 자기 사업을 똑바로 틀어 쥐고 나가며 전체 인민들이 경각성있게 감독한다면 설사 귀신같은 간첩이라도 활동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귀신을 비추어내는 체경처럼 밝혀낼 것입니다.

우리 당원들과 전체 수산 부문 일'군들은 이번 열성자 회의를 계기로 4월 전원 회의 결정을 한 번 더 토의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수산 부문에서 일대 혁신을 가져 오게 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수산 부문 내 전체 당원들이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당의 붉은 편지의 정신대로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를 계속 견지하면서 계속 전진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노력할 것을 희망합니다.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의 밀접한 결합을 위하여

김 초 석

최근 시기 당 중앙 위원회는 변천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당 사업 방법과 사업 작풍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당 중앙 위원회 1959년 2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결론에서와 지난 2월 26일 도, 시, 군 당 위원장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당 사업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하여 교시하면서 특히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였으며 그의 구체적 방법까지도 제시하였다.

오늘 경제 사업은 우리의 사회주의 혁명에서 기본 내용으로 된다. 《사회주의 혁명에서 생산을 떠난 그런 혁명 과업은 있을 수 없다》(김 일성).

하루가 몇 십년에 해당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비약적 발전은 무엇보다도 경제 사업, 생산 사업에서의 근로 대중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이룩되고 있다. 우리 당은 오늘 경제 사업의 성과를 확대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를 더욱 촉진하는 기본 공간이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 당의 대중에 대한 과학적 령도 방법에 있어서 기본 요구의 하나로 된다.

당은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대중의 모든 조직체들 가운데서 최고 형태의 조직체이다. 당은 대중의 혁명 사업을 지도함에 있어서 그들과 직접적으로 련결되여 있는 정권 기관, 경제 기관, 사회 단체 등 조직체들을 인전대로 삼고 이를 통하여 광범한 대중 속에서 자기 정책을 구현시킨다.

혁명 과업인 경제, 문화 건설을 직접적으로 담당 집행하는 것은 행정, 경제, 문화 기관들이다. 당은 정치적 령도 기관으로서 행정, 경제, 문화 기관들의 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며 자기에게 고유한 당 정치 사업을 통하여 그의 실현을 보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제, 문화 사업도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수행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의 호상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당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은 우리의 혁명 사업에서 두 개의 측면인 동시에 분리시킬 수 없는 통일체이며 그의 긴밀한 결합은 우리 당 령도 방법의 중요한 특성이며 기본 사업 방법이다》(《제 3차 당 대회에서 진술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은 분리할 수 없는 통일체이다. 경제 사업은 정치 사업에 의하여 튼튼히 보장되여야 하며 정치 사업은 경제 사업과 밀접히 결합되여 진행되여야 한다.

그러면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정확하고 긴밀하게 결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당 단체들이 정치 사업을 통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 모든 초소에서 당 정책이 철저하게 관철되도록 보장하며 계속 전진, 계속 혁신하는 창조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대중을 고무 추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당 단체들에서는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능숙하게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일부 당 단체들에서처럼 행정, 경제 기관들의 사업을 가로맡아 대행하거나 반대로 정치 사업에 주력한다 하여 경제 사업으로부터 물러 서려는 경향들은 모두가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옳게 결합하지 못하는 표현으로 된다.

당 단체들이 행정, 경제 기관들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 경제 기관들과 그 일'군들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마비시키며 결국은 당 정책 집행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된다. 뿐만 아니라 당 단체들이 행정, 경제 기관 사업을 대행

한다면 행정, 경제 사업에 옳은 방향을 주며 대중 속에 당 정책을 해석 침투시키기 위한 정치 사업이 자연 소홀히 됨으로써 경제 사업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 키를 잡아야 할 당 단체가 키를 버리고 노를 젓는다면 배가 방향을 잃고 난파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다음으로 당 단체들이 경제 사업으로부터 물러 서려는 경향은 더욱 유해로운 일이다.

김 일성 동지는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시켜야 하며 결코 경제 사업으로부터 물러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당 단체들은 경제 사업을 틀어 쥐고 경제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통제는 당 정책을 연구하고 그를 대중 속에 침투시키며 그들을 조직하여 경제 과업을 집행하도록 하며 그 사업이 잘 집행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을 감독하며 잘하는 것은 장려하고 잘못되는 것은 고쳐 주는 데 있다》(《당 중앙 위원회 1959년 2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결론》)고 교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당 중앙 위원회가 당 사업 방법과 사업 작풍을 개선할 것을 강조하니까 일부 당 단체들에서는 그 의도를 옳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제 사업으로부터 물러 서려는 경향들을 부분적으로나마 발로시키고 있다.

행정, 경제 사업을 가로맡아 대행하거나 그로부터 물러 서려는 것은 당 기관 일'군들이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제에 있어서의 당과 인전대들 간의 호상 관계와 사업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사회주의는 대중이 발동됨이 없이는 건설할 수 없다는 군중 관점에 튼튼히 서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혁명 사업에서 당과 인전대와 대중이 노는 역할은 각각 고유하면서도 혁명 과업 수행이라는 한 가지 목적에로 결합되고 유기적으로 통일되여 있다. 즉 행정, 경제 사업은 행정, 경제 기관들과 인민 대중이 하는 사업이며 당 사업은 당 정책이 행정, 경제 사업에서 정확히 구현되도록 보장하는 사업인바 당적 및 행정적인 모든 지도는 대중과 긴밀히 결합되여야 한다. 이러한 때에라야만 대중은 경제, 문화 건설에서 자기들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당과 인전대와 대중과의 유기적인 호상 관계와 군중 로선의 원칙을 무시하거나 이를 구현하는 과학적 령도 방법을 소유하지 못하고 되는 대로 일한다면 결코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옳게 결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당과 인전대와 대중은 모두가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게 되여 혁명 사업에 손실을 가져 올 것이며 더 거둘 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근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은 무한히 앙양되고 있다. 우리들이 만약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정확하고 긴밀하게 결합하는 방법으로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한다면 우리의 전진 속도가 더한층 빨라지고 성과가 더욱 확대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 *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의 옳은 결합을 위하여서는 우선 당 단체들이 행정, 경제 기관들에 정확한 사업 방향과 방침을 제시해 주며 그 기관들을 믿음직한 일'군들로써 꾸려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당 정책을 집행하며 경제 사업을 실천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인 것만큼 이 사람들에 대한 사상 정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바 이것이야말로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결합하는 데 있어서 기본 고리로 된다. 그리고 또 집행에 대한 지도 검열 사업이 반드시 병행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이것이 없이는 당 정책이 끝까지 정확하게 집행되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 단체들이 행정, 경제 기관들에 정확한 사업 방향을 주는 것은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의 옳바른 결합을 위한** 제 1보로 된다.

당은 혁명의 최고 참모부이며 지도부로서 혁명 수행을 위한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며 행정, 경제 기관들은 이를 직접 집행한다. 때문에 만약 당 단체들이 당 정책, 로선에 근거하여 이의 실천을 위한 옳바른 방향, 방침을 주지 않는다면 행정, 경제 기관 사업이 당 정책과 당 중앙의 의도로부터 리탈될 수 있다. 당 단체들은 행정, 경제 기관들에 명확한 사업 방향을 주되 그 기관들로 하여금 자주적, 창발적으로 이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스스로 그 집행자가 되여서는 안 된다.

례를 들어 군에서 농산 계획을 세울 때 군 당 위원회는 자기가 직접 그것을 세울 것이 아니라 군 인민 위원회에 정확한 방향을 주어 계획을 세우도록 지도하되 정확히 되였는가 안 되였는가를 검토하고 결함을 시정해 주어야 한다.

당 단체들이 행정, 경제 기관들에 정확한 사업 방향을 주기 위하여서는 당 정책과 당 중앙 위원회의 의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하부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한 기초 우에서 사업의 중심 고리를 옳게 포착할 줄 알아야 하며 과학적 예견성이 있어야 한다.

경제 발전의 매 단계와 매 사업 분야에서 호상 련결된 사업들의 여러 고리 중에서 중심 고리를 포착하는 것과 사태의 변화 발전을 예견하는 것은 당 정책의 관철을 위한 정확한 사업 방향, 방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 조건의 하나로 된다. 만일 당 단체가 사업의 중심 고리를 튼튼히 틀어 쥐지 못하거나 과학적인 예견성이 없이 눈 앞만 보고 방향을 작성한다면 행정, 경제 기관들로 하여금 사업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하며 급격히 변동하는 정세에 적응하게 해당한 대책을 기동성있게 강구할 수 없게 하며 사업에서 혼란과 실책을 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얼마 전에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금속 및 화학 공업성을 비롯한 일부 성(국) 산하 공장, 기업소들에서 지난 1.4 분기에 일부 생산 지표의 계획을 미달한 것은 바로 그곳 당 단체와 지도 일'군들이 생산 사업에서의 당면한 중심 고리를 옳게 포착하지 못하였으며 변천된 새 환경에 적응하게 기동성있는 구체적 대책들을 강구하지 못한 결과이다.

당 단체들이 행정, 경제 기관들에 명확한 사업 방향을 주기 위하여서는 또한 집체적 지도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특히 새롭고 원칙적인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에는 반드시 집체적인 토의를 거쳐서 사업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집체적 토의——이것은 행정, 경제 기관들에 사업 방향을 주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집체적 토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집중하여 구체적 실정에 적응한 정확한 사업 방향을 찾게 하며 사업에서 중심 고리와 그의 해결 대책까지도 잘 강구하게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모든 문제에 있어서 꼭 집체적 토의를 거쳐야만 사업 방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경중에 따라 례하면 결정 집행 과정에서 긴급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은 행정, 경제 기관 일'군들과 개별적으로 토의하여 방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절차와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행정, 경제 기관들에 주는 사업 방향은 항상 구체적이고 실천성있는 것이여야 하며 사업 분공과 책임 한계가 명확하여야 한다. 이것은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하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 된다.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대중 속에서의 당 조직 정치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에서 그러한 바와 같이 경제 사업의 성과 여하는 전적으로 그 사업을 직접 담당 수행하는 행정, 경제 기관 지도 일'군들과 근로 대중의 사상 상태 여하에 달려있다. 즉 경제 사업에서의 모든 성과와 결함들은 근로자 대중과 지도 일'군들의 사상 상태와 정서에 련결되여 있다. 바로 여기에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켜야 하며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결부시켜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대중 속에서의 당 조직 정치 사업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생산 활동에 대한 정확한 당적 통제를 실시하는 문제이다. 생산에 대한 당적 통제란 우로부터의 통제와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통제의 밀접한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당 정책과 당의 의도가 정확히 관철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단체들은 당 정책과 당 중앙 위원회의 의도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산에 대한 집체적 령도를 가일층 강화하는 동시에 근로자 대중을 국가 관리와 생산 활동에 적극 인입하는 데 관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근로자 대중이 자각적으로 궐기하여 당 정책의 관철을 철저히 고수하도록 지도하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발성이 남김없이 생산에 도입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개별적 단위들에서 창조된 우수한 경험들을 일반화하며 발로된 결함들을 제때에 시정 퇴치하도록 면밀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의 근로자들 속에서는 당의 정확한 령도 밑에서 더욱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의 붉은 편지를 재토의하는 행정에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 중앙의 의도를 더욱 철저히 인식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보다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수다한 창발적 의견들을 제기하고 있다.

각급 당 단체들과 당 기관들은 이러한 혁명적 고조의 시기에 행정, 경제 기관 일'군들 속에서의 정치 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경제, 문화 건설에서 그들의 당성을 더욱 제고하며 대중이 제기한 창발적 발기들을 남김없이 생산에 도입할 조직적 대책을 취하도록 강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와 함께 근로 대중 속에서의 정치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그들이 당 앞에 맹세한 자기 결의들을 어김없이 실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당 단체와 당 기관들이 우선 관심하

여야 할 것은 간부 사업이다.

일찌기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간부가 다 건전하고 사상 수준이 높고 다 한결같이 당 정책을 받들고 당성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사회주의 혁명도, 사회주의 건설도, 문화 혁명도 문제없이 성과적으로 할 수 있다》(《도, 시, 군 당 위원회 위원장 및 인민 위원회 위원장들 앞에서 한 연설》).

그렇기 때문에 당 단체들은 경제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 행정, 경제 기관들을 당성이 강한 일'군들로써 꾸리는 데 관심하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사업 분야에는 가장 신임있는 일'군들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와 함께 당 단체들은 일상적으로 간부들에 대한 료해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들을 인내성있게 자래워야 한다. 즉 행정, 경제 기관 내 간부들이 당 정책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집행하고 있는가, 그들의 군중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어떠한가 등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면서 모든 간부들이 일치하게 당 정책을 지지 옹호하며 그의 관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도록 설복, 교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당 일'군들은 행정, 경제 기관들에 자주 나가 그 기관 내 전체 일'군들에게 당 정책의 본질과 당의 요구, 해당 당 위원회의 구체적 방침 등을 해석 침투시키기 위한 정치 사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해당 기관 일'군들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고무 추동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현 시기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 건설에서 당성을 철저히 고수하도록 지도 교양하는 것이다. 경제 건설에서 당성이란 《결국 매개 일'군들을 당 정책에 충실하도록 지도—교양하며 그들로 하여금 당 정책 관철에서 불성실한 태도와 투쟁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김 일성, 《도, 시, 군 당 일'군들과 당 조직원들 앞에서 진술한 연설》).

지난 시기의 경험은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에 물젖은 일부 불견실한 자들이 지도적 지위에 있었던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지도 일'군들이 보수주의와 기술 신비주의, 혹은 기관 본위주의 등에 사로잡혀 있은 그러한 곳에서도 당 정책이 성과있게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과 당 기관들은 행정, 경제 기관 일'군들 속에서 경제 건설에서의 당성 제고를 위한 정치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당의 핵심 진지를 부단히 확대 강화함으로써 어느 때, 어떤 조건하에서도 당 정책을 철저히 고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당 단체들은 행정, 경제 기관들에 대한 정치 사업과 함께 근로자 대중 속에서의 사상 교양을 또한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천리마 운동은 근로 대중이 당 정책과 당의 의도를 옳게 파악하고 그의 관철을 위한 투쟁에 자각적으로 궐기할 때 그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가를 력력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당 단체들에서는 사업을 일반적으로 포치하는 데 그치거나 대중에 대한 설복과 교양은 면밀하게 조직 진행하지 않고 좋은 성과만을 요구하는 행정식, 명령식 사업 방법을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인 사업 방법으로써는 경제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당 단체들은 행정, 경제 기관들에 사업 방향을 주고 구체적인 사업 분공을 조직한 다음에는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이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광범한 정치 사업을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직맹, 민청, 녀맹 등 사회 단체의 력량을 옳게 조직 동원하는 데 관심하는 것이다. 사회 단체들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인전대로서 자기 주위에 광범한 군중을 집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단체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조직 동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광범한 군중을 경제 건설 사업에 인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당 단체들은 제기된 경제 과업을 자기 혼자 도맡아 가지고 뛰어 다니면서 직맹, 민청, 녀맹 등 사회 단체에는 일을 잘 시키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어느 일 하나도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이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며 이에는 많은 군중이 동원되여야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제기된 과업의 성질과 중요성에 비추어 사회 단체들의 가능한 력량을 모두 조직 동원함으로써 대중 속에서 정치 사업을 더욱더 진공적으로 조직 전개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적 증산 경쟁 운동을 더욱 활발히 추진시켜야 한다. 특히 최근에 활발히 조직 전개되고 있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주면서 그를 강화 발전시켜야 하며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 제고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의 배양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대중 속에서의 정치 사업에는 또한 행정, 경제, 문화 기관 등 모든 기관 일'군들도 광범히 인입해야 한다. 왜냐 하면 사회주의는 어느 때 어디서를 물론하고 대중 자신이 각성되고 동원되지 않고서는 건설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주의하에서는 정권 기관이나 경제 기관도 단순히 명령과 지시만으로는 대중을 자각적으로 발동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를 더한층 추진시키기 위한 기본 조건이 바로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앞세우는 데 있는 것만큼 모든 지도 일'군들이 대중 속에서 정치 사업을 진행할 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모든 일'군들이 능숙한 령도 예술을 소유하는 문제이다.

일찌기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군중 공작을 잘하자면 령도 예술을 소유하여야 한다. 령도 예술을 소유함이 없이 다만 당에 대한 충실성만으로써는 당원의 임무를 다할 수 없다. 매개 당원이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군중을 당 주위에 튼튼히 집결시키며 그들에게 당 정책을 옳게 해설하여 주며 그의 실행에로 대중을 조직 동원할 줄 알아야 한다(1957년 7월 5일, 《도, 시, 군 당 일'군들과 당 조직원들 앞에서 진술한 연설》 참조).

당 일'군들과 모든 지도 일'군들, 나아가서 전체 당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일상적으로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게 당 정책의 본질을 철저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이 밥도 먹고 호흡도 같이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하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욕하거나 추궁할 것이 아니라 친절히 일깨워 주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래야만 군중은 더욱 의식적으로 당 정책 집행에 동원될 것이며 당이 하자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진하여 나서게 될 것이다. 경제 사업에서의 높은 성과는 바로 이와 같이 대중이 우리 당을 적극 따르고 우리 당 주위에 한결같이 단결되는 때에라야만 거둘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당 단체들과 그 일'군들은 근로자들의 생활 조건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생활이 유족하고 흥겨우면 흥겨울수록 사업에서 열성과 창발성이 제고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다. 또 사회주의 건설은 원래 근로자들의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때문에 근로자들의 생활 향상에 대한 배려는 우리 당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된다. 그러니만큼 당 단체들은 근로자들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례컨대 공장, 기업소 당 단체들에서는 합숙, 식당, 리발소, 목욕탕, 구락부, 탁아소, 유치원 등 문화 후생 시설의 운영을 개선 강화하며 지어진 조건들을 더욱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하며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리고 생산 직장 내의 안전 시설과 로동 보호 사업에도 면밀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 모든 사업들은 곧 근로자들의 사상 상태를 건전하게 하며 경제 건설 사업에서 더욱 큰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전제 조건으로 된다.

이리하여 백만 당원이 다 조직자가 되고 선전원이 되고 선동원이 되여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고무 추동한다면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의 결합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행정, 경제 기관의 사업 정형에 대한 **일상적이며 체계적인 지도 검열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만일 당 단체가 행정, 경제 기관에 사업 방향과 분공만 주어 놓고 그의 실행 정형을 일상적으로 지도 검열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없으며 또 사업 행정에서 어떤 편향이 나타나는지도 알 수 없다. 일이 이렇게 되여 가지고는 경제 사업에 대한 정치적 지도를 완전히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매개 당 단체들은 행정, 경제 기관에 사업 방향을 준 다음에는 그 사업이 당 정책에 어긋남이 없이 집행되는가 안 되는가를 료해 연구하기 위하여 곧 체계적인 지도 검열 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행정, 경제 기관들의 사업 정형을 지도 검열하는 데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해당 기관 일'군들로부터 사업 보고를 청취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과의 담화를 통하여 그 사업의 진행 정형을 료해하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당 단체들은 해당 기관 일'군들로부터 사업을 어떻게 조직했으며 그의 진행 정형은 어떠하며 제기된 애로는 무엇인가 등등을 보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더 좋기는 직접 군중 속에 들어가 그들과의 담화를 통하여 사업의 진행 정형을 료해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만일 군중이 당 정책의 본질을 옳게 리해하기만 하면 그들은 사업상 결함이 무엇이며 그것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똑똑히 밝혀내며 그의 시정 대책까지도 제기한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대중 속에 당 정책을 해석 침투시키며 그들을 방조하는 립장에서 그들과 담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기하는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발로된 결함을 고치도록 지도 방조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행정, 경제 기관들의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당 정책에 완전히 의거하여 진행되도록 하며 거기에서 행정, 경제 기관 지도 일'군들과 전체 근로자들의 당성, 창조적 적극성이 고도로 발양되도록 보장하는 것——이것이 곧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정확하고 밀접하게 결합하는 것이며 경제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게 되는 기본 담보이다.

* *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의 밀접한 결합은 당 일'군들의 높은 정치 실무 수준을 전제로 한다. 당 일'군들이 응당한 능력과 지식을 소유함이 없이는 경제를 지도할 수 없으며 인민 대중을 교양할 수도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김 일성 동지는 함북도 당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하루에 3—4시간씩 꼭꼭 의무적으로 공부하라. 공부 안 하고는 경제를 운영할 수도 없고 사회 발전을 촉진시킬 수 없다. 우리는 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발전하는 법칙에 따라서 계속 전진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동무들이 알아야 한다》.

모든 당 단체 지도 일'군들은 김 일성 동지의 이 간곡한 말씀을 심장에 새겨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아무리 분주한 일이 있더라도 일을 잘 조직하고 시간을 짜내여 공부하여야 한다. 당 일'군들은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그것을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 정책, 결정, 지시들을 심오하게 연구하며 맑스—레닌주의 방법론에 기초한 과학적인 령도 방법을 습득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와 함께 경제 지식을 습득하며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꼭 소유하도록 혁명가답게 진지하게 투쟁해야 한다.

이리하여 당 중앙 위원회가 기대하고 있는 바대로 경제 사업을 능숙하게 지도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당면 과업인 금년도의 인민 경제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도록 인민 대중의 앙양된 혁명 기세를 가일층 고무 추동하여야 할 것이다.

공작 기계 생산의 급속한 장성은 사회주의 물질 생산적 토대 강화를 위한 결정적 담보

방 호 식

지난 5월 초에 있은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는 중공업의 핵심이며 기술 발전의 기초인 기계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회의 결정서에는 《공작 기계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가하며 기계 공장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공작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매개 공장 기업소 기관 직장들에서는 전문 공작 기계 생산 제호 또는 브리가다 등을 조직하는 방법에 의하여 단능 기계, 일반 공작 기계, 특수 공작 기계 등을 의무적으로 공작 기계 한 대가 1년에 한 대 이상씩 생산하여 현존 보유 대수의 배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투쟁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지적되여 있다.

금번 우리 당이 취한 이 현명하고 대담한 조치는 기술 혁명과 사회주의 공업화를 가일층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며 계속 앙양되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를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실로 력사적 의의를 가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함에 있어서 지도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문은 공작 기계 공업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확대 재생산 과정에서 공작 기계 공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의하여 규정된다.

공작 기계——이것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무장시키기 위한 토대로 되는 기계 설비 그 자체를 생산하는 기계이다. 즉 공작 기계는 기계 설비를 낳는 기계로서 기계 공업의 모체이다.

만일 기계 공업의 규모, 발전 템포 및 그에 의하여 생산되는 기계 설비의 기술적 수준이 인민 경제 전체 부문의 발전 템포와 규모 및 기술적 수준을 규정한다면 공작 기계 생산의 장성 템포와 규모 및 그의 기술적 수준은 금속 기계 설비, 전기 기계 설비, 광산 기계, 건설 기계, 방직 기계 및 기타 경공업용 기계 설비 등 로동 도구를 생산하는 전반적 기계 공업 자체의 발전 템포와 규모 및 기술적 수준을 규정한다. 따라서 이것은 나라의 기술 경제적 자립성과 기술적 진보의 속도 및 그 수준을 특징 짓는 기본적 지표의 하나로 된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해방 후 우리 당은 일제하에서는 전혀 그 토대조차 없었던 공작 기계 생산 부문을 새로 건설하였으며 확대 재생산의 객관적 요구에 적응하게 그의 발전을 모든 공업 부문에 선행시켜 왔다. 1949년부터 1957년에 이르는 기간에만 하여도 공업 총 생산액이 2.8배로 장성하였는데 기계 제작 공업은 약 5.5배로 장성하였다. 특히 이 기간에 기계 공업 내부의 개별적 기계 생산 부문의 발전 템포를 본다면 농기계 및 일반 기계는 6배, 선박 공업은 2.5배로 장성하였는데 공작 기계 및 공구 생산은 실로 12배라는 급속한 발전 템포로 장성하였다.

결과에 오늘 우리 나라는 각종 선진적 금속 절삭 기계를 생산할 수 있는 확고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가지게 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앞에 제기된 주되는 과업은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의거하면서 이미 구축된 물질 기술적 토대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물질 생산적 토대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기 위하여 공업화와 기술 혁명을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공업화 및 기술 혁명의 성과적 촉진은 결국에 있어서 우선 공작 기계를 위시한 각종 기계 설비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인민 경제의 기술적 장비를 더욱더 제고하는 문제이다. 《인민 경제의 기술적 장비를 강화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기계 제작 공업의 발전이다… 기계 설비들을 많이 생산하며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우리 인민 경제를 일보도 전진시킬 수 없다. 기계 제작 공업의 발전은 모든 문제 해결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 일성, 《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 오늘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그의 물질 기술적 토대로 되는 공작 기계 생산 부문의 더욱 급격한 확장과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원래 기계 공업의 장성 템포가 해마다 더욱더 높아지는 경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발전 템포가 매년 동일한 조건하에서도 기계 제작 공업은 매년 절대적으로 보다 많은 공작 기계를 요구하며 따라서 공작 기계 공업 부문은 전년도에 비해 보다 많은 공작 기계를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그것은 기계 제작 공업 생산 장성의 매 프로가 전년도에 비하여 보다 큰 규모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물며 오늘 우리 나라에 있어서와 같이 기계 제작 공업의 장성 템포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공작 기계 생산을 더욱더 급속한 템포로 장성시켜야 할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에서 공작 기계 생산의 발전 템포를 보다 높여야 할 필요성은 단지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작 기계 공업을 더 빨리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의 다른 하나는 오늘 당이 그처럼 강조하고 있는 공업 부문에서의 기계화, 자동화 수준의 가일층 제고를 보장하며 농촌 경리를 포함한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기술 혁명을 보다 급속히 추진시켜야 할 사정과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기계 공업의 발전 템포가 높으며 공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기술적 개건이 광범히 그리고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현 조건하에서 공작 기계 생산을 보다 높은 템포로 발전시키는 것은 긴급히 해결하여야 할 객관적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공작 기계 한 대가 한 대 이상의 공작 기계를 생산할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 결정은 이러한 객관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대책으로 된다.

뿐만 아니라 당의 이 대책은 뒤떨어진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빨리 나아갈 것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실제 행동으로 표시하고 있는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애국적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라는 당의 호소를 받들고 이미 자체로 공작 기계를 생산하는 투쟁을 전개하여 온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금년 1.4 분기 동안에만도 기계 공업성 산하 공장들에서 기본 계획 외에 660 여대, 전국적으로는 약 1,724대의 공작 기계를 만들어 생산에 리용하고 있다.

대중의 창조적 열성을 귀중히 여기며 그를 깊이 신뢰하는 우리 당은 이러한 대중의 애국적 발기를 집중하여 그를 정책에 구현시켰는바 바로 여기에 금번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 결정의 생활력과 그의 확고한 실천적 담보가 있는 것이다.

* *

오늘 우리 나라에서 공작 기계 생산을 단기간 내에 급격히 제고시키기 위한 투쟁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도에 의하여 진행된다. 즉 그것은

첫째로 기계 공업성 산하의 전문적인 공작 기계 공장들에서 생산 설비를 최대한 리용함으로써 최신 기술로 장비된 각종 현대적 공작 기계 생산을 증가하는 것이며,

둘째로 기계 공업성을 위시한 모든 생산 성(국)들과 기타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기계 공장들에서 해당 기업소에 부과된 기본 제품들을 생산하면서 공작 기계 직장을 건설하여 자체의 현존 공작 기계 보유 대수를 배가하는 것이며,

세째로 생산 성(국) 산하의 대규모 기업소 및 지방 산업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전체 인민 경제 부문의 공무 동력 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작 기계가 한 대 이상의 공작 기계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의 공작 기계 생산은 주로 첫째 방도에 의거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속도와 현존 공작 기계 생산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의 실제적 상태에 비추어 볼 때 둘째 및 세째 방법을 첫째 방법과 호상 정확히 결합시킴으로써 공작 기계 생산을 적극 추진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나라 전체 공작 기대 보유량의 70% 이상은 기계 공업성을 제외한 기타 성 산하 기관들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이 공작 기계들을 단지 자기 부문에 소요되는 기계 설비들의 보수나 부속품 생산에만 돌릴 것이 아니라 그의 리용률을 제고하고 창의 창발성을 발휘함으로써 모든 공작 기계가 한 대 이상의 공작 기계를 생산하게 한다는 것은 공작 기계 생산의 급격한 장성을 보장하며 생산의 기술적 장비도를 제고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민 경제의 전면적인 기술적 개건이 높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 시기에 있어서 만일 우리가 전문적인 공작 기계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작 기계에만 의거하여 기계 공장들의 개건 확장에 요구되는 수요와

각 생산 성(국) 산하 기업소의 공무 보수 직장 능력의 개건 확장에 소요되는 공작 기계의 수요를 충족시키려 한다면 우선 모든 공업 부문의 심장인 기계 공업 자체의 급속한 발전 속도를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문에 있어서의 공무 동력 부문의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그의 생산을 계속 장성시킴에 있어서 현저한 지장을 받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공작 기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공작 기계의 새끼치기 운동을 전 군중적으로 전개한다면 우리는 실로 단 1년 남짓한 기간에 1958년의 우리 나라 공작 기계 생산 실적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공작 기계들을 더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우리 나라의 전문적인 공작 기계 공장들이 매년 평균 50%라는 높은 장성 템포로 발전한다 하여도 근 7년이나 요하게 될 것을 단 한 해 동안에 달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금속 공업, 화학 공업 및 기타 모든 생산 성(국) 산하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은 자체의 공무 보수 능력을 확장하고 부속품 생산의 증가와 보수 사업의 성과적 진행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금속, 화학 및 기타 부문에 소요되는 각종 완성된 기계 설비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전문적인 금속 기계 공장 또는 화학 기계 공장으로 발전될 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공작 기계의 새끼치기 운동이 본래의 전문적 공작 기계 제작 공장의 힘에만 의존해서가 아니라 바로 모든 공장, 기업소 및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공작 기계들의 최대한의 리용과 이 부문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애국적 열의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공작 기계의 새끼치기 운동에 의한 공작 기계 생산 규모의 급속한 증대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기술적 장비도를 최단 시일 내에 급격히 제고시킬 것이다. 특히 새로 생산된 공작 기계들이 직접 생산 과정에 인입되여 다시 그것들이 역시 배가 운동에 망라되는 경우에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각 부문을 대기계 공업의 기술적 토대 우에 확고히 올려 세우기 위한 력사적 위업의 실현은 현저히 단축될 것이다.

이리하여 그것은 아직 우리 나라 공업, 농업, 운수간, 공업 부문 간에 존재하는 물질 기술적 토대상 차이와 대규모 국영 산업과 중 소 규모 기업소 간에 잔존하는 기술적 장비도의 차이를 현저히 제거케 할 것이다.

특히 중 소 규모의 지방 산업 및 협동 단체 기업소들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공작 기계 생산을 위한 투쟁은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6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 과정에서 전국 각지에 신설된 지방 산업 기업소들과 협동 단체 기업소들을 새로운 기술적 토대 우에 올려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게 된다.

매개 지방들에서 공작 기계 보유 대수를 부단히 증가시키며 해당 지방의 수요에 적응한 기계 제작 공업의 기지를 구축하는 것은 지방 경제의 종합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심 고리를 해결하는 것으로 될 것이며 모든 지방들에서 기술 혁명의 보다 성과적인 수행을 위한 근거지를 튼튼히 다지는 것으로 될 것이다.

결국 공작 기계 생산의 급격한 증대와 더불어 인민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적 고정 폰드의 절대적 규모와 그의 기술적 수준은 현저히 제고될 것이며 그의 질적 구성은 더욱더 개선될 것이다. 생산적 고정 폰드의 확대 재생산에서 그의 핵심 부문인 기계 설비 생산의 비중이 더욱 제고됨에 따라 생산 수단을 위한 생산 수단 생산의 장성 템포는 종전보다 더욱 빨라질 것이며 그의 비중이 가일층 제고될 것이다.

생산 수단, 그 중에서도 제 1부류를 위한 생산 수단으로 되는 공작 기계의 증산과 더불어 공업 및 인민 경제 전반에 걸친 기계 공업의 지도적 역할이 가일층 제고됨에 따라 당연히 소비 수단 생산도 더욱 급속히 장성될 것이다. 즉 대량적으로 생산되는 공작 기계들은 현대적인 방직 기계, 식료품과 일용품 가공용 기계 설비 및 각종 농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됨으로써 소비 수단 생산도 현저히 장성되며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적 생활 수준이 더욱 제고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 공작 기계의 새끼치기 운동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관한 우리 당의 기본 경제 정책을 더욱 철저히 관철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를 계속 앙양시킴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이 군중적 운동은 우리의 사상 의식 개조와 혁명적 전개력의 배양 및 정확한 사업 작풍의 확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공작 기계의 새끼치기 운동을 통하여 새 것은 낡

은 것을 타파하고 있으며 혁명적 적극성은 온갖 낡은 사상 잔재들──소극성, 보수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화 관점 등을 무자비하게 타파하고 있다. 이 운동을 통하여 근로 대중의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창의 창발성은 더욱 높이 발양되고 있으며 경제 지도에서 지도 일'군들의 지도 수준은 가일층 제고되고 있다.

*　　　*

사회주의의 물질 생산적 토대를 더욱 확고히 구축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공작 기계의 새끼치기 운동은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가 있은 후 한 달 동안에 기계 공업성 산하 공장들에서는 기본 생산 과제 외에 136대의 각종 공작 기계를 생산하였으며 경공업성 산하 각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5월 한 달 동안에 종래보다 크고 우수한 100대의 공작 기계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아직도 시초적 단계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운동에 대한 정확한 지도를 주느냐 못 주느냐 하는 문제는 금후 이 운동의 성과적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공작 기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은 광범한 근로 대중의 고도의 혁명적 열정과 창의 창발성에 의거함으로써만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근로자들에게 당 결정의 의의와 목적 및 구체적 수행 방도들을 철저히 해석 침투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혁명적 기세를 더욱 앙양시켜야 한다. 지난날의 경험은 이에 대한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

지도 일'군들이 정치 사업을 선행시켜 당의 의도와 정책을 철저히 근로자들에게 침투시키고 그들과 함께 문제 해결의 고리를 찾아내는 데 자기의 력량을 집중시킨 곳들에서는 낡고 보잘 것 없는 선반 한두 대를 가진 공장들과 지방 산업 기업소들에서도 새로운 현대적 공작 기계들이 생산되고 있는 반면에 현대적 대기계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지도 일'군들이 경제, 행정 사업에만 몰두하고 근로자들에게 당의 정책과 의도를 철저히 침투시키지 않으며 일을 관료주의적으로 처리하는 곳들에서는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매개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은 현 시기 당이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고 지도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보수주의, 소극성, 신비주의를 타파하고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과 지혜를 총동원하도록 지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공작 기계의 새끼치기 운동에 궐기한 근로자들의 결의를 종합하여 보면 기계 공업성 이외의 생산 성(국)들과 지방 산업 및 협동 단체 기업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많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전문적인 공작 기계 공장들은 물론 기타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공작 기계 생산의 급격한 장성을 위한 근로 대중의 군중적인 투쟁을 자체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옳게 조직 지도하는 사업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체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현존 공작 기계의 리용률을 최대 한도로 제고하며 새로 생산된 공작 기계들을 계속 새로운 제품 생산에 인입시켜야 할 것이다. 만일 교대 계수를 가일층 제고하며 공작 기계들의 리용률을 제고함과 동시에 그의 생산성을 제고시킨다면 현존 능력으로써 보다 많은 기계를 생산할 수 있는 예비가 있다.

더우기 아직 공작 기계를 생산하여 보지 못한 공작 기계 제작 공장을 제외한 기계 공장들과 공무 직장들에서는 기술적 준비와 생산 조직상 불합리성으로 인한 시간 랑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조직 및 계획 사업이 진행되여야 한다. 특히 공작 기계 생산에만 주력하는 나머지 계획에 예견된 기계 및 부속품 생산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면 이는 그 공장의 기본 생산 계획을 수행함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전문 공작 기계 생산 직장 및 브리가다를 정확히 조직하고 공작 기계의 리용률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기술적 대책이 강구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화된 공작 기계 공장과 이미 우수한 경험을 소유한 공장, 기업소측으로부터 새로 공작 기계 생산에 착수한 공장, 기업소들에게 생산 기술적 방조를 제공하며 선진 경험을 광범히 보급하며 일반화하는 사업과 함께 특히 로동자들과 기술자들 간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왜냐 하면 자체로 공작 기계를 생산하는 것과 같은 어렵고 복잡한 일은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과학 지식이 옳게 배합됨으로써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있어서 설계 문건 작성, 기술 공정의 작성, 가공 방법, 생산 조직 등 다각적인 면에서 전개되는 기업소 간의 호상 협조는 보다 적은 생산적 지출로써 동일한 시간 내에 보다 우수한 공작 기계를 생산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공작 기계의 생산량을 장성시키기 위한 투쟁은 반드시 질 제고를 위한 투쟁과 결부되여야 한다. 중량이 가볍고 정밀도와 생산성이 높은 공작 기계 대신에 질적으로 극히 락후한 것을 생산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도리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공작 기계의 질 제고는 나라의 기술적 진보를 도모하며 사회적 로동 지출의 절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의 하나이다. 전후 대규모적인 고정 폰드의 갱신 확장과 더불어 우리 나라 공업의 기술적 장비는 절대적 규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수준에 있어서 현저히 높다. 특히 기계 제작 공업의 생산적 고정 폰드의 80% 이상은 새로운 것이며 최신 기술을 반영한 현대적 기계 설비들로써 구성되여 있다. 우리는 질적으로 우수한 최신 기계 설비들에 의하여 현존 고정 폰드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며 그의 기술적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여야 하는바 이것은 금번 2배 이상으로 증가되는 공작 기계의 질을 더욱 제고함으로써만 보다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당 중앙 위원회 2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에 철저히 립각하여 공작 기계의 생산량을 증가함과 동시에 그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공작 기계의 리용률을 제고하며 앞으로의 계획적인 확대 재생산을 성과있게 보장함에 있어서 공작 기계 그루빠의 구성 관계를 옳게 파악하고 그의 정확한 균형 관계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우선 모든 력량을 다하여 공작 기계 생산의 일체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동원하며 선반류, 볼반류, 연마반류, 후라이스반류, 평삭반류, 치절반류 등 기대 그루빠별 발란스를 점차 맞추어 나가면서 생산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단능 기계와 만능 기계 및 대 중 소 규모별 기종 발란스를 작성함으로써 생산과 수요의 균형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작 기계 생산의 급격한 장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기술 인재를 급속히 장성시키는 것이다. 생산된 공작 기계는 그를 훌륭하게 리용할 줄 아는 기능공들과 결합됨으로써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새로 생산되는 공작 기계들이 곧 생산에 인입되게 하며 그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기능공 양성 사업이 공작 기계 생산에 선행되여야 한다. 기계의 증가와 기능공 수의 장성과의 호상 관계를 볼 때 금번 공작 기계 대수가 2배 이상으로 장성됨과 관련하여 기능공 수는 장성되는 공작 기계 대수에 비해 최소한 2.5배 이상의 장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당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에서는 매기계 공장들에서 전반적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일정한 양성 계획에 의하여 기능자가 책임지고 무기능공을 기능공으로, 기능공을 고급 기능공으로, 고급 기능공을 다기대 운전공으로, 나아가서는 기수, 기사로 육성하며 또한 설계 일'군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기능공 수의 절대적 장성과 관련하여 가능한 정도로 현존 공작 기계를 반자동화 및 자동화된 기계로 현대화하며 기능공들을 다기대공으로 양성하는 사업은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와 함께 새로 생산되는 공작 기계를 반자동화 및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대책은 로동력의 장성하는 절대적 수요량을 현저히 축감시키며 생산 능률을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공작 기계 증산을 위한 투쟁을 보다 성과있게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당은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한 기계 설비들의 발명, 창조 운동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대담하게 전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공작 기계의 증가는 사실에 있어서 공장의 확대를 의미하며 공작 기계 자체가 높은 정밀성을 가진 것이니만큼 그의 생산을 급속히 확장하기 위하여서는 기술 관리 및 생산 조직을 더욱 개선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적 앙양 속에서 당의 현명한 령도에 따라 공작 기계 생산 증대를 위한 위대한 사업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기술 혁명을 촉진시키며 사회주의 물질 생산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력사적 위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이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많은 공작 기계를 가진 선진 기계 공업국으로 만들어야 하며 모든 부문에서 기계화, 자동화, 전기화가 실현되는 것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지방 산업 발전의 인민 경제적 의의와 그의 가일층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문제

김 상 학

I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6월 전원 회의 결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당이 제시한 과업——매개 시, 군에 한 개 이상의 지방 산업 공장을 신설해야 할 과업을 훨씬 초과 수행하여 매개 시, 군에 다섯 개 이상의 공장을 신설하였다. 그리하여 기존 도영 공장과 생산 협동 조합을 합한다면 오늘 우리 나라에는 2,000개 이상의 지방 공업 공장들이 설치되였다.

금년도 지방 공업 총 생산액은 작년도에 비하여 2.6배로의 획기적인 발전을 예견하고 있으며 금년도 1.4 분기의 생산 실적은 작년 동 기에 비하여 243%로 증대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지방 산업과 생산 협동 조합 공업을 포함한 지방 공업의 발전은 최근 년간에 비로소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공업 발전의 초기에 이미 지방 산업 발전의 의의와 그의 발전을 위한 기본 방도를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각 도 인민 위원회 관할하에 있는 지방 산업은 반드시 광범한 필수품 생산 확장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도, 시, 군, … 간부들은 지방 원료 원천들을 탐구함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은 지방 산업을 성과있게 발전시킴에 큰 의의를 가지는 까닭이다》 (선집, 제 1권, 1955년 판, 327—329페지). 우리 당은 이미 전쟁전 평화적 건설 시기와 전쟁 기간 및 전후 복구 시기를 통하여 지방 공업 발전에 적지 않은 힘을 돌려 왔다.

그것은 우선 일반적으로는 지방적 원료 원천과 지방적 창의에 기초한 생활 필수품 생산의 급속한 확장을 위한 보충적 대책으로 제기되였으며 또한 생산 협동 조합에 관하여서는 수공업자들과 개인 기업가들의 사회주의적 개조 정책과 관련하여 제기되였다.

전쟁전 평화적 건설 시기 말기에 그 기초를 닦았던 중 소 규모의 지방 산업은 지난 전쟁 기간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매우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이것은 전쟁 기간에 대규모 공업의 파괴와 전시 조건에서 중 소 규모 공업이 가지는 여러 가지 유리성과 전시하 인민 생활 필수품 생산 확대의 긴절한 요구 등에 의하여 초래되였다. 그리하여 전쟁 기간에 지방 산업의 생산액은 3배 이상 증대되였으며 공업 총 생산액 중에서 협동 단체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근 2배나 증대되였다. 전후 시기에 있어서도 지방 산업은 계속 발전하였는바 특히는 수공업자 및 개인 상공업자들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과 관련하여 협동 단체 공업의 생산이 더욱 급속하게 증대되였다. 그러나 우리 당 6월 전원 회의 이전에 우리 나라의 지방 공업은 인민 경제 전체 생산에서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우리 당 6월 전원 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의 획기적인 발전이 달성된 지방 산업은 우리 나라 공업 구조상에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면서 자기 발전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 섰다.

이것은 첫째로 중 소 규모의 지방 공업이 전 인민적 운동에 기초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의 급속한 증대를 보장하면서 그의 전면적인 발전을 가져 왔으며, 둘째로 지방 공업 생산의 절대적 및 상대적인 급속한 장성은 공업 총 생산액 중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의 현저한 제고를 가져 왔으며, 세째로 그것은 지방 공업 중에서도 전 인민적 소유에 기초한 지방 산업의 보다 급속한 발전(일부 생산 협동 조합의 지방 산업에로의 전환을 포함하여)과 특히는 시, 군영

지방 산업의 새로운 창설에서 표현된다. 그리하여 오늘 지방 공업 생산에서 국가적 소유인 지방 산업의 역할은 현저히 제고되였으며 그것은 앞으로 더욱더 확대 강화될 것이 예견된다.

공업 총 생산액 중에서 지방 산업 및 협동 단체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동

	1950년	1953년	1957년	1958년	1959년 (계획)
지방 산업	2%	9.1%	4.7%	6%	14%
협동 단체 공업	6	9.9	8.1	12.2	13.5
계	8	19.0	12.8	18.2	27.5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 전체적으로 보아 대규모 공업이 계속 사회주의 공업에서 기본 형태로 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주의 공업의 기초로 되는 중공업 부문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경공업 부문에 국한하여 볼 때 중 소 규모의 지방 공업은 대규모 공업의 주도적 역할이 보장된 조건에서 그와 병행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경공업 생산의 중요 형태의 하나로 되고 있다.

현 시기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서 지방 공업의 이와 같은 획기적인 발전은 우리의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즉 우리 나라에서 지방 공업의 전면적인 발전은 일반적으로는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더욱더 촉진시키며 특수적으로는 보다 급속한 시일 내에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더욱 풍족하게 해결하기 위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였다. 오늘 도시에서는 물론 농촌에서도 식료 가공 제품과 일용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는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바 이것은 인민 소비품 생산의 더욱 급속한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제 1차 5개년 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앞당겨 실현하려는 조선 인민의 절실한 념원을 반영하여 급속한 시일 내에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더 풍족하게 해결하면서 인민 경제를 보다 높은 템포로 발전시키기 위한 온갖 대책을 백방으로 강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당은 대규모 공업의 발전에 의한 중앙적 예비를 동원시키는 것과 함께 중 소 규모의 지방 산업을 광범히 발전시킴으로써 지방적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시키기 위한 적극적 대책의 실시가 요구되였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지방 산업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객관적인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동시에 그의 성과적 실현을 위하여 성숙된 제 조건이 구비되여 있다.

그것은 첫째로 전후 복구 건설의 성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는 상당한 정도에서 새로운 기술로 장비된 강력한 중공업 기지와 경공업 기지가 있다. 전후 시기에 우리 당은 우선 기형적인 것이지만 일정한 토대를 가지고 있던 중공업을 자립적 기초에서 복구 건설함으로써 그에 기초하여 현대적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 소 규모의 지방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였다. 전후 시기에 우리 당이 보다 큰 력량을 집중하여 복구 건설한 현대적 기술로써 장비된 대규모의 중공업 및 경공업 기업소들은 나라의 자립적 경제 발전의 기초로 되면서 지방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건설 및 기술 공정상의 경험을 나누어 주며 기능공의 양성을 도와 주며 일부 기자재들과 부산물들을 공급하는 등의 중요한 방조를 주고 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또한 지난 시기에 어려운 경제 건설의 실천에서 단련 육성된 다수의 숙련 로동자, 기술자 및 경제 관리 간부들이 있다. 우리는 량적으로 기술—경제 간부들을 상당한 정도에서 보장하게 된 현 조건에서 지방 경제 기관들의 역할을 훨씬 더 제고하며 지방 산업의 전면적인 발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전제를 조성하였다.

세째로 그것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 경리의 협동화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됨으로써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유일적 지배가 확립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법칙들의 전면적인 작용을 확고히 조건지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인민 경제의 보다 급속한 확대 재생산을 위하여 도시와 농촌, 인민 경제 전체 분야에 잠재하는 온갖 로력 자원과 물자 자원 및 자연 부원을 전면적으로 동원하며 그를 보다 합리적이며 계획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케 하였다.

네째로 우리에게는 강력한 중공업의 지원하에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가 있으며 또한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 부원이 있다. 다각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농촌 경리는 식료 가공품 및 일용품 생산을 위주로 하는 지방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풍부한 원료 기지를 조성케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 산업 생산물의 광활한 소비 시장을 조성케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각 지방에 있는 풍부하고도 다양한 자연 부원은 풍토, 기후, 생활 조건 등에 따라 지방

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식료 가공품 및 일용품 등에 대한 지방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지방 원료 원천에 의하여 해결하는 지방 산업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끝으로 고귀한 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우리 당에 의하여 육성 단련되었으며 락후와 빈궁을 청산하고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일떠선 우리 나라 근로 인민들의 혁명적 적극성——이것은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이룩하는 강력한 힘의 기본적 원천으로 될 뿐만 아니라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타파하며 온갖 지방적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함으로써 지방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되고 있다.

Ⅱ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 지방 산업의 전면적인 발전의 객관적인 필연성과 그의 인민 경제적 의의는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합법칙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우리의 지방 산업은 바로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과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요구에 의하여 발전된다.

자본주의하에서와는 달리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지방 산업은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과의 호상 관계에서나, 현대적 대규모 공업과 중 소 규모 공업과의 관계에서나,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점에 있어서나 아무러한 대립적 모순도 내포하고 있지 않다. 소비재 생산을 위주로 하는 중 소 규모의 지방 산업은 중공업에 기초하여 발전하면서 다른 한편 중공업의 가일층 발전을 위한 중요 조건으로 된다. 또한 그것은 대규모 공업과의 합리적 배합 밑에 중앙 집권제와 지방적 창발성과의 최대한 결합을 보장하며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인민 경제 발전의 전반적 앙양을 촉진시킨다.

우리 당 6월 전원 회의 이후 신설된 공장과 기존 공장들을 포함한 우리의 지방 산업 공장들은 1959년도에 작년도 경공업성 산하 대규모 기업소들에서의 공업 총 생산액을 릉가하는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며 지방 산업과 생산 협동 조합 공업을 포함한 지방 공업의 금년도 전체 공업 총 생산액은 경공업성 산하 기업소의 생산액을 훨씬 릉가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 공업의 발전이 공업 전체의 발전, 특히는 소비품 생산의 급속한 발전 템포를 보장함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와 같이 급속한 생산 증대를 보여 주고 있는 지방 산업 생산물의 그 대부분은 5개년 계획에서 예견되지 않았던 새로 적발된 예비로서 소비품에 대한 주민들의 급속히 장성하는 수요를 보다 빨리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요한 보충 원천으로 되고 있다.

금년도 지방 공업 생산은 높은 장성 템포를 예견하고 있다.

소비재 생산을 위주로 하는 지방 공업의 이와 같이 급속한 발전은 물론 인민 소비품 생산의 급속한 증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기여로 된다. 뿐만 아니라 현 시기 우리의 지방 공업의 이와 같은 발전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대규모 경공업 기업소들에 의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을 증대시키는 경우에 비하여, 중공업 발전과의 호상 관계에서나 또 인민 경제 전체의 확대 재생산의 견지에서나, 보다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지방 산업이 분산된 지방적 자금의 동원과 보다 적은 국가적 투자로써 건설되였으며, 둘째로 그의 설비들이 비교적 사소하고 간편한 자재들과 특히는 일부 유휴 자재들의 동원에 의하여 건설되였으며, 세째로 가장 중요하게는 원료 원천과 로력 원천에 있어서 새로운 지방적 예비에 의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지방 산업 공장들에서 사용되는 원료의 상당한 부분은 중공업과 농촌 경리의 기본적 생산물로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리용하지 않으면 거의 페기될 수 있는 자연적 야생물과 농촌 경리의 부산물 및 대규모 기업소의 폐설물 등의 합리적 리용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는 자금과 자재 특히는 원료 원천과 로력 원천을 지방 산업에서 리용하지 않으면 생산에 인입되지 못할 수도 있는 지방적 예비를 동원하여 소비품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다 큰 력량을 중공업의 가일층 발전을 위하여 집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을 정확히 관철시키며 인민 경제에서 소비재 생산의 장성을 급속히 제고시키면서도 확대 재생산의 높은 템포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중 소 규모의 지방 공업은 대규모 공업이 가지는 제약성 즉 거액의 기본 투자의 일시적 지출, 건

설 기간의 장기성, 기업소를 원료 원천지 또는 제품 소비지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 지방적 원료 원천과 로력 자원에 대한 합리적 리용의 제한성 등의 제약성을 제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당 건설비도 모든 경우에 대규모 공업보다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 산업 공장들을 건설할 때에 우리는 생산 설비와 부대 시설들을 비교적 간편한 지방 자재와 유휴 자재를 동원 리용하였으며 특히 기본 로력 원천에 의거하는 대규모 공장들에 비하여 주택 건설을 위한 많은 자금을 절약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중 소 규모의 지방 산업 공장들의 건설비는 현저히 축감되였다. 사실상 최근 우리 나라의 각지에서 건설되고 있는 년산 2,000—3만 톤의 쎄멘트 공장들은 년산 20만 톤의 현대적 쎄멘트 공장을 건설할 때에 비하여 생산 능력당 기본 투자액이 5분의 1—10분의 1에 불과하다. 최근 전국 각지에 건설되고 있는 수천 개소의 소규모 수력 발전소들도 많은 경우에 생산 능력당 건설비를 비교적 적은 지출로써 해결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중 소 규모의 지방 산업 공장들에서도 로동자 및 기술자들의 대중적 창의에 의하여 새로운 선진 기술 공정을 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저렴한 지방 원료 원천의 리용에 의하여 원가의 현저한 저하와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고 있다. 6월 전원 회의 이후 신설된 공장들에서만 하여도 그의 대부분은 1958년도 내에 이미 상당한 수익성을 냈으며 그의 리윤 총액은 1억 6천 300만원(구 화폐)에 달하였다. 특히 우리는 중 소 규모 기업과 대규모 기업에서의 사회적 생산비를 대비할 때 그것을 기업소의 생산비로써만 대비하여서는 불충분하다. 사회주의하에서 생산물에 대한 지출의 평가는 그 생산물이 생산 현지에서의 그를 위한 지출 뿐만 아니라 그 생산물을 소비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지출된 총 비용을 대비 평가하는 것이 더 합목적적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쎄멘트, 벽돌 등의 건재품, 일부 식료품과 같이 운수의 경제성이 낮은 제품들 즉 제품 가치에 대한 운반비의 비률이 높은 그러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중 소 규모의 지방 산업을 건설하는 것은 지방 원료와 로력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제품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에서의 긴절한 시간적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그것 없이는 발전할 수 없는 인민 경제의 타 부문의 새로운 발전을 보장하는 등 다각적 면에서 볼 때 그의 경제적 효과성은 더욱 제고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지방 산업의 발전은 생산력의 합리적 배치를 보장함으로써 생산을 원료 원천지와 제품 소비지에 접근시키며 지방 경제의 종합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가져 온다. 이리하여 원료 및 제품의 수송 거리는 단축되며 상품 운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며 생산 기간과 류통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사회적 재생산 과정은 촉진된다.

지방 도시와 농촌에의 지방 산업의 광범한 분포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 소멸시킬 수 있는 조건을 조성케 하고 있으며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의 과업 수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 조건으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이와 같은 지방 산업 공장들은 주민들에게 각종 식료품과 일용품을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만 하여도 수십만 톤의 쎄멘트와 10만 대의 우마차를 비롯하여 각종 건재 및 개량 농기구 등 농촌 건설과 농업 생산의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생산 수단들을 공급하고 있다. 우리의 농촌 경리는 자기의 생산물을 원료로서 소비하며 자기에게 소비품과 농기구 및 건설 재료들을 공급하여 주는 공장들을 보다 가까운 곳에 가지게 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공업과 농업 간의 경제적 련계를 한층 더 강화하며 특히는 공업과 농업 간의 지방적 류통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지방 산업의 전면적인 발전은 지방 읍'군들로 하여금 경제 관리 방법과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경제 관리 간부와 기술 인재들을 대량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시, 군 소재지에 거주하는 로동자, 사무원의 부양 가족들을 광범히 생산에 인입함으로써 그들을 로동 계급의 대렬에서 사회주의적 의식으로 교양 단련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화폐 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급속히 제고시킬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여 주고 있다.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 지방 산업 발전의 거대한 인민 경제적 의의와 이 분야에서 이미 거둔 성과는 지방 산업의 전면적인 발전에 관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확증하여 준다.

Ⅲ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58년 6월 전원 회의 결

정을 실천하는 행정에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대중적 창발성과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함으로써 지방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미 지방 산업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기초를 닦았다.

그러나 자기 발전의 일정한 기초를 닦은 지방 산업 공장들을 더 새로운 발전 단계에로 끌어 올리기 위하여서는 지방 산업 공장들의 조직 경제적 및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과업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 시기 지방 산업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지방 산업 공장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며 일'군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제고하는 문제이다. 지방 산업 공장들의 기술 장비를 개선하며 여기에 알맞는 각종 새로운 선진 기술 공정을 도입함이 없이는 품종의 대대적인 확대와 생산물 품질의 현저한 제고 및 원가 저하에서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것 없이는 생산의 급속한 량적인 증대도 보장될 수 없다. 신설된 일부 지방 산업 기업소들에서는, 요구되는 작업 방법과 기술 공정상의 조치를 옳게 해결하지 못한 탓으로 생산량을 증대시키지 못하거나 요구되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실례가 적지 않다.

오늘 우리의 지방 산업에서도 기술 장비의 개선 특히 생산 행정의 기계화는 로동력 절약과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기본적 방도로 된다. 로동력의 절약은 현 시기 우리의 경제 발전에서의 긴절한 기본 문제의 하나이다. 지방 산업에서의 로력 원천은 기본적으로 부양 가족과 농한기의 일부 농촌 로력 등 지방적인 로력 예비의 동원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의 로력 문제도 여유있게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방 산업에서 로력을 가능한한 절약하며 생산을 더 확대시키기 위하여서는 우선 적은 자금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자재로써 실시되는 부분적 기계화 즉 소기계화를 위주로 하여 생산 행정의 점차적인 기계화를 주밀하게 조직해야 한다. 이와 같이 지방 산업에서 기술적 토대를 점차 강화하는 것은 앞으로 중 소 규모의 지방 산업 공장들을 점차 현대적인 공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대책으로도 된다.

우리는 지방 산업에서 성능이 비교적 낮은 수공업적 설비들까지도 광범히 동원하는 동시에 비록 중 소 규모의 설비라 할지라도 비교적 생산 능률이 높은 기계 설비들을 도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지방 산업 공장들의 기술적 장비와 기술 공정상의 개선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매개 지방 산업 공장들에서 기술자 및 로동자들의 광범한 대중적 창발성을 발휘시킴으로써 자체 력량에 의한 해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각 도의 종합 기계 공장들은 현존 지방 산업 공장들의 기술 장비를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놀아야 하며 특히 지방 산업 공장들과 생산 협동 조합을 꾸리는 데 필요한 공작 기계와 신설되는 식료품 및 일용 필수품 공장의 가공 설비를 중점적으로 생산 공급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지방 산업 공장들은 앞으로 1년 내에 3,000여대의 공작 기계를 생산할 것을 결의하였는바 이것은 장차 지방 산업에서의 기술 장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방 산업 공장들에서 기술 장비를 개선하며 새로운 작업 방법과 선진 기술 공정을 도입하기 위하여서는 공장 건설에서 표준 설계를 광범히 도입하며 작업 행정에서 표준 조작법을 보급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각 도 단위로 업종별로 시급히 모범 공장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지방 산업 기업소들에서의 기술 개선과 선진 기술의 보급 및 관리 운영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놀게 될 것이다.

지방 산업에서의 기술 발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로 대중의 창의 창발성에 의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 산업 기업소들의 기술 발전을 위하여 성, 국들의 직접적인 기술적 방조와 또는 성, 국 산하 대규모 기업소들로부터의 선진 기술의 전습 및 기능공 양성 사업 등 분야에서의 각종 기술적 협조는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우리의 사업은 불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이 분야의 사업에서의 산만성과 무계획성에서 표현된다.

지방 산업에서 기술 장비와 기술 공정을 개선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고 생산을 더욱 확장하며 제품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숙련 로동력과 기술자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그런데 신설된 우리의 지방 산업 공장들은 다수 경우에 부양 가족, 후방 가족, 애국 렬사 유가족들과 농한기의 일부 농업 협동 조합원들을 그의 기본적인 로력 보충 원천으로 하고 있다. 금년도 1.4 분기 말 현재 도영 지방 산업에서는 전체 종업원 중 녀성의 비중이 51.7%, 시, 군영 지방 산업에서는 그 비중이

71.2%에 달하고 있는바 그 비중은 앞으로 더욱 제고될 것이 예견된다. 이 녀성 로력자의 많은 부분은 미숙련 로동력이다. 더우기 경험있는 수공업자들의 대부분이 기존 지방 산업 공장들과 생산 협동 조합에 인입된 조건하에서 일부 공장들을 제외한 신설 지방 산업 공장들은 준비된 숙련 로동력과 기술자들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설 확장되는 지방 산업 기업소들은 그에 소요되는 숙련 로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 성, 국들과 학교, 교육 기관들의 적극적인 방조를 받아야 하는 동시에 지방 산업 기업소 자체 내에서 기술 학습과 기술 전습을 강화함으로써 생산하며 배우는 방법에 의하여 필요한 숙련 로동력을 확보하는 데 더 많은 력량을 경주하여야 한다.

우리의 지방 산업은 일부 현대적인 새 기술의 도입과 함께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내려 오는 재래식 기술도 광범히 도입하여야 한다. 현대적 기술과 재래식 기술과의 합리적 배합——이것은 현 시기 우리의 지방 산업의 기술 발전에서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된다. 중 소 규모의 설비로써 지방적 원료와 지방적 수요에 적응한 다양한 품종의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부면의 기술은 많은 경우에 대중적인 창의와 집체적인 노력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 또 새로운 선진 기술의 도입과 함께 지방에 잠재하고 있으나 아직 리용되지 않고 있는 각종 재래식 기술들을 광범히 탐구 리용하여야 한다.

지방 산업의 가일층 발전을 위하여서는 기술 분야의 개선과 함께 또한 지방 산업 기업소들에서의 생산 조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 소 규모 공장들이라 하여서 생산의 형을 선택함에 있어서 반드시 개별 생산이거나 소계렬 생산에만 국한할 리유는 없다. 여기에서도 소계렬 생산은 물론 대계렬 생산이거나 대량 생산까지도 도입할 수 있다. 중 소 규모의 지방 산업은 지방 원료 원천과 지방적 수요에 적응하는 생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종을 한 개 공장에서 종합적으로 또는 병렬적으로 생산하는 공장들(례컨대 종합 기계 공장, 식료품 종합 공장 등)이 보다 합목적적인 경우가 많지만 다른 한편 중 소 규모의 공장을 다수로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개 공장에서 생산되는 품종을 더 효과적으로 선택하며 전문화를 더 합리적으로 조직할 수도 있다. 때문에 앞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생산을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지방 산업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진다.

오늘 우리의 지방 산업에서는 그의 기술적 토대와 경제 활동이 개선됨으로써 품종이 확대되고 생산의 규모는 현저히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원료에 대한 장성하는 지방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의 원료 기지를 조성하며 그를 강화하는 문제는 가장 선차적이며 현실적인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지방 산업이 주로 소비재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서는 생산 설비나 기술 문제보다도 우선 원료 문제의 해결이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지방 산업의 기본적인 원료 원천은 첫째로 지방적 원료 자원의 최대한의 동원이며, 둘째로는 역시 지방적 원료 원천의 하나로서 대규모 국영 공업 기업소들의 폐설물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데 있으며, 세째로 일부 불가피한 자재들에 한하여 중앙의 물자 폰드를 배정 받는 데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는 각종 건재 생산과 도자기 생산을 위한 지방적 의의를 가지는 지하 자원과 함께 식료품 가공 및 일용 필수품 생산을 위한 농산물, 수산물 및 림야 채취물이 각지에 풍부하게 보장되여 있다. 더우기 농촌 경리의 협동화와 농업 생산의 다각적인 발전이 더욱더 크게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지방적 원료 원천은 일층 유리하게 보장되고 있다. 오늘 우리의 과업은 지방적 원료 원천의 탐구와 그 기지를 강화함이 없이는 지방 산업 발전에 대한 인민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데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거 이 분야에서 우리의 사업은 적지 않은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주로 지방 산업 공장들을 건설할 때에 지방적 원료 원천에 대한 구체적 타산과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중앙으로부터의 국가적인 원료 배정에 지나친 기대를 거는 안일성에서 표현되였다.

최근 우리의 경험은 지방 공업 발전에서 지방 원료 원천에 의거하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업에서의 성과는 그에 정비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례컨대 금년도 1.4 분기 실적에 의하면 지방 공업의 생산 계획을 114.8%로 수행한 평북도에서는 전체 소비한 원료 중 지방 원료의 비중이 약 75%였다면 지방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약 57%에 해당하였던 황해북도에서는 그의 생산 계획 수행률이 73.1%에 불과하였다.

지방적 원료 원천의 확보를 위한 사업의 개선은 첫째로 원료 원천을 탐구하는 분야에서 대중적 지혜

를 더 광범히 동원하며 그를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하며, 둘째로 원료 원천을 탐구하며 그를 동원하는 분야에서 계획적 및 조직적 대책을 개선 강화하여야 하며, 세째로 야생 섬유, 야생 유지 등 각종 자연 원료의 기지를 인공적으로 조성하며 목재와 연료 등의 수요를 보충하기 위하여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지방 산업 공장의 자체 생산 기지를 창설하여야 하며, 네째로 농산물, 수산물 및 림야 채취물의 수매 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업을 합리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지방 원료 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 사업을 광범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매개 도, 시, 군들의 자연 부원과 로력 자원에 대한 정밀한 과학적 조사 정리 사업은 해당한 지방 경제의 발전 뿐만 아니라 전체 인민 경제의 발전과 특히는 나라의 공업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우리의 실정에 의하면 극히 일부의 도들에 대하여서만 과학적으로 정리된 자연 지리적 및 경제 지리적 자료가 있을 뿐 시, 군들에 이르러서는 이 분야의 사업이 더욱 미약하게 진행되고 있다. 매개 지방 경제의 발전과 관련되는 이와 같은 자료의 준비는 매개 지방의 지방 산업 발전의 특성과 해당 지역에서의 경제 발전의 전문화를 규정하기 위하여 중요한 전제적인 사업으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종합 기계 공장, 도자기 공장 및 수공예품 공장들(각 도에)과 식료품 종합 공장, 소규모의 육류 가공 공장 및 제지 공장들(각 시, 군에)과 같은 공장들은 매개 도 또는 매개 시, 군에 모두 공통적으로 한 개 이상 있어야 할 공장들이다. 그러나 매개 도, 시, 군들에서 전체 인민 경제의 발전과 함께 해당한 자기 지역 경제를 더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는 견지에서 자기 지역에 보다 적합한 지방 산업 공장들을 건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여기에서 매개 도, 시, 군들은 자기 지역 내의 지방 산업 공장들에서 생산해야 할 제품들을 정확히 선택해야 하는바 그것은 우선 해당 지역 내의 지방 원료 자원과 로력 자원의 상태에 의존하며 또한 제품 수요의 특성과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운수의 경제성 여하에 의존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 계획 기관들은 지방 산업에서의 생산물의 품종과 그 수량을 규정하며 지방 산업의 가일층 발전을 지도함에 있어서 지방 경제 발전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는 동시에 그를 전체 인민 경제 발전의 요구와 정확히 결합시켜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인 요구이다. 만약 우리의 지방 산업이 지방주의적 또는 기관 본위주의적 견지에서 발전된다면 그것은 국가의 물자 및 로력 자원과 화폐 자금을 랑비케 하며 심지어 제품의 일부 체화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지방 산업 발전의 합리화와 관련하여 지방 계획 기관들은 원료 원천과 제품 수요의 특성에 적응한 지방 산업 기업소의 정확한 선택과 생산의 계획화 사업에서 그의 역할을 제고하여야 하는 동시에 제품에 대한 해당 지역 내 및 제 지역 간의 합리적 분배를 위하여 신중한 고려를 돌려야 할 것이다.

최근 시기 우리의 지방 산업은 짧은 시일 내에 건설 확장된 기업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조건하에서 그에 대한 관리 지도 수준의 제고는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바 이 분야에서 우리의 사업에는 적지 않은 결함들이 있다. 지방 산업 관리 기관들은 생산, 원료 및 로동에 대한 공장 내부 계획화 사업과 생산 조직 및 로동 조직의 합리화를 위한 사업에서 그리고 또 기업소 재정 운영을 정비 강화하는 사업에서 큰 개선을 일으켜야 한다.

지방 산업 공장들의 관리 운영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분야에서 도 및 시, 군들의 책임 간부들이 지방 산업 공장들을 담당 지도하는 제도를 확고히 집행하는 것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현 시기 우리의 지방 산업을 조직 경제적으로 개선 강화하며 앞으로 그를 발전시킬 전망과 관련하여 류의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의 첫째는 지방 산업 공장들의 규모를 적절히 정비하는 문제이다. 현존 공장들에서 그 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동일 품종을 생산하는 공장들은 정리 통합하여 그의 합리적 관리 운영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국가 투자에만 의존하여 대규모화하려는 경향도 시정되여야 한다.

둘째로 그것은 현존 지방 산업 공장의 일부 관리상 재편성과 앞으로의 지방 산업 공장들의 발전 전망에 관한 문제이다. 지방의 창발성과 독자성을 더욱 더 발휘시키기 위하여 현재 도영 지방 산업 공장들에서 도'적 의의를 가지지 않는 것은 대담하게 시, 군영 공장으로 개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오늘 가능한 한도에서 지방 산업 공장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멀지 않은 장래에 매개 시, 군에 몇 개씩의 훌륭한 현대적 경공업 공장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방적 원료 원천과 지방적 수요에 기초하는 중 소규모의 지방 산업의 발전은 생산력 발전의 특수한 단계에서 경제 발전의 극히 일시적 요구에 의하여서만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지방 산업은 나라

의 생산력이 더욱 높이 발전되고 사회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 서는 그 때에 있어서도 자기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새로이 강화하면서 자기의 특유한 우월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방 산업 일'군들이 지방 산업 공장들의 발전 전망에 대하여 더 구체적이며 예견성있는 계획을 세우며 그를 전망성있게 지도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당은 앞으로 부단히 다양하게 장성하는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방 산업을 항구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째로 그것은 생산 협동 조합의 지방 산업에로의 전환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현 시기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을 수행함과 관련하여 이미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대하여서도 부단한 개선과 그의 완성이 요구된다. 이 요구의 실현은 나라의 생산력 발전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결정적 조건의 하나로 된다. 생산 협동 조합의 지방 산업에로의 전환은 우리의 경제 발전의 이와 같은 객관적 요구를 실현하는 중요 표현의 하나이다. 물론 이 과정은 자연 발생적 과정이 아니며 목적 의식적 지도에 의하여 수행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경제 발전에서의 성숙된 객관적 요구를 개별적 생산 협동 조합의 구체적 실정에 알맞게 제때에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시기에 일부 생산 협동 조합 지도 사업에서는 이 분야에서 일정한 결함을 산생시켰다. 그것은 일부 일'군들이 주관적 조급성과 사업상 안일성으로 인하여 조합의 물질 기술적 토대와 조합원들의 사상 의식 수준이 아직 그를 지방 산업에로 전환시키기에는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조건에서 그를 지방 산업에로 전환시킨 일부 실례에서 표현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국가에 대한 자금과 자재 지출의 부담을 증가시키면서 지방 공업의 생산 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지난 5월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 결정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생산 협동 조합은 어디까지나 조합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공고화되고 조합원들의 사상 의식의 개조 및 그 준비 정도를 옳게 타산하고 조합원 대중의 자원성에 기초하여 점차 지방 산업 공장으로 발전시키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 *

현 시기 우리 나라 지방 산업의 가일층 발전을 위한 제 과업을 성과있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지방 산업 일'군들이 무엇보다도 우선 지방 산업의 전면적인 발전이 가지는 정치 경제적 의의를 정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계속 사업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 당 단체들과 정권 기관의 지도 일'군들은 앙양된 군중의 기세를 옳게 조직하며 치밀하고도 전망성있는 사업 조직과 지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미제 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

《미제 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 이것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인하여 근 14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민족적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는 전체 조선 인민의 일치한 분노의 웨침이다.

조선 인민의 이 분노의 웨침은 오늘 미제 침략자들이 9년전 전 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예속시키려는 추악한 침략적 야망 밑에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범죄적 전쟁을 도발한 날인 6월 25일을 계기로 하여 더욱 격렬하여지고 있다.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으로부터 물러가게 하고야 말 견결한 결의에 충만된 조선 인민은 이 날을 《남조선으로부터 미군 철거를 위한 투쟁의 날》로 선포하고 미제 침략자들이 감행한 전대 미문의 죄악의 력사를 전 민족적 의분의 웨침으로 세계의 리성과 량심 앞에 단죄하며 남조선으로부터의 그들의 즉시 철거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경히 요구하고 있다.

조선 인민의 이 정당한 적극적인 투쟁은 오늘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에 의하여 조성된 우리 나라에서의 새 전쟁 도발의 위험성을 타개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을 촉진시키려는 것이며 조선과 극동에서의 평화를 위협하는 화근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의 투쟁은 전 세계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세계 평화 리사회, 세계 직련,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리사회 등을 비롯하여 오늘 모든 나라의 평화 단체들과 근로 단체들 및 세계의 선량한 사람들은 6월 25일을 《남조선으로부터 미군 철거를 위한 투쟁의 날》로 제정하고 국제적 깜빠니야를 전개하고 있으며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는 항의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러한 준엄한 현실 앞에서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으로부터 자기 군대를 즉시 철거하는 실지 행동으로써 이에 대답하여야 한다.

* *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과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은 조선 인민이 14년 동안 계속 당하고 있는 최대의 민족적 불행과 재난의 화근이다.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으로 말미암아 단일한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분렬되였으며 국경 아닌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국토가 량단되고 있다.

미제에 의한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 헤아릴 수 없는 저애를 주고 있으며 매개 사람들의 개인 생활에 막대한 불행을 끼치고 있다.

분렬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 조선에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과 생산의 제반 가능성을 통일적으로 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물적, 인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지 못하고 있다. 분렬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우리 인민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지혜와 재능을 민족 문화의 발전과 선진 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분렬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 조선 형제들이 래왕은 고사하고 부모 처자들 간에 서로 서신조차 주고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침략 정책에 의하여 조성된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하나의 단일한 민족에 있어서 이보다 더 비정상적이며 더 불합리한 일이 또 어데 있으랴!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침략 정책은 또한 남조선을 문'자 그대로 인간의 생지옥으로 전변시켰다. 그들은 14년 간 남조선에서 인류의 현대 력사에서 류례없는 가장 류혈적이며 야수적인 범죄적 침략의 한 페지를 각인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남북 조선은 서로 판이한 현상을 빚어내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오늘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가 확고히 구축되여 공업 생산이 이미 작년에 1944년 수준의 4배 이상에 도달하는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남반부에서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략탈과 군사화 정책으로 인하여 민족 경제가 전면적으로 파탄되고 있으며 공업 생산만 하여도 해방전 수준의 절반으로 축감되였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대야금 설비와 수백 종의 중형 기계까지 자체로 생산하며 지난 1년 간에만 하여도 지방 산업 공장만 1,000 여 개나 새로 건설되였으나 남반부에서는 독점적 상품 판매 시장으로 남조선을 전변시키려는 미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에 의하여 기간 산업 기업들은 파괴 해체되였으며 남조선 공업

생산의 기본 력량인 중 소 기업들마저 극심한 자금난, 원료난, 전력난, 판매난 등으로 인하여 작년 11월말 현재까지만 하여도 4,000 여 개나 파산되였다.

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완성되고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농업 생산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수탈과 전쟁 정책으로 인하여 수십만 정보의 파종 면적이 축소되였으며 그리하여 알곡 생산은 일제 시기의 약 32%에 해당하는 950 여만 석이나 감퇴되였다. 이 결과에 과거 조선의 곡창 지대였던 남조선 농촌은 오늘에 와서는 세계에서 이름난 미국의 《잉여》 농산물 시장으로, 만성적 기근 지대로 전락되였다.

남조선 경제의 쇠퇴, 몰락과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수탈 정책에 의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고는 극도에 달하고 있다. 남조선에는 인구의 28%, 로동 능력 소유자의 56.3%에 해당하는 660만 명의 실업자 및 반 실업자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남조선 농촌에는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만 하여도 70만 호에 달하는 절량 농가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남조선 인민들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도 가지지 못한, 중세기적 탄압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수 많은 사람들이 재판도 없이 박해 받고 학살 당하고 있다. 리 승만 도당의 비호 조종하에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미제 침략군의 략탈, 릉욕 행위와 무고한 인민들에 대한 학살 행위는 날로 우심하여 가고 있으며 청년 학생들은 동족 상쟁을 위한 강제 징병에 끌리여 가며 수십만 아동들이 배움의 길을 잃고 거리에서 헤매고 있다.

미제 침략군의 강점이 빚어낸 남조선의 참상——이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반동적이며 가장 치욕적인 것의 표본인 미제에 대하여 력사가 내리는 론고장으로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제는 멸망에 직면하여 아우성치는 리 승만 도당을 조종하여 남조선 인민들을 남미주의 자본가들과 농장주들에게 종신 노예로 팔아 넘기려는 《이민》 책동까지 꾸며내고 있다. 그들은 《이민》 책동을 남조선에서의 《인구 과잉》으로 인한 《난민 구제책》인 듯이 사태를 묘사하면서 14년간에 걸친 자기들의 식민지 략탈 정책과 군사화 정책이 빚어낸 후과를 엄폐하며 허물어져 가는 리 승만 통치의 정치 경제적 위기를 모면하려고 발광하고 있으나 그의 진면모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써도 감출 수 없다.

가령 남조선의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왜 하필 남조선 실업자들과 고아들을 모두다 받아 들이겠다고 한 공화국 정부의 제의를 거부하고 수륙 수만리 떨어진 이국 땅으로 《이민》시켜야 한단 말인가? 이것은 오직 과거의 노예 상인의 후손들인 미 제국주의자들의 진면모를 다시 한 번 폭로하여 줄 뿐이다.

미제는 이와 같이 일찌기 볼 수 없는 민족적 불행을 우리 인민에게 주고 있으며 남조선을 절망적인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

조선 인민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인한 민족적 참화를 이 이상 더는 참을 수 없으며 또 남조선 인민들이 당하고 있는 불행과 고통을 이 이상 더는 지속시킬 수 없다. 조선 인민이 당하고 있는 민족적 불행과 남조선의 암흑상을 청산하는 길——이것은 오직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키는 데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선 인민은 오늘 자기들의 전대 미문의 민족적 불행의 화근으로 되여 있는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을 견결히 배격한다.

* *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과 미제의 침략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평화는 계속 위협 당하고 있으며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계속 저해를 받고 있다.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일찍부터 조선 문제는 조선 사람 자체에 의하여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으로부터의 일체 외국 군대를 철거시킬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전쟁 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조선 인민 자체의 손으로 외부의 간섭이 없이 회담과 협상의 방법을 통하여 조국을 통일시킬 데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분렬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조선 인민의 열망이 비등되고 조선 사람 자체에 의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될 기운이 보이자 미제는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 공약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횡포한 침략 전쟁의 도발로써 대답하였다.

전후 시기에도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정전 협정을 파괴 유린하고 군사력의 증강에 광분하는 미제의 음모 책동을 그때마다 폭로 분쇄하면서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인내성있는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 점령과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면서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하여 아무런 성의도 표시하지 않았다. 제네바 회의에서도 바로 미국의 란폭 무도한 태도로 말미암아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협상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주동적으로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수차

에 걸쳐 제시하였으며 남북 조선 간의 경제, 문화 교류 및 실무적 협조 관계를 설정 발전시킴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킬 데 대한 방안을 거듭 제기하였다.

특히 공화국 정부는 1958년 2월 5일 성명에서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며 외국 군대가 완전히 철거한 후 모든 정당, 사회 단체, 개별적 인사들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전 조선적 자유 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조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재천명하였다.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이 정당한 방안을 적극 지지하여 중국 인민 지원군의 조선으로부터의 철거를 결정하였으며 중국 인민 지원군은 작년 10월 26일까지에 조선 지역으로부터의 철거를 완료하였다.

조중 량국 정부의 이러한 주동적 조치는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긍정적 국면을 열어 놓았다.

전체 조선 인민들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은 조중 량국 정부가 취한 주동적 조치를 적극 지지 환영하면서 미군도 중국 인민 지원군의 모범을 따라 즉시 철거할 것을 강경히 요구하였다.

이 주동적 조치는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분별있는 인사들 속에서도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켰는바 《워싱톤 앤드 타임스 헤랄드》지까지도 《중국이 자기 군대를 철거하였는데 미군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미국은 범죄자로서 규탄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썼다.

그러나 미제 침략군은 전 세계 인민들의 일치한 지지를 받은 조중측의 이 주동적 조치도 거부하고 계속 남조선의 영구 강점을 획책하고 있다. 미제 침략군은 마치 미국의 국경을 지키는 것처럼 군사 분계선을 총칼로 가로 막고 있으며 남조선의 영구 강점을 획책하는 일방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파괴 유린하면서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며 원자포를 비롯한 각종 대형 살륙 무기를 비법적으로 반입하여 남조선을 미군의 원자 기지로 전변시키고 있다.

미제는 리 승만 도당을 사촉하여 정전 후에만 하여도 괴뢰군을 16개 사단으로부터 31개 사단으로 확장하였으며 괴뢰군의 쎄이버 제트기 수를 정전 직후에 비하여 2배로 증가시키고 이 방대한 무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괴뢰 정부 예산의 70% 이상과 그들이 남조선에 주는 《원조》의 75%를 군사비로 지출케 하고 있다.

이리하여 그들은 조선에서의 긴장 상태를 더욱 격화시킬 목적으로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 대규모적 원자 기동 훈련을 계속 감행하고 있으며 군사 분계선에서 계통적으로 도발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감행되고 있는 미제 침략자들의 이러한 전쟁 소동은 조선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계속 엄중히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극동과 세계 평화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 행위로 된다. 이러한 화근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조선에서의 평화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보장될 수 없다.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으로부터의 철거——이것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선결 조건이다. 만일 미제 침략자들이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횡포 무도하게 무장 간섭을 감행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나라는 벌써 일찌기 통일되였을 것이며 인공적으로 량단된 우리 인민의 민족적 불행과 남반부 인민들의 고통은 이미 오래 전에 종식되였을 것이며 전체 조선 인민은 륭성 발전하고 번영하는 통일된 조국에서 오늘 북반부 인민들이 그러한 것처럼 보람찬 새 생활을 하게 되였을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의 평화의 유지 공고화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또한 극동과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켜야 한다.

* *

오늘 미제는 어떠한 구실로써도 자기 군대의 남조선 강점을 정당화할 수 없다. 중국 인민 지원군이 이미 조선으로부터 철거한 오늘날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에 계속 남아있을 하등의 근거가 없다. 미제는 하루 속히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서 철수하고 조선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계속 자기 군대의 남조선 주둔을 고집하고 있다. 그들은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미 그 비법성이 백일하에 폭로된 《유엔 결정》을 들고 나오면서 《군사 력량의 상대적 균형》, 《공산주의 위협》 등 허무 맹랑한 구실을 늘어 놓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구실로써도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합리화할 수 없다.

미군에 의한 남조선 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미국이 유엔의 간판을 들고 나온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이다. 조선에 대한 미군의 침략을 《합법화》한 《유엔 결정》이란 쏘련 대표의 참가없이 5대 강국의 일치 가결의 원칙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사실을 전도하여 침략의 희생자를 《침략자》로, 침략자를 《침략의 제재자》로 규정한 무비의 범죄적 결정이다. 이 추악한 《결정》에 의하여 미제는 유엔 기'발 밑에서 조선에 대한 침략 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유엔은 미국의 조종으로 조선 침략 전쟁의 수치스러운 교전 일방으로 되였으며 오래 전에 이미 조선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자격과 도덕적 권위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조선에서 유엔의 기'발은 곧 미국 강도의 기'발이다. 미제가 또다시 유엔의 기'발을 들고 나오는 것은 그들이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장기 강점을 계속 정당화함으로써 리 승만 괴뢰 정권의 압혹 통치를 조선 인민에게 강요하며 북반부를 또다시 침공해 보려는 흉계에 불과하다. 이러한 방법은 실로 황당무계할 뿐만 아니라 긴장 상태 완화를 저애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호전적 태도를 더욱 폭로하여 줄 뿐이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자기 조국의 자유와 통일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공산주의 위협》이라고 비방 중상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엔 기'발과 미제의 남조선 강점이 필요하다고 떠벌리고 있다. 자기의 침략 행동과 전쟁 정책을 음폐하려고 시도하는 이 파렴치한 침략자들은 최근에 리 승만 도당을 비롯하여 장 개석, 느고 딘 디엠 도당들과 자기에게 강점 당하고 있는 류큐, 포도아령 마카오 등 기타 일부 지역의 졸개들을 모아 서울에서 소위 《아세아 민족 반공 대회》라는 망칙한 광대 노름을 벌려 놓고 《반공》 소동을 일으켰다. 이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가.

우리 인민은 과거 력사를 통하여 미국 침략자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 민족을 모욕하고 우리 나라를 침략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이미 오래 전에 우리 나라의 재부와 보물을 략탈하기 위하여 악명 높은 샤만호 사건과 분묘 도굴 사건을 도발하였으며 그 후 《조선 원정 함대》를 편성하여 무장 침공을 감행하여 왔다가 우리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격퇴되였다. 이 간악한 원쑤들은 일제의 조선 침략을 방조함으로써 조선의 재부를 략탈하고 조선 인민을 착취하였다.

이렇게 미국 침략자들은 조선에 발을 들여 놓은 첫날부터 조선 인민의 원쑤로 나타났으며 그 후손들인 미제 침략군은 남조선에 기여 올라 온 그 때로부터 조선 인민의 민족적 독립과 자유와 사회적 진보를 방해하는 불구 대천의 원쑤로 등장하였다.

조선 인민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있는 미제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은 침략자들이 떠드는 《공산주의 위협》인 것이 아니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며 극동의 평화와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이다.

* *

력사는 항상 준엄한 현실로 어리석은 자들을 경고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하여 더욱 어리석다.

만일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자기 군대의 강점을 계속 고집한다면 침략자로서의 면모를 전 세계에 더욱 드러내 놓을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고립된 자기의 처지를 더욱더 고립의 상태에로 몰아 넣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군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침략 행위를 더욱더 야수적으로 감행한다면 그들의 멸망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이것은 력사의 변증법이다.

오늘 국제 국내적 사태 발전의 추세는 미제 침략자들을 더는 남조선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궁지에 몰아 넣고 있다.

사회주의와 평화 력량은 제국주의 전쟁 세력보다 비할 바 없이 강대하며 그것은 국제 정세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되고 있다.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불패의 통일 단결과 경제의 전반적인 앙양, 쏘련에서의 인공 지구 위성과 우주 로케트의 성과적 발사를 비롯한 과학 기술의 고도의 발전, 평화 력량의 급속한 장성 등 이 모든 것은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불안과 공포를 주고 있다. 이와 반면에 미 제국주의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력량은 더욱더 약화되여 가고 있으며 그들의 전쟁 도발 정책은 날로 파산되여 가고 있다.

미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는 한마음으로 뭉쳐진 조선 인민의 력량은 동족 상쟁을 재발시키려는 국내 반동들의 힘보다 비할 바 없이 강대하다.

우리 인민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고 있으며 우리 국가 사회 제도는 더욱 공고화되였다. 사회주의의 결정적 승리와 함께 로농 동맹에 기초한 광범한 인민 대중의 정치 정신적 통일 단결은 새로운 토대 우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거대한 성과와 우리 공화국의 위력 장성은 조선에서 원쑤들의 어떠한 도발 행위도 능히 제압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모든 사태 발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북반부에서 달성한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거대한 성과와 우리 당의 조국 통일 방안에 고무되여 오늘 남반부 인민들은 자기들이 처하고 있는 심각한 파국으로부터의 출로를 미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반미 반리 승만 투쟁에서 찾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고 있으며 또 경제적 혼란과 지배층 내부에서의 모순의 격화로 말미암아 정치적 위기가 극도에 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인민의 평화적 통일 위업을 촉진시키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 침략자들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는 전체 조선 인민들의 단결된 력량은 무너져 가는 미제 식민지 통치 지반을 진감하고 있다. 미제 침략 군대는 우리 강토에서 더는 배겨낼 수 없는 궁지에 빠지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현재 빠지고 있는 궁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끝장이 나기 전에 미제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이 보따리를 싸고 남조선으로부터 즉시 철거하는 그것이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 이것은 자기 조국의 통일 독립을 념원하는 전체 조선 인민과 그에게 적극적인 지지 성원을 보내는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이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내리는 준엄한 경고이다.

부단 혁명의 사상으로 무장하자

홍 윤 백

오늘 우리 당은 근로자들을 부단 혁명의 사상으로, 부단히 전진하고 계속 혁신하는 혁명적 사상으로 교양할 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우리 나라 근로 대중에 의하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단한 혁신과 기적들, 날로 더욱 앙양되는 그들의 창조적 적극성은 우리 당이 시종 일관 견지하여 왔으며 특히 현 시기에 와서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부단 혁명의 사상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 오늘 부단 혁명의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면서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천리마로 내달리는 우리 근로자들을 가로막을 힘은 없다.

이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는 것은 부단한 혁신과 부단한 전진을 계속 견지하며 모든 분야에서의 발전 템포를 더욱더 촉진하는 강력한 공간으로 된다.

부단 혁명의 사상은 맑스—레닌주의에 고 유 한 사 상 이 다

부단 혁명, 부단한 전진——이는 프로레타리아트에 의한 혁명 투쟁 발전의 합법칙성이다. 부단 혁명에 대한 사상은 맑스주의 사상의 한 부분으로서 일찌기 맑스주의 창시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였다.

1850년 3월에 《공산주의자 동맹에 보내는 중앙 위원회의 호소문》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 과정에서 소부르죠아 민주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소부르죠아적 요구를 실현하는 것으로써 혁명을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종식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을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과업은 모든 대 소의 유산 계급들이 지배권으로부터 배제될 때까지, 프로레타리아트가 국가 권력을 쟁취할 때까지, 프로레타리아의 련합이 1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배적 국가들에서 충분히 발전하여 그 결과…적어도 결정적인 생산력이 프로레타리아트의 수중으로 집중되게 될 때까지 혁명을 계속적인 것으로 함에 있는 것이다》 (맑스, 엥겔스 저작 선집, Ⅰ(1),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171페지).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새로운 력사적 시기에 들어 와서 맑스와 엥겔스의 부단 혁명에 관한 사상은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전화 발전에 관한 레닌의 리론에서 더욱 구체화되였고 가일층 발전되였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에 의하여 전개된 부단 혁명의 사상은 오늘 사회주의가 세계적 체계로 전환된 새로운 력사적 조건에서 각국 공산당, 로동당들에 의하여 가일층 발전 풍부화되고 있다.

맑스, 엥겔스, 레닌의 생존 시기에 있어서 부단 혁명의 문제는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에서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계속 이행에 관한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사회주의가 전 세계적 체계로 전환되였고 여러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 부단 혁명의 문제는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에 대한 실천적 문제로까지 발전되였다.

부단 혁명은 혁명 투쟁 발전에 대한 로동 계급의 필수적 요구이다.

그것은 로동 계급의 계급적 본성과 그리고 그들의 해방 투쟁의 성격 자체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다.

로동 계급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를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할 것을 지향하며 비단 자기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승리할 때까지 계속 부단히 투쟁할 것을 지향한다.

그러나 부단 혁명의 사상은 프로레타리아트의 주관적 의지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 발전, 혁명 발전의 객관적 법칙에 기초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 발전 법칙, 혁명 발전의 법칙에 상관없이 인간들이 제마음대로 혁명을 계속하며 빨리 나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와 반대로 부단 혁명의 사상은 혁명 발전의 객관적 법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실현을 최대 한도로 앞당기자는 데 있다.

맑스주의 철학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모든 사물과 현상은 그 자체에 호상 대립되는 모순된 측면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 모순의 투쟁과 해결로써 그 사물과 현상은 발전한다. 그리하여 하나의 모순이 해결되면 다른 새로운 모순이 발생되고 이 새로운 모순이 해결되면 또 새로운 모순이 발생된다. 이리하여 사물과 현상의 부단한 변화 발전 과정은 모순의 부단한 투쟁과 해결의 과정이다.

사회의 발전, 혁명의 발전도 바로 그러하다. 하나의 혁명 단계의 종결은 새로운 혁명 단계의 시작으로 되며 그것은 또 다음의 새로운 혁명 단계를 준비한다. 때문에 일정한 사회 발전 단계에서 나타난 사회적 모순의 혁명적 해결이 빠르며 다음의 모순 해결에로 넘어 가는 것이 련속적으로 되면 될수록 사회 발전, 혁명 발전은 그만큼 급속하게 될 것이다. 부단 혁명은 비단 하나의 혁명 단계에서 보다 높은 다음 단계에로 계속 이행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한 개 혁명 단계 내부에 있어서도 하나의 모순, 하나의 과업 해결로부터 다음의 모순, 다음의 과업 해결에로 빨리 넘어 가며 또 하나의 모순 해결을 위한 투쟁 과정, 량적 축적의 과정을 최대한으로 단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부단 혁명은 모든 사물과 현상의 발전,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의 반영이며 프로레타리아트에 의한 그의 의식적인 리용이다.

과거 계급 사회에 있어서도 객관적 사물 발전, 사회 발전의 이러한 법칙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착취 계급들은 정권을 장악하고 자기들의 사회 경제적 토대를 공고히 한 다음에는 례외없이 객관 세계의 운동 법칙을 거역하고 현존 상태를 유지하며 자기들의 지배를 영구화하려는 반동적 립장으로 넘어 갔다. 이리하여 사회 발전을 지연시켰다.

오직 로동 계급만이 사회 발전의 객관적 법칙에 부합되게 부단 혁명의 립장을 견지할 수 있는바 이것은 그들의 계급적 리해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로동 계급과 그의 당들은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 발전의 법칙과 모든 가능성을 리용하여 조건을 조성하면서 목적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중임없이 전진, 혁신을 도모하며 혁명을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에 객관적 합법칙성과 로동 계급의 주관적 의지와의 통일이 있다.

로동 계급의 부단 혁명 사상은 뜨로쯔끼 도당의 《영구 혁명론》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뜨로쯔끼는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가능성을 믿지 않고 로씨야 혁명이 승리하려면 구라파에서 혁명이 계속 전개되여 그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맑스, 엥겔스의 부단 혁명의 사상을 외곡하였다. 그는 로농 동맹의 가능성을 거부하고 프로레타리아가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부단 혁명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부단 혁명의 사상은 우리 혁명에서 구현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를 위시한 우리 나라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해방 전 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 혁명을 추진시킴에 있어서 부단 혁명의 사상에 철저히 의거하였다.

일찌기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에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작성된 조국 광복회 강령은 우리 나라에서의 반제 반봉건 혁명 과업을 규정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최저 강령이였다. 그러나 이 강령에는 공산주의자들의 최고 강령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 전제로 되고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면서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장차 우리 나라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로운 사회——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을 최고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항일 빨찌산들의 사업과 전통을 이은 우리 당은 8. 15 해방 후 김 일성 동지의 지도하에,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전화 발전에 관한 레닌적 리론을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북반부에서 반제 반봉건적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행정에서 이미 사회주의에로의 계속 이행을 위한 일부 전제 조건들을 창설하였으며 반제 반봉건 혁명 과업을 수행한 다음에는 계속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로 넘어 갔다.

여기서 우리 당은 한편, 혁명의 민주주의적 단계를 부인하는 최 창익과 《장안파》 종파 분자들의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좌경적 기회주의적 구호를 반대하여 싸웠으며 다른 한편, 부르죠아 공화국을 수립하고 이를 미제의 예속하에 넘기려 한 박 헌영, 리 승엽 도당의 반동적 주장도 반대하여 싸웠다.

조선 로동당은 창건 첫날부터 혁명의 소여 단계에 적응한 과업과 전략 전술을 내세우면서 해당 단계에서의 투쟁을 앞으로의 새로운 투쟁 단계를 위한 준비와 유기적으로 결합시켰다.

례컨대 우리 당은 토지 개혁을 철저히 실시하면서 토지의 판매와 저당을 제한 또는 금지하며 부농적 요소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농촌에서의 자본주의적 요소의 발전을 제한하였다.

토지 개혁 이후 우리 당이 일찍부터 앞으로의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촉진하며 용이하게 하기 위한 대책들로서 소비 조합, 농민 은행, 농기계 임경소, 국영 농목장 등을 창설 운영케 한 사실들은 주지하는 바이다.

우리 당은 또한 남반부에서 반제 반봉건 혁명의 과업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조건하에서도 북반부에서 반제 반봉건적 과업을 완수한 후에는 계속하여 사회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의 길에 들어 섰다.

매개 혁명 과업들의 완수를 최대한으로 앞당기며 새로운 과업, 새로운 발전 단계에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 당의 대책과 인민 대중의 투쟁은 전후 시기 특히 1956년 12월 전원 회의 이후 최근 시기에 있어서 더욱더 명백히 볼 수 있다.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하에 전시의 동원되고 긴장된 태세를 조금도 해이시킴이 없이 전후 복구 건설에로 돌입하였다.

당은 전후 복구 건설 행정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령락된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면서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의 축성을 위하여 공업화의 기초를 닦는 사업에 가능한 최대한의 력량을 돌렸다. 당은 또한편 전후에 조성된 조건들에 대한 과학적 타산에 기초하여 지체없이 농촌 경리의 협동화의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물질—기술적 토대가 없다는 것으로 하여 주저하는 경향을 반대하여 협동화를 정력적으로 추진시켰다. 이리하여 당은 력사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에 농촌 경리 협동화의 세기적인 혁명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는 동시에 그 성과에 의거하면서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도 거의 동시적으로 완수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당과 인민은 인민 경제를 복구하며 우리의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구축하며 생산 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력사적 과업들을 병행시켜 이를 최단 기간에 완수하는 자랑찬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발을 멈추지 않았다. 당은 계속 력사적인 제 1차 5개년 계획의 과업 수행에로 근로 대중을 동원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한 조건하에서 그의 물질—생산적 토대를 확고히 축성하며 우리 나라를 공업—농업국으로 전변시키며 우리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당의 의지로 무장된 우리 인민은 12월 전원 회의 이후 이 모든 과업들을 상상하기 힘든 빠른 속도로써 해결하였으며 또 해결하고 있다. 당은 이 행정에서도 12월 전원 회의에 이어 1958년 6월 전원 회의, 9월 전원 회의, 최근의 2월 전원 회의들에서 계속 부절히 성숙된 새로운 과업들을 제기함으로써 대중을 새로운 앙양과 승리에로 불렀다.

당은 우리 인민의 천리마 행진에서의 류례 드문 앙양과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를 발전된 공업국으로 전변시키며 공산주의의 문어구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려 세우기 위한 강령적인 전망 과업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 주었다. 당은 또한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붉은 편지로써 혁명의 고조를 한 계단 더 높이며 제 1차 5개년 계획의 완수를 2년 이상 앞당길 것을 호소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킬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리하여 대중이 당의 정책과 의지를 파악하자 그것은 물질적 힘으로 전변되여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단축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당의 령도하에 우리 인민의 혁명 투쟁은 부단 혁명의 행정으로, 혁신과 전진의 계속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서 만족할 수 없다.

당과 혁명은 계속 근로자들을 부단한 혁신, 부단한 전진에로 부른다

우리는 부단히 혁신하고 전진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그 성과는 거대하며 그 승리는 빛난다. 그러나 그 어떤 승리와 성과도 우리에게 자만 자족을 허용하지 않는다. 당은 우리들을 부단히 계속 혁신, 계속 전진에로 부르고 있으며 우리 근로자들이 부단 혁명의 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우리를 앞에는 달성한 성과보다도 더 크고 숭고한 과업들이 남아있다.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고 공산주의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기술 혁명을 완수하며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뒤떨어져 있다. 반 세기에 걸친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형편없이 락후했던 우리 나라를 그처럼 단시일 내에 발전된 사회주의적 공업국으로 전변시키며 계속 인류의 최고 리상인 공산주의에로 끌어

올린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를 계속 견지하여야 하며 천리마의 말고삐를 더욱더 튼튼히 틀어 잡으며 앙양된 혁명적 열정을 더욱더 제고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오늘 공화국 남반부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날로 부패, 몰락의 구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남반부 인민들의 생활은 더는 참을 수 없는 처지에 빠지고 있다. 그러나 미제 강점자들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하여서는 꿈도 꾸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긴장 상태를 조성하며 정전을 파괴하려는 책동을 강화하며 《반공》, 《북진》의 소동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북반부 민주 기지에서 계속 혁신, 부단한 전진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은 계속 부단한 전진을 요구한다…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한다고 해서 그것으로써 우리의 과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조국 통일의 임무가 남아있으며 통일 후에는 또 남조선에서 토지 개혁, 산업 국유화 등 민주 개혁을 실시할 임무가 있다. 남반부에서 민주 혁명 과업을 실행한 후에는 계속 사회주의 건설로 넘어 가야 할 것이며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한 후에는 또 북반부와 같이 점차 공산주의에로 넘어 가야 할 것이다》(《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국제적 관계에서 볼 때 《형제적 국가 인민들이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공산주의에로 들어 갈 때에는 우리 인민도 뒤떨어지지 말고 그들과 어깨를 같이 하여 공산주의에로 들어 가야 할 것이다》(《공산주의 건설자들의 대회》). 세기적으로 락후했던 우리 나라가 경제 문화적으로 훨씬 앞섰던 형제 나라들과 같이 공산주의에로 들어 가는 것——이것은 우리 인민의 당연한 념원이며 또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의무로도 된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김 일성 동지가 가르친 바와 같이 이를 위해서는 남이 1보를 걸을 때 우리는 100보를 달려야 한다.

이상의 모든 사정 앞에서 우리들이 어찌 안일과 침체를 허용할 수 있으며 잠시라도 속도를 늦출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 부단히 전진해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속도를 견지하는 것——이것은 현 시기 부단 혁명에서의 기본 요구이다.

부단한 혁명, 부단한 전진을 위하여서는 우선 근로자들이 부단 혁명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을 부단 혁명의 사상으로 교양하자면 우선 그들에게 사회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옳게 인식시켜야 한다. 사회 발전 자체가 부단한 변혁과 전진의 련속이라는 것을 파악함으로써만 우리 사업의 정당성, 당 정책의 정당성도 더욱 명백히 리해하고 사회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에 따라 그리고 당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들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반드시 실현되여야 하며 또 실현되고야 만다는 확고한 사상과 신념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근로자들을 혁명 승리를 향하여 계속 돌진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을 부단 혁명,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그리고 당이 내놓고 있는 구체적인 투쟁 과업들과 최종 목적을 명백히 인식시키는 문제이다. 왜냐 하면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들은 우리 나라가 현재 처하고 있는 실정을 명백히 반영하고 있으며 이 실정에 비추어 당면하게 제기되는 과업은 무엇이며 이 과업을 해결함으로써 어떠한 혁명 과업에로 계속 전진하여야 되며 또 그것이 앞으로의 혁명 발전과 어떠한 련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대중이 당의 정책, 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그들은 당이 제기하는 과업 해결을 위해서는 부단한 혁신과 전진이 요구된다는 것을 리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 구체적인 투쟁 과업이 바로 공산주의의 락원을 지향하는 자기들 자신의 념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며 사회 발전의 요구와 합법칙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을 부단 혁명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김 일성 동지를 위시한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 전통으로 교양하는 문제이다. 1930년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부절히 싸워 온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 정신은 부단 혁명 정신의 전형으로 되고 있다. 항일 빨찌산들의 투쟁 모범은 공산주의의 승리, 새 것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굽할 줄 모르는 불요 불굴의 투쟁 정신, 그리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진취적인 혁명 정신으로 교양함으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부단 혁명, 계속 혁신, 계속 전진에로 나아가게 한다.

우리는 항일 빨찌산의 모범을 따라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난관을 극복하는 혁명가의 풍모로 근로자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부단 혁명, 부단한 전진은 가장 간고한 투쟁을 동반한다. 그것은 아무러한 난관과의 투쟁이 없이 실현될 수는 결코 없다.

바로 온갖 난관과 애로를 하나 하나 극복하는 행정 자체가 혁명 과업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며 혁명을 계속 촉진시켜 나가는 행정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 전통에 따라 근로자들을 어떠한 난관과 애로에도 굴함이 없이 도래하는 혁명을 주동성있게 맞이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 문제는 부단 혁명 사상으로 그들을 교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혁신과 전진은 언제나 낡은 것과 락후한 것, 보수주의와 소극성, 침체성을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로동자들을 비롯한 근로 대중의 혁명성과 창조력은 그것이 낡은 것과 보수적인 것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여 자유로이 발동되기만 한다면 무한한 혁신과 전진을 이룩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들 속에 싹트는 온갖 새로운 것, 진보적인 것, 혁명적인 것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특히 대중적 혁신 운동,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광범히 발전시키는 것은 근로자들을 부단 혁명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중요한 실천적 수단으로 된다.

오늘 부단한 혁신, 부단한 전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것은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혁명적 정신이며 혁명적 전개력이다. 사람들이 낡은 사고 방식, 낡은 행동 준칙으로부터 해방되여 대담하게 사고하고 실천하게 된다면 거기서는 무한한 창발성이 흘러 나올 수 있으며 허다한 혁신이 이룩될 수 있다. 때문에 근로자들 속에서 이러한 기풍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들을 부단 혁명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실천에서 부단한 혁신과 전진을 이룩하게 하자면 지도를 근로 대중의 혁명적 열의에 앞세워야 한다. 지도 일'군들 자신이 우선 부단한 전진, 부단한 혁신의 혁명적 정신으로 무장하고 대중의 선두에 서서 그들을 고무 추동하여야 한다. 지도가 대중의 창조적 열의를 따라 가지 못한다면 대중을 부단 혁명의 정신으로 교양할 수 없으며 그들의 부단한 전진과 혁신을 보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일'군들 자신이 당 정책과 혁명 전통의 정신으로 무장하며 사업 방법을 개선하여 대중의 선두에 서서 나아감으로써만 대중을 옳게 교양할 수 있으며 그들의 창조적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켜 부단한 혁신, 부단한 전진을 이룩하게 할 수 있다.

당적 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량강도 당 단체의 투쟁

리 택 근

당 중앙 위원회는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필수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며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 심중한 당적 주목을 돌릴 것을 각급 당 단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당원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은 매개 당원들을 당 중앙 위원회의 의지대로 일치하게 사고하고, 말하고, 숨쉬고, 행동하게 하며 당 정책 관철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 들어가 실천하도록 하며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오직 하나의 붉은 사상으로 결속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기간 량강도 당 위원회는 당원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기 위하여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일체의 그릇된 사상 요소들을 반대하는 사상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으며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하였으며 당 정책 관철을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변천된 새 환경에 적응하게 심화시켰다. 특히 량강도 당 위원회는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 관철을 위한 투쟁을 이러한 사업들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였는바 이것은 곧 량강도 당 단체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주요한 대책으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작년 5월에 량강도를 현지 지도하시고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량강도 당 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그러므로 량강도 당 위원회는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를 계기로 하여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그 투쟁을 통하여 현지 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에로 당 단체와 당원들을 조직 동원하였다.

그러한 결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지난 1년 간의 사업 과정이 잘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앙양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에 의하여 거대한 동원력과 생활력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구현되였으며 또 구현되고 있다.

량강도 당 단체의 경제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과업은 산림 보호 육성이라고 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고무된 도내 인민들은 산림 보호 육성 10개년 전망 계획에 기초하여 조림 식수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도내 인민들은 작년도의 조림 식수 계획을 203%로 초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4만 여 정보에 식수할 계획 밑에 이미(5월 20일 현재) 2만 6,000 여 정보에 식수하였다.

지난 1년 간 농촌 경리 분야에서도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다. 량강도에서 밭 곡식의 왕은 옥수수가 아니라 감자라고 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실천에 일떠선 도내 농민들은 도'적으로 감자 정당 평균 9톤 377키로그람을 생산함으로써 1957년에 비하여 정당 수확고는 136.8%로, 총 수확고는 169.9%로 장성시켰다.

도내 농업 협동 조합들의 공동 축산 토대도 현저히 공고하여졌는바 1957년에 비하여 지난 해에 소는 2배, 돼지는 3.9배, 가금은 18배로 각각 장성하였다. 이 밖에 지하 자원 개발 사업, 지방 산업, 문화 혁명 등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들이 달성되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 량강도는 불과 1년 간의 투쟁에 의하여 식량이 부족되던 지대로부터 식량을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지대로 전변되였다. 뿐만 아니라 도내 농민들에게는 가까운 년간에 호당 알곡으로 3톤, 현금으로 2,500—3,000원(구 화폐로 25만—30만 원)의 분배 몫이 돌아 갈 전망이 확고하여졌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년 동안에 량강도 당 단체는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를 실천하는 행정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을 달성하였는바 이 모든 사실들은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의 정당성과 그의

위대한 생활력을 다시금 확증하여 주고 있으며 도내 당원들과 인민들이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보다 충실하였다는 것과 당원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가 더욱 튼튼히 확립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　　*

도 당 위원회는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를 관철하며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우선 당 일'군들과 간부들로부터 당적 사상 체계에 튼튼히 들어 서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 속에서 사상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당원들과 인민들 속에서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하였으며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조직 지도 사업에 주력하였다.

도 당 위원회는 우선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를 광범히 해석 침투시키는 한편 당 중앙 위원회 지도 그루빠의 지도하에 당 일'군, 그 중에서도 도 당 위원회 기관 일'군들 속에서 사업 검토와 심각한 사상 투쟁을 조직 진행하였다.

사상 투쟁은 그 초점을 당적 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본질적 요구를 관철하는 데 두고 2개월 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서 명확하게 지적된 바와 같이 지난 시기 도 당 위원회의 사업에 존재한 결함은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깊이 연구하고 실생활에 구현하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과 당 대렬의 통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약하게 진행한 사실 그리고 당의 농업 정책 관철에서의 교조주의적 및 형식주의적 사업 방법들이였다. 문제는 이 교시를 지침으로 삼고 결함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파악함과 아울러 그 근원을 똑똑히 밝혀 놓으며 시정 방도를 찾아내는 데 있었다.

그러나 사상 투쟁의 초기에 도 당 위원회의 일부 간부들 속에서는 심중하게 자기를 검토하며 과오의 원인을 진지하게 찾아내려는 혁명적 열성이 부족하였었다. 그들은 지난 시기 도 당 위원회의 사업과 자체 사업들에서 나타난 일련의 결함들이 매우 심각한 것이며 또한 그것은 엄중한 사상적 근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오를 합리화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묘사하려고 하였다. 또한 일부 일'군들은 그것을 일시적인 우연한 과오로 인정하면서 과오의 내'적 요인에 대하여 외면하려는 립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사상 투쟁을 더욱 심각하게 진행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었다. 그러므로 도 당 위원회는 간부들로부터 우선 사상 투쟁의 선두에 나서며 자기 결함에 대하여 솔직하게 비판하고 대담하게 시정하도록 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한편 지난 시기 도 당 위원회가 범한 결함의 구체적 측면들을 하나 하나 제기하면서 그 원인들을 심각히 검토 비판하는 데로 사상 투쟁을 지도하였다.

례하면 무엇 때문에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이룩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배우며 계승하기 위한 정치 사업이 지난 시기 홀시되였거나 소위 《향토사》 연구라는 미명하에 외곡되였는가? 또한 무엇 때문에 량강도에서 과거 항일 투쟁에 참가한 많은 혁명가들과 그 가족들이 핵심 대렬에 인입되지 못하고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당적 관심이 부족하였었는가? 무엇 때문에 1956년 8월 전원 회의 직후 시기에 최 창익, 박 창옥 등 반당 반혁명 종파 도당들에 대한 죄행을 철저히 폭로하지 않았으며 그 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성실하게 조직 전개하지 않고 있었는가? 무엇 때문에 농촌 경리에서 적지 적작에 대한 당적 원칙을 무시하고 감자와 같은 랭한성이 강하고 수확이 높은 작물들이 무시되였으며 소위 다축 농가 운동이라는 구호하에 농업 협동 조합들의 공동 축산 토대가 개인 축산에 비하여 극히 보잘 것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였는가? 등 문제들을 제기하고 심각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였다.

도 당 기관 일'군들의 이런 심각한 사상 투쟁 과정에서 일치하게 폭로 비판된 것은 지난 시기 범한 이상과 같은 결함들이 모두가 도 당 기관 내의 일부 책임 일'군 자신들로부터 당의 의지대로 살며 행동해야 한다는 당적 사상 체계가 바로 서지 못한 데 기인되였다는 그것이다.

도 당 위원회 기관 일부 책임 일'군들부터 우리 당의 혁명 전통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지 않았으며 이를 실생활에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그를 자기 도의 실정에 알맞게 구체화하여 실천할 대신에 기계적으로 내려 먹이거나 자의대로 해석하고 집행하려는 당 정책에 충실하지 못한 현상들이 존재하였었다. 심지어 일부 일'군들 속에서는 가족주의와 아첨이 조성되였으며 일은 잘 연구하지 않고 당세를 부리면서 소위 틀어 쥐고 조이는 식의 관료주의가 조성되였었다.

이리하여 도 당 기관은 일부 경우에 당원들이 자기 의견을 허심하게 제기하며 사업상 지도를 받기 위하여 반갑게 찾아 올 수 있는 곳으로가 아니라 찾아 오기를 무서워하는 곳으로 되여 그 위신까지 일부 손상하는 데 이르렀다.

이 밖에도 사상 투쟁 과정에서는 지난 시기 도 당 기관 내에 사업 체계가 바로 서지 못한 결과 사업에서 허풍치기가 발로되였고 중요한 문제들까지도 위원회의 집체적 토의를 거치지 않고 몇몇 《솜씨있는》 일'군들의 손에 의하여 되는 대로 처리되는 현상들이 오래 동안 지속되여 왔다는 것이 폭로 비판되였다.

도 당 위원회는 이러한 사상 투쟁의 경험을 살리면서 시, 군 당 위원회의 일'군들과 리 당 위원장들 속에서 사상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나아가서 매개 초급 당 단체들에서도 도 당 단체가 범한 결함의 진상과 근원들에서 심중한 교훈을 찾도록 토의를 전개케 하였다.

이와 같이 도, 시, 군 당 기관 일'군들 속에서의 사상 투쟁이 심화된 결과 당 기관 내에 견실한 사상 체계가 서기 시작하였으며 혁명 위업 수행에서와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 위원회들과 당 단체들의 전투적 기능이 점차 제고되기 시작하였다.

도 당 위원회는 이와 같이 당 일'군들 속에서 사상 투쟁을 강화하면서 다른 방면으로는 도급 정권 기관, 경제 기관 및 근로 단체 일'군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있어서 도급 중요 기관 당 단체들에 대한 근 3개월에 걸친 집중 지도 사업이 큰 의의를 가지였다. 지도 과정에서는 도급 기관 일부 일'군들 속에서 나타난 당 정책, 지시에 대한 형식적이며 자유주의적인 태도들이 중심적으로 폭로 비판되였다.

지난 시기 도 인민 위원회 일부 간부들 속에는 당적 지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한 데로부터 당의 결정, 지시들을 심오하게 연구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당의 의도 밖에서 되는 대로 사업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심지어 시, 군 인민 위원회의 일부 일'군들 속에는 당과 인민 위원회의 《동격》을 운운하면서 당적 지도를 시끄럽게 여기는 경향까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농촌 경리 부문 지도 일'군들 속에서도 당의 농업 정책에 대한 자유주의적 태도, 관료주의적 작풍들이 허용되고 있었다. 당 결정에 대한 이러한 자유주의적 태도는 본질에 있어서 혁명 과업에 대한 무관심이며 인민의 리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태도인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정권 기관 일'군들 속에서 혁명의 정치적 수령으로서의 당의 령도적 역할, 당적 지도의 본질과 당 정책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면서 그들이 당적 사상 체계에 들어 서도록 사상 투쟁을 전개한 것은 적절하였다.

이러한 결과 도 인민 위원회 간부들로부터 당 결정을 진지하게 연구하게 되였고 당에 의거하며 초급 당 단체의 통제하에서 자기의 당 생활을 강화하려는 립장에 들어 서게 됨으로써 그들 속에서 사상 투쟁의 분위기가 조성되였다.

이와 같이 도 당 위원회는 당 일'군들과 간부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튼튼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는 한편 당적 사상 체계 확립에서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우리 당의 혁명 전통 교양에 심중한 당적 주목을 돌리였다.

김 일성 동지는 혁명 전통을 살리고 계승 발전시킬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혁명 전통을 살리고 계승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 그런가. 그것은 혁명 전통을 살리고 계승함으로써 선렬들이 과거 혁명 투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신심을 매개 사람들에게 굳게 하여 주며 그들에게 열렬한 애국심과 혁명적 투지를 북돋아 주기 때문이다》(《사회주의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량강도 당 단체들의 기본 과업》,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37페지).

혁명 전통 교양에서 량강도 당 위원회는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피어린 투쟁이 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 당이 있고 사회주의 락원이 있다는 그 뿌리를 똑똑히 인식시키며 그 간고한 투쟁 과정에서 이룩된 항일 빨찌산의 사상 체계, 사업 작풍, 사업 전통에 대한 관점을 똑바로 세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혁명 전통 교양을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 관철을 위한 투쟁과 결부시켜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당 교양망과 강연 선동 체계를 통하여 교양함은 물론 도 일보를 통하여 지난 1년 간에 회상기 95회를 비롯하여 혁명 전적지 소개, 항일 유격 전투 해설 등 239건을 발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읽고 토론하게 하였다. 한편 공장, 기업소, 농업 협동 조합, 학교 등에 조직된 423개소의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실을 중심으로 항일 무장 투쟁에 관한 째

마를 설정하여 발표회, 토론회 등을 광범히 조직하여 이 시기의 투쟁 업적, 사업 작풍 등을 깊이 연구 체득하도록 하였다. 또한 량강도가 처한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혁명 전적지 답사와 혁명 투쟁에 참가한 사람들과의 상봉, 담화 등을 통하여 배우도록 하였다. 지난 해 혁명 전적지 답사 사업에는 25,000 여명의 도내 당원들과 청소년들이 참가하였으며 혁명 투쟁에 참가한 사람들과의 상봉, 담화들이 수 많이 진행되였다. 이것은 매우 생동한 교양으로 되였다.

이러한 교양 사업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산주의의 승리에 대한 확신, 곤난을 극복하고 싸우는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 동지 호상 간의 원칙적 단결과 우애의 정신 등 혁명 전통의 이모 저모들을 깊이 연구하고 배우게 되였으며 실생활에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간부들과 대중 속에서 혁명 전통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게 되였으며 따라서 혁명 투쟁에 참가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존경심이 배양되고 그들과의 당 단체들의 사업에서 본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때까지 당적 시야 밖에 놓여 있던 혁명 투쟁에 참가하였거나 그를 돕던 수 많은 사람들이 새로 발견되였고 지난 해에만도 혁명 투쟁에 참가하였던 60명의 사람들을 중앙 및 도의 당 상설 교육 기관에 보내였고 그들의 많은 자녀들을 해당 교육 기관에 보내였다.

뿐만 아니라 당원들과 인민들은 혁명 전적지인 량강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였으며 혁명 전적지에 사는 영예감과 자부심을 간직하고 부닥치는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자기 향토를 사회주의 락원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한층 더 투쟁하게 되였다. 이에 있어서 김 일성 동지의 다음과 같은 교시는 당원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였다. 《량강도 일대의 산과 들, 나무와 풀들에는 항일 빨찌산과 그를 돕던 인민들의 투쟁 업적이 깃들어 있다. 량강도 내 전체 인민들은 뜻의 깊은 자기 향토를 더욱 사랑하며 그것을 아름답고 행복한 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투쟁함으로써 항일 빨찌산의 훌륭한 혁명 전통을 더욱더 빛나게 하여야 할 것이다》(1958년 5월 10일, 혜산시 환영 군중 대회에서 한 연설).

일례로 혜산 건설 사업소에서는 한때 많은 청년들 특히 일부 고급 기능공들이 안착되지 않고 사업에서 열성을 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혁명 전통 교양 사업이 침투되면서부터 그들은 《혁명 전적지를 사회주의 락원으로 건설하자!》라는 구호하에 핵심 당원들과 민청원들이 《항일 빨찌산 돌격대》를 조직하고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게 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금년 봄에 우리가 조림 부문에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혁명 전적지를 푸른 락원으로 건설할 결의에 충만된 도내 청년들의 애국적인 로력 투쟁의 결과였다.

또한 향토를 사랑하게 된 것은 도내 근로자들 속에서 지난 시기 나타났던 <지대 불평>이 제거된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사실상 지난 시기 이 고장 일부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바에야 기름진 평지 대에 가서 짓자》느니, 또한 일부 로동자들과 사무원들은 교통과 문화 생활이 불편하고 추운 이 지대에서 벗어나 평지대로 갈 것을 은근히 꿈꾼 사실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근로자들 속에서는 혁명 전적지에 사는 영예감과 자부심이 제고되여 자기 향토에 대한 애착심이 더욱 두터워지게 되였다. 뿐만 아니라 감자를 많이 심어 농사가 잘 되고 식량이 유족하여짐에 따라 지금에 와서는 <지대 불평>이 기본적으로 제거되였고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사는 영예를 지니고 자기 앞날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도 당 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사업들과 함께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에서 명시된 과업들을 관철하는 투쟁에 지도 력량을 경주하였는바 이 투쟁은 동시에 일'군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 행정이였다.

사실상 일부 시, 군 인민 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도내 농산 부문 지도 일'군들 및 기술 일'군들은 초기에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원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지난 시기 당 농업 정책 관철에서의 결함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사업 개선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극히 안일하게 행동하면서 지어 농촌 경리 부문에 대한 현지 교시는 1959년에 가서야 실천하려고 하면서 당장에는 아무러한 지도 대책도 세우지 않고 지내려고 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의연히 감자 농사를 홀시하면서 감자, 아마, 호뿌를 위주로 하여 작물 배치 계획을 기동성있게 재포치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도 당 위원회는 이러한 편향을 제때에 포착하고 5월 중순에 도 당 집행 위원회에서 상술한 결함들을 비판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당의 농업 정책 관철을 위한 해석 선전 사업을 광범히 하였으며 행정 기관들에 대한 지도 통제 사업을 더욱 강화하였다. 결과 파종이 끝날 무렵인 불과 10 여일 동안에 감자 면적은 년초 계획보다 10.2%, 아마는 9.2%가 각각 확장되게 되였다.

이와 함께 도 당 위원회는 축산업 발전 문제에도 심중한 당적 주목을 돌리였다. 초기에 일부 축산 부문 일'군들 속에서는 가까운 년간에 양 10만 두를 보유하라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주저하는 기색이 나타났으며 사료 확보 대책도 강구하지 않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사상이 의연히 지속되고 있었다. 지어 일부 일'군들은 양 2년 3산을 보장하려는 선진 농민들의 창발적 제의까지를 《기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묵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런 실정하에서 작년 7월에 있은 도 당 위원회 전원 회의를 통하여 일부 일'군들의 보수주의와 사상적 동요를 극복하고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에서 제시된 농촌 경리 분야의 기본 과업들을 성과있게 전반적으로 추진시키였다.

이와 함께 도 당 위원회는 선진적인 농업 협동 조합들과 선진 농민들 속에서 창조된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례를 들면 자급 비료 생산을 위한 돌격대 운동이 벌러진 보천군 압록강 농업 협동 조합의 선진 경험과 면양의 2년 3산을 위한 삼수군 관평 농업 협동 조합의 경험들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은 매우 경험적이였다.

특히 이러한 사업은 일부 농산 지도 일'군들 속에서 나타난 안일성과 일부 기술 일'군들을 사로잡은 보수주의를 퇴치함에 있어서 좋은 약으로 되였다.

도 당 위원회는 당의 농업 정책 관철에서 지도 일'군들 뿐만 아니라 농민들 속에서 나타난 편향도 꾸준히 설복하고 교양하여 극복하였다. 감자를 많이 심을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실천하는 과정에 일부 농민들 중에서는 《감자만 먹고 어떻게 살겠는가》고 하면서 의연히 벼 혹은 조 등을 심으려는 경향들이 나타났다. 도 당 위원회는 량강도의 지질, 지대적 특성으로부터 감자가 다수확 작물이라는 것을 깊이 침투시켰으며 식생활에서 감자의 유리성을 광범히 해설하였다. 그와 함께 감자와 입쌀을 교환할 데 대한 당과 정부의 두터운 배려를 깊이 침투시킴으로써 이러한 편향은 신속히 극복될 수 있었다. 또한 감자의 다수확을 위하여 농민들 속에 아직 남아 있는 화전식 농법을 반대하는 투쟁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금년에는 벌써 정당 50—100톤의 자급 비료를 시비하기 위한 투쟁이 광범히 전개되게 되였다.

도 당 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시킴과 함께 농촌 경리의 각 부문별로 되는 총화 사업들을 수시로 진행하였으며 농산 지도에서 정권 기관 일'군들의 관료주의, 형식주의적 사업 작풍을 퇴치하며 그들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당적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촌 경리 부문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 과정에서 도 당 위원회가 심중하게 체험한 것은 매 사업의 중심 고리를 항상 민감하고 명확하게 틀어 쥐고 그를 일'군들 속에서의 당적 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키는 것이 사업 성과의 중요 담보로 된다는 그것이다.

*　　　*

지난 1년 간 량강도 당 위원회는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에 립각하여 당원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진지하게 조직 진행하였다.

도 당 위원회는 이 투쟁 행정에서 심중한 교훈을 찾게 되였다.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반복적이고 실속있는 사상 교양 사업과 함께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일체의 그릇된 사상 경향들과의 원칙적인 투쟁이 밀접히 결합되여야 한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특히 도 당 위원회는 매 시기에 제기되는 당 정책과 결정 지시들을 무조건 관철하는 투쟁이 곧 당적 사상 체계를 튼튼히 확립하는 담보로 된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량강도 당 위원회는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 관철을 위한 투쟁을 선차적인 임무로 제기하고 도 당 단체의 모든 조직 정치 사업을 이에 복종시켰으며 당원들 속에서의 혁명 전통 교양 사업과 간부들 속에서의 사상 투쟁도 이와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결과 량강도 당 단체에서는 당원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가 더욱 튼튼히 확립되게 되였으며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 실천을 위한 투쟁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그러나 량강도 당 단체의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는 아직도 적지 않은 결함들이 있다.

당의 혁명 전통 교양 사업은 아직도 실생활과 결부되여 심각한 사상적 깊이를 가지고 목적 의식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들 속에서의 공산주의 교양 사업은 적지 않은 경우에 의연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매개 당 일'군들의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며 사업 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도 아직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며 경제 건설 분야에서 축산 부문과 지방 산업 부문도 약한 고리로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 당 위원회는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얼마 전에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 실천을 위한 투쟁을 강력히 추진시키기 위한 문제를 다시 토의하였다. 즉 도내의 모든 당 단체들에서 현지 교시를 재학습하는 기초 우에서 교시 실행 정형을 토의하게 하였으며 시, 군 당 위원회들과 도 당 위원회에서 그를 총화하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게 하였다. 특히 당 단체들에서는 이 사업을 1958년 3월 7일, 금년 2월 전원 회의 결론 및 2월 21일과 2월 26일에 있은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실천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당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 잡기 위한 문제를 심중히 토의하고 있다.

사실상 도 당 및 시, 군 당 위원회들의 사업에는 형식주의의 틀이 계속 존속되고 있으며 당세를 부리는 경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형식주의, 관료주의는 곧 적지 않은 당 일'군들이 아직도 당적 사상 체계에 들어 서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때문에 이 투쟁은 계속 심화되여야 한다.

금후 량강도 당 단체는 매 시기에 제기되는 당 정책을 관철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당원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함으로써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하여 모든 혁명 과업들을 성과있게 수행할 것이다.

혁명 전통 연구를 위한 자료

항일 유격대의 인민적 사업 작풍과 군중 공작 방법

한 광 학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이 일대 고조기에 처하고 있는 오늘 당과 김 일성 동지는 특히 당 사업 방법과 작풍을 결정적으로 개선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당 내부 사업에서와 각 계층들과의 사업 그리고 반혁명파의 투쟁, 반종파 투쟁 및 반보수주의 투쟁 등에서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킬 데 대하여 교시하면서 당 일'군들의 사업 작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당 일'군들은 당원 대중을 항상 사랑해 주고 가르쳐 주는 어머니가 되고 사업의 선두에 서는 기수가 되여야 한다》(《당 중앙 위원회 1959년 2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결론》).

당 일'군들이 사업에서는 기수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머니가 되는 작풍은 우리 당 사업 작풍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며 그것은 항일 유격대의 작풍의 직접적 계승 발전이다.

항일 유격대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적 리론과 방법에 확고히 립각한 혁명 투사들의 선진 부대였으며 맑스—레닌주의적 전략 전술에 기초한 진정한 인민적인 혁명 군대였다. 항일 유격대는 그가 진정으로 맑스—레닌주의에 충실한 혁명 군대였으며 인민 속에서 나와 오직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조직된 인민의 무장력이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민과 같이 살고 지주, 자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근로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들과 같이 싸우는 그러한 투쟁 정신의 전통》(김 일성)을 수립하였다.

항일 유격대의 군중 관점은 가장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적 관점이며 그의 사업 작풍은 가장 인민적인 작풍이다.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빨찌산은 인민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항일 유격대의 철칙에는 유격대의 군중 관점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여 있다.

여기에는 인민 대중은 자신을 해방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 대중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된 항일 유격대는 오직 인민 대중에게 의거하고 물과 고기와의 관계처럼 인민 대중과 혼연 일체가 됨으로써만 불패의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철 같은 신념으로 믿는 관점, 철두철미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며 성심 성의 인민에게 복무하는 관점이 포괄되여 있다.

* *

항일 유격대는 15개 여 성상에 걸친 장구한 투쟁 행정에서 고상한 인민적 사업 작풍의 전통을 이루어 놓았으며 비상히 풍부한 군중 공작 경험을 축적하였는바 이것은 항일 유격대가 광범한 인민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으며 그들의 적극적인 지원 밑에 일제를 성과있게 격파할 수 있은 가장 주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항일 유격대의 고상한 인민적 사업 작풍에서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그들이 인민을 대함에 있어서 항상 성실하고 충직하고 겸손하였으며 지방의 례절과 풍습을 존중히 하면서 인민의 리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으며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중을 교양하고 설복한 거기에 있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일제하에서 가장 고통 받고 천대 받던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였다는 리유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유격대 내에서의 장기간의 투쟁과 생활을 통하여 배양된 고상한 풍모로 하여 대중 앞에서 자기를 별다른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지 않았으며 대중 앞에서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며 허심하였다.

그들은 로동자와 만났을 때에는 로동자로 되며 농민과 만났을 때에는 농민이 되여 그들과 같이 자고

먹으며 그들과 같이 성실하게 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은 유격대원들을 자기의 친 자식과 같이, 친 형제와 같이 생각하였다.

《참 우리 집 아들보다 일을 더 잘하니 당신들은 싸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일도 잘하는구만!》 하는 이것은 유격대와 처음 지내 보았을 때 한 중국 할머니가 경탄하여 한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중국의 한 할머니의 말만은 아니다.

북만 원정시에 중국 인민들이 유격대를 극진히 환대하면서 김 일성 동지에게 특별히 좋은 음식을 대접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들이 김 일성 동지에게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십니까?》고 물었을 때 김 일성 동지는 《여러 분이 잘 자시는 음식과 꼭같습니다》라고 대답하시었다. 이에 인민들은 크게 감격하였다.

유격대원들은 항상 대중 앞에서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대중을 충직하게 도와 주었다. 그들은 대중 속에서 항상 자기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성심 성의로 인민의 편의를 도모할 줄 알았으며 군중 규률과 례절과 존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가는 곳마다에서 그 지방 풍습을 존중하였다.

중국 사람을 대할 때에는 항상 《따예》(할아버지), 《따냥》(할머니), 《따거》(형님), 《따소》(아주머니) 등의 존칭을 썼으며 애써 그 지방의 풍습을 배워 가지고 항상 례절을 지켰고 일일이 그들을 찾아 다니면서 항일 사상을 고취하군 하였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또한 대중에 대하여 항상 어머니와 같은 사랑과 따뜻한 심정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교양하였다.

유격대원들은 어머니와 같은 사랑과 인자하고 자애로운 심정으로 부하들과 인민들을 교양하여야 하며 어머니와 같이 세심하게 사람들을 돌보고 어머니와 같은 엄격성으로 잘못을 고쳐 주어야 한다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지침으로 삼았다.

김 일성 동지는 항상 정치 일'군들과 부하들에게 이러한 작풍을 소유할 것을 다음과 같은 요지로 한두 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동무들이 생각해 보라. 어머니는 같은 피'줄을 타고난 자식들이라도 맏아들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막내아들에게 하는 말이 다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을 옳게 키워 낼 수 없다.

동무들이 생각해 보라. 어머니가 자식을 꾸짖을 때 얼마나 랭정한가를. 그것이 남의 자식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귀하고 사랑스러운 제자식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까지도 그토록 아프게 꾸짖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좋다는 것이며 그 사랑이 대해보다도 깊고 태산보다도 높다는 것이다. 이 고귀한 사랑의 정신을 우리 일'군들은 소유하여야 한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동지를 비판할 때 머리를 숙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항일 유격대는 김 일성 동지의 이 고귀한 정신을 체현하였으며 김 일성 동지의 이러한 작풍을 거울로 하여 사람들을 어머니와 같은 사랑과 심정으로 교양하고 깨우쳐 주었으며 어머니와 같은 세심한 태도로 그의 뒤를 보살피고 어머니와 같은 안타까움으로 잘못을 타이르고 고쳐 주었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대중이 모른다고 비난하지 않았으며 대중이 오해하였다고 욕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머니가 자식을 설복하듯이 깨우쳐 주며 오해를 설복과 교양으로 고쳐 주군 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유격대의 지도자들은 자기 부하들에 대하여서는 항상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슨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민감하게 알아 가지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군 하였다.

어느 누구가 후방 병원에서 대오로 돌아 올 날을 안타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는 격려의 편지를 보내 주었으며, 어느 누구가 재봉대에서 전투 부대에 넘겨 주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아 가지고는 《적의 심장에 칼을 꽂는 일과 꼭 마찬가지로 일해야 한다》고 타일러 주었으며, 어느 누구가 고향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는 조국과 고향에 대한 사랑과 원쑤에 대한 증오심을 실감있게 주입시켜 주었으며, 누구가 자기의 병과 과도한 피로를 감추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는 휴식을 명령하군 하였다.

유격대원들은 군중 앞에서 연설할 때에도, 군중 앞에서 문화 공작을 할 때에도, 인민들과 상봉할 때에도 그들의 거동과 목소리와 표정에 세심하게 주의를 돌리면서 그들의 절박한 요구와 기쁨과 아픈 점을 발견하군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항일 유격대원들의 인민에 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같이 따뜻하고 적도의 태양과도 같이 열렬하다고 하는 것이다.

항일 유격대의 사업 작풍에서 중요한 특성의 또 하나는 인민 대중에게서 배우는 그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항일 유격대원들에게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우리가 인민을 가르친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민에게서 항상 배워야 한다. 자기 자신이 배운 것을 인민에게서 검열을 받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진실성과 책임성이 있고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인민의 심정을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을 무엇이나 다 잘 할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에게 옷과 밥을 주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마움과 로동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모르며 사회는 누구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모르게 된다. 이것을 모르고는 인민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될 수 있다.

이 말씀 가운데는 대중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허심하게 대중의 학생이 되여야 한다는 사상이 일관되여 있다.

지도 일'군들은 한 측면에서 즉 우로부터만 사물과 사건들을 보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시야는 어느 정도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대중은 다만 밑으로부터만 사물과 사건들을 보고 있어 그들의 시야도 제한되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지도를 보장하며 사물과 사건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경험을 대중의 경험으로써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중에게서 배운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들의 생산 활동을 비롯한 온갖 실천 활동과 경험에서 배우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인민 대중에게서 배울 줄 아는 작풍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인민의 충복으로서 인민에게 복무하며 대중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항일 유격대원들은 충분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 및 예견성을 가진 대중의 선구자가 되여야만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항일 유격대원들은 먼저 배우는 데 힘썼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열심히 학습하고 연구하였으며 쏘련과 중국 혁명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선 대중의 말과 행동 등에서, 대중의 실제 활동과 숙망에서 배움으로써 대중을 옳게 리해하였고 그의 경험으로 자기의 경험을 보충함으로써 인민 대중을 지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였다.

부하와 대중에 대하여 이신 작칙(以身作則)하는 작풍은 항일 유격대의 사업 작풍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이신 작칙한다는 것은 사업과 전투에서는 헌신성과 희생성의 모범을 보이며 명령과 규률 앞에서는 솔선 수범하며 사생활에서는 검박하고 겸손한 데 모범이 되며 이러한 모범으로 부하와 대중을 가르쳐 목적 달성에로 이끌고 나아가는 항일 유격대의 전통적인 사업 작풍을 말하는 것이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동지들과 대중 속에서 근심을 남보다 먼저하고 고생은 그들보다 더 많이, 더 먼저 겪으려 하지만 좋은 일은 남보다 뒤에 보며 전투에서는 희생성과 용감성으로 앞장에 서며 상부와 동지의 위험은 자기의 몸으로써 막는 정신으로 살며 행동하였다.

그들은 자기의 편의와 리익 때문에 남에게나 대중에게 불편과 해를 주지 않았으며 언제나 남과 인민을 먼저 생각하여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힘껏 도와 주었으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결코 남에게 맡기지 않았다. 그들은 전투와 사업에서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았으며 전투와 사업에서 공로가 있었다면 칭찬은 동지에게 하고 만일 실책이 있었다면 결함을 자기에게서부터 찾아냈다.

이렇게 대중 속에서 솔선 수범하는 것으로 대중을 교양하며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사업을 앞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 항일 유격대의 유명한 이신 작칙하는 사업 작풍이다.

항일 유격대의 이신 작칙하는 사업 작풍이 계승 발전된 것이 《대중의 선두에 서는 기수》(김 일성)가 된다는 것이다.

인민의 생명 재산을 아끼며 철저히 보호하는 것은 항일 유격대의 사업 작풍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적의 2중, 3중의 포위 공격 속에서 자기의 정권과 후방이 없이 15개 여 성상의 장구한 기간을 통하여 강대한 적과 매일과 같이 싸웠던만큼 없는 것과 부족한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때로는 한 달 이상 또는 몇 달씩 초식 생활을 하거나 때로는 며칠씩 굶으면서 적과 싸우거나 때로는 령하 40도를 넘는 엄동 설한에 눈 우에서 지내게 되는 때도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어떠한 곤난과 생명의 위험에 부닥칠 때에도 그들은 결코 인민의 재산에 털끝만치도 손을 대지 않았으며 자기의 투쟁과 희생으로 인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항일 유격대의 고상한 인민적 사명과 혁명적 군중 관점에 기초한 고도의 자각성과 의식성은 그를 보장하여 주었다.

항일 유격대의 군중 규률에는 인민들을 자기의 육친처럼 사랑하며 존경하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인민들의 한 알의 식량, 한 오리의 실이라도 귀중히 보호하고 인민의 리익을 털끝만치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규정되여 있는바 이것은 항일 유격대의 신성한 의무로 되여 있었다.

항일 유격대는 적을 섬멸함에 있어서 자기에게 아무리 유리한 지형이라 할지라도 인민의 재산과 생명

에 피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곳을 전장으로 택하지 않았으며 곤난이 있더라도 인민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미치지 않을 지점에 적을 유인하여다가 전투를 진행하군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유격대는 모든 희생을 무릅쓰면서도 적들의 침습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 힘썼다.

일례로서 1933년 봄, 화룡현 어랑촌 유격 근거지에서 있은 사실을 들 수 있다.

화룡현 어랑촌 유격 근거지에 침입한 300 여 명의 적들을 견제하면서 근거지 내 주민들을 안전 지대에로 피신케 할 임무가 태평 소대장 이하 열두 명의 유격대원들에게 부과되였다. 태평 소대장은 시간을 쟁취하여 인민들의 피신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적을 고지에로 유인하여다 놓고 《인민들이 뒤'산을 넘을 때까지 우리는 한 놈의 적도 인민들의 뒤를 쫓게 해서는 안 되오. 최후에 누가 남든지 적들을 섬멸하여야 하오. 당의 이름으로 인민을 수호하기 위하여 고지를 지켜 인민들을 구원합시다》라고 대원들에게 웨쳤다.

실로 어랑촌 무명 고지의 13 용사는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바쳐 원쑤들의 계속되는 돌격을 영웅적으로 물리치고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였다. 이리하여 이 항일 유격대의 13 용사의 피의 대'가로 수 많은 인민들의 생명이 구원되였다.

우박치듯 하는 탄우 속에서 유격대를 지원하던 로인이 진펄에 빠졌을 때, 심한 부상을 무릅쓰고 진펄 속에 뛰여 들어가 그 로인을 구하여 준 다음에 자기의 목숨을 거둔 유격대원들의 인민 애호의 정신, 식량이 떨어져 오래 동안 굶으면서 싸우다가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감자밭에서 감자 몇 알을 캐여 먹고 그 자리에 감자값 이상의 돈을 묻고 간 어느 유격 소조원들의 이야기, 1941년의 간고한 시기에 식량 공작을 떠난 한 유격 소조가 어느 골짜기 나무 가지 사이에 걸린 석유통 속에서 쌀을 발견하고도 주인을 찾지 못해 며칠씩 굶으면서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그 쌀을 우선 리용한 다음에 쌀값을 물려고 무려 1주일 동안 애쓰다 못해서 끝내 주인을 찾을 수 없기에 그 자리에 돈을 두고 왔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러한 실화는 얼마든지 있다.

항일 유격대의 사업 작풍의 중요한 특성의 다른 하나는 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철저히 배격한 것이다. 이러한 례를 대중 속에서의 선전 공작에서 볼 수 있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대중 속에서의 선전 공작에서 형식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였으며 그것을 혁명 과업의 실제 문제들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는 데 주력하였다.

과거 행세식 공산주의자들은 군중을 무시하고 대상도 고려하지 않고 파벽없이 활쏘는 격으로 군중 앞에서 연설하군 하였다. 그들은 군중이 알아 듣건 말건 간에 대중이 모르는 외래어들과 어려운 문'구들을 남김없이 털어 놓으며 과격한 언사로써 대중을 놀래게 하는 것을 자랑꺼리로 삼았다. 그들은 맑스주의 명제들을 통채로 집어 삼키고 실천과 유리된 탁상 공론을 일삼았으며 자기가 《공산주의자》라는 냄새를 피우기 위하여 《쏘베트》요, 《프로레타리아》요, 《헤게모니》요 등등의 문'구들만 엮어 가면서 행세하기를 좋아하였다.

항일 유격대는 이러한 행세식 공산주의자들의 낡아 빠진 선전과 군중 공작 작풍을 철저히 청산하였으며 대중 선전 교양 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엄격히 경계하였다.

항일 유격대는 김 일성 동지의 통일 전선 로선과 전략 전술에 기초하여 군중 공작의 기본을, 적을 최대한으로 와해시키고 대중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전취하며 단결시켜 혁명 운동의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구축하는 데 두었다.

이를 위한 대중 선전 교양 사업의 기본 방향은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을 해설 침투시켜 인민 대중을 반일 통일 전선에 대한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인민 혁명군이 인민의 진정한 군대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며 그들에게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최후 승리에 대한 신심을 고취시키며 그리고 그들 속에서 일제의 《반쏘》, 《반공》 선전과 조 중 인민들에 대한 리간 정책을 폭로하며 그들이 동요함이 없이 희생적 정신으로 반일 전선에 궐기하도록 교양하는 데 있었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군중에 대한 선전 공작에서 형식주의를 퇴치하기 위하여 항상 주체적 준비를 책임성있고 신중하게 진행하였다.

유격대원들은 자기 자신들이 우선 정확한 혁명적 군중 관점과 공명 정대한 립장에 서며 모든 사건과 문제를 잘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동시에 구체적 실천적 립장에서 능숙하게 판단 처리하는 능력을 단련하였다. 자기가 먼저 알아야 남을 가르칠 수 있으며 자기가 동요하지 말아야 남의 동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자기를 바로잡아야 남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체적 준비에서 기본으로 되고 있었다.

유격대원들은 이를 위하여 풍부한 경험을 쌓으며 리론 사상적 준비를 잘 갖추며 대중과 부단히 련계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였다.

복잡한 구성을 가진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하는 항일 유격대의 선전 교양 사업에서 항상 대상을 정

확하게 구별하며 대상의 구체적 생활 처지, 의식 수준, 지향, 성격 등의 세부에 이르기까지를 예민하게 료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항일 유격대에서는 선전 공작에서 대상을 료해하는 사업을 항상 선행시켰다.

대상을 료해함에 있어서 김 일성 동지의 요지 다음과 같은 교시를 매개 유격대원들은 지침으로 삼았다.

한방의들의 말을 빌면 사람들의 성격, 체질에는 태양, 소양, 태음, 소음 등 사상(四象)이 있다고 한다.

한방의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 우선 그 환자의 성격부터 파악하려고 한다. 왜냐 하면 환자의 성격, 체질에 따라서 같은 병이라도 그 증세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병이라도 그 체질과 성격에 따라서 약제와 분량을 달리하여야 할 때도 있다…한방의들도 이렇게 하거든 우리가 어찌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라. 우리가 하는 사업을 한방의가 하는 사업과 비교할 수 있는가.

항일 유격대원들은 이러한 교시를 지침으로 각이한 지방 정형과 조 중 민족의 생활 풍속, 습관, 문화적 전통과 각계 각층 인민들의 생활 처지와 절박한 요구들을 심오히 료해한 토대 우에서 그에 알맞게 선전 방법과 형식을 택하였다.

동지의 과오를 시정할 목적을 가진 비판에 있어서도 이 원칙은 준수되였다.

군중 사업에서 항일 유격대의 언어는 인민을 감동시키고 대중을 하나의 사상으로 움켜쥐는 정력적이고도 설득력있는 것이였다.

항일 유격대는 대중이 리해하지 못하며 알아 들을 수 없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언제나 경계하였다. 왜냐 하면 이러한 말은 대중의 비난을 면치 못하며 대중으로 하여금 유격대 사업의 고상한 본질을 리해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였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로동자, 농민, 중국 사람들과 기타 민족주의자, 반일 부대 등 복잡한 계층을 대상하였으니만큼 그들의 각이한 언어, 사상 감정 등등을 세밀히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특히 김 일성 동지는 중국 인민들 속에서의 선전 공작의 성과를 위해서 대원들에게 중국말에 익숙할 것을 한두 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유격대원들은 알기 쉽고 실감있게 대중 앞에서 인민적 언어를 사용하였고 로동자들 앞에서는 로동자의 말, 농민들 앞에서는 농민의 말을 썼다.

항일 유격대의 선전 방법과 형식은 조선 인민의 특성에 알맞고 조선 사람이 알기 쉽고 좋아하는 그러한 형식과 방법이였다. 그러나 조선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인민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역시 그 방법과 형식이 달라졌으며 또 동북 지구나 국경 연선의 조선 인민에게 대해서와 국내 다른 지방의 인민들에 대해서도 각각 그 형식과 방법이 달랐다. 그러나 이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과 형식이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추구하며 인민의 풍습, 인습, 감정, 의식 수준과 지방별, 계층별 특성에 적응하며 특히 일제의 야만적 테로 통치하의 비합법적인 선전 공작이라는 특성에 적응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어디에서나 일관되여 있었다.

*　　　*

대중을 도와 주며 대중의 동정과 동감과 지지를 전취하기 위하여 어떠한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중이 있는 모든 곳에 들어가 그들을 설복 교양하고 각성시키며 그들을 각종 형태의 조직에 인입하는 것은 대중의 선전자이며 조직자로서의 항일 유격대의 군중 공작에서 극히 중요한 행동 로선이였다.

항일 유격대는 국 내외의 가는 곳마다에서 조국 광복회, 반일회, 반제 동맹, 부녀 동맹, 반일 청년 동맹, 해방 투쟁 동맹 등 비합법적인 대중 단체들을 조직함으로써 수십만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반일 대중을 자기 주위에 결속시켰다. 뿐만 아니라 합법적 조직인 친목회, 야학회, 학교 후원회, 농촌 진흥회 등과 조기회, 운동회 심지어 적들이 조직해 놓은 조직 속에까지도 대담하게 들어가 공작하였으며 대중을 교양하고 조직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적 통치 기관의 직위도 리용하면서 군중을 전취하며 유격대에 대한 원호 및 정보 제공 사업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가능성까지도 다 리용하였다.

1936—1938년 시기 장백 지구에서는 조국 광복회의 조직이 현으로부터 부락에 이르기까지 깊이 뿌리 박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위만 정부의 백가장(면장), 툰장(구장), 십가장(반장)들을 대체로 조국 광복회원으로 구성하고 그 직위의 합법성을 리용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각계 각층 인민을 조국 광복회 조직에 망라시키는 군중 공작을 성과있게 추진시키였다. 그 결과 장백 현회는 수만의 대중을 포괄하였으며 유격대에 대한 물자 및 무기 공급 사업을 대규모적으로 할 수 있었다. 동시에 합법적 직위를 리용하여 위만군 부대와 경찰서에까지 깊이 침투하여 공작함으로써 믿음직한 정보들을 유격대에 제공하였다.

항일 유격대의 대중 전취를 위한 군중 공작 방법 중 중요한 것들 및 가지를 다음에 소개한다.

로동자들 속에서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유격대를 조직 확대함에 있어서 로동 계급을 선차적으로 받아 들이기에 주력하였다. 동시에 로동자들을 많이 전취하기 위하여 각지에 있는 광산들과 림산 작업소, 목재소 등에 공작원들을 계통적으로 파견하고 그곳에서 비밀 지하 조직을 형성 강화하도록 하였다.

1930년대 초 팔도구 금광 로동자들 속에서 활동하고 있던 공작원들에게 준 지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여 있었다.

《현 계단에 있어서 공인(로동자) 공작이 매우 중요하다. 진실한 로동 청년들을 조직하여 유격대나 적위대에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그들의 성분과 환경을 깊이 료해하고 조직에 흡수하여 교양을 주며 비밀을 엄수하도록 해야 하겠다. 적들도 이곳에 우리 조직체들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기들의 주구를 박아 넣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건달'군을 조직에 받지 말며 고착된 진실한 로동자들을 조직에 흡수해야 하겠다》.

공작원들은 이 지시에 엄격히 립각하여 로동자들과 같이 일하면서 로동자들의 구성과 매개 로동자들의 경력, 성격에 이르기까지를 세밀하게 조사 파악했으며 로동자들 속에서 선전 교양 사업을 인내성있게 진행하여 그들을 각성시키고 단결시켰다. 그 뿐만 아니라 선진 로동자들로써 비밀 지하 단체들을 조직하여 삐라와 표어 공작을 진행했으며 나아가서는 적들의 탄압에 항거하여 대중적 파업과 시위를 조직했으며 많은 선진 로동자들을 유격대에 들여 보냈다.

한편 유격대원들도 직접 로동자들 앞에 출현하여 선전 공작을 전개하였다. 즉 그들은 로동자들의 임금이 낮다는 것, 로동 시간이 길다는 것, 로동 보호가 전혀없이 로동자들을 혹사하고 잔인하게 착취하며 나아가서는 고문 학살한다는 것 등을 일깨워 주면서 이러한 착취자들을 타도하고 우리의 주권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오직 유격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등을 선전하였다.

이리하여 당시 수 많은 선진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계급적 처지를 옳게 깨닫고 계급의 해방을 위하여 자진 유격대에 입대하였다.

농민들 속에서

항일 유격대원들은 항상 농민 군중과의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활동하면서 적들의 악선전에 속고 있는 개별적 농민들을 해설 설복하여 전취하는 데 많은 관심을 돌렸다.

1938년 여름 몽강현 사득촌에서의 일이다. 일제와 그의 앞잡이들의 유격대에 대한 악선전의 결과 이곳의 각성되지 못한 농민들은 항일 유격대를 잘 리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항일 유격대의 한 부대는 사득촌의 자위단의 무장을 해제시키며 주로는 놈들의 유격대에 대한 악선전을 분쇄하고 농민들을 각성시킬 목적으로 사득촌의 집단 부락에 진입하였다. 물론 이 진입 과정은 몇 방의 총도 쏘지 않고 용이하게 진행되였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완강히 반항하는 자위단놈들 가운데는 죽창을 들고 계속 덤벼드는 농민들도 있었다. 알아본즉 그 농민들은 유격대에 대한 놈들의 기만 선전에 빠진 사람들이였다. 유격대원들은 그 농민들에게 반항하지 말 것을 간곡히 권고하고 그 자리에서 친절히 해설해 주었다. 그래도 처음에는 사시나무처럼 떨기만 하더니 집체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해설 사업을 반복하고 유격대가 말대로 행동하자 그 때에야 자기들이 기만당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을 깨달은 수 많은 농민들은 유격대의 전리품을 운반해 줄 것을 자원해 나섰다.

유격대원들은 그들을 한 사람씩 맡아 가지고 짐지고 걸으면서 계속 해설 선전했고 그들이 멀리 전라도나 조선의 여러 곳에서 살'길을 찾아 방금 중국 땅에 온 농민들이라는 처지를 고려하여 어떻게 자기가 과거의 그런 처지에서 유격대에 들어 오게 되였는가를 잘 말해 주었다. 휴식시나 식사시에도 그들을 우대하였고 같이 자고 먹고 같이 걱정하고 의논하게 되자 어느듯 유격대와 농민들 사이는 한식구처럼 친근해졌다.

그들은 유격대와 헤여지게 되자 경탄과 사랑, 존경과 신뢰의 정을 가득히 안고 《아! 당신들이 과연 그 유명한 김 일성 부대였구만!》하면서 무거운 발'길을 옮기는 것이였다.

중국 사람들 속에서

적의 악선전에 기만 당하여 초기에 조선 인민 혁명군을 크게 오해하고 있던 중국 사람들 속에서 유격대원들은 인민적 사업 작풍과 군중성을 가지고 특히 능란하게 공작하였다. 항일 유격대가 활동한 초기(1932—1934년)에 중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북만 지방에는 조선 인민 혁명군의 정치적 영향이 많이 미치지 못하였었다. 이곳의 중국 주민들은 주로 《항일

구국군》과 《산림대》들의 행위만을 목격하였는데 게다가 일제의 조 중 민족 리간 책동과 조선 인민 혁명군에 대한 악선전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들이 이곳에 나타났을 때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조선 인민 혁명군을 피하였으며 지어 미워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이곳에 진출한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들은 중국 사람이 가장 증오하는 일제 군경들과 악질 위만군의 《정안군》을 습격 소탕하는 수 많은 전투에서 조선 인민 혁명군의 위력을 시위하면서 조선 인민 혁명군이 진정으로 일제를 반대하는 인민의 군대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이곳 중국 인민들을 경탄케 하였다.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들은 그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촌과 부락에 주둔하면서 위만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풍으로 중국 인민들 속에서 정치 공작을 부단히 인내성있게 전개하였다. 유격대원들과 공작원들은 중국의 례절, 풍속을 갖추어 중국 사람들을 정중하게 대하였고 특히 군중들을 성의껏 도왔으며 웃사람들을 존경하였다. 유격대원들은 주인의 승인이 없이는 절대로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 가지 않았으며 물건을 어루만지지도 않았으며 창문 하나 구멍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매우 조심성있게 행동하였다. 중국 부락에서 중국 사람들과 같이 지내게 될 때에도 그들에게 절대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였고 방안에서 주인이 자리에 눕기 전에는 자기가 먼저 자리에 눕는 일이 없었고 방안에 자리가 없으면 꼭 밖에 나와 자군 하였다. 그들은 성심 성의로 자기의 일같이 주인집에서 마당을 쓸어 주고 물을 길어 주고 나무를 패 주었으며 농사일을 도와 주었다.

이러한 항일 유격대의 작풍은 처음 보는 중국 사람들로 하여금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했고 매우 빠른 속도로 조선 인민 혁명군 대원들과 친근해지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주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중국 인사를 드린 다음 가정 살림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조 중 인민이 단결해서 일제를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친절히 일깨워 주었다.

이리하여 일제의 기만적 책동과 조선 인민 혁명군에 대한 외곡 선전은 북만 지방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폭로되고 말았다. 중국 인민들은 조선 인민 혁명군을 《진정한 구국의 군대》라고 하였고 《조선홍군》이라고 부르면서 무한히 신뢰하고 사랑하였으며 헤여질 때에는 《올 때에는 미웠으나 갈 때에는 한없이 사랑스럽고 떠나 보내자니 섭섭하기 그지없구나!》라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것이였다.

민족주의자들과의 사업에서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량심적인 민족주의자들을 전취하기 위해서도 매우 큰 관심을 돌렸고 이 공작을 꾸준하게 전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특히 항일 무장 투쟁을 진행하게 되면서부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량심적인 민족주의자들(대표적으로는 남만의 양 세봉 부대)에게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강화하며 그들을 무모한 행동에서 해방시켜 목적 지향성있게 반일 투쟁을 진행하도록 지도하기에 노력하였다. 즉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는 어느 길로 걸어야 하며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가를 인내성있게 해설하였고 그들이 능히 접수할 수 있는 정확한 행동 로선을 제시해 주군 하였다. 조국 광복회 준비 선언문이나 강령도 그들에게 먼저 보내 주었으며 조국 광복회 준비 사업에도 그들을 적극 인입하였다.

이리하여 양 세봉의 독립 군대 내에 김 일성 동지의 정확한 통일 전선 로선과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이 점차 깊이 침투되고 그의 정당성이 파악되자 양 세봉이 돌아간 후 그를 대신한 최 윤구는 드디여 자기 부대를 인솔하고 조선 인민 혁명군과 련합하는 길을 택하게 되였다. 즉 1938년 봄, 《반일 민족 통일 전선에 기초한 일체 반일 력량들을 총 집결하여 조선 민족 해방 투쟁을 전개하자!》는 김 일성 동지의 호소에 호응하여 그들은 김 일성 동지를 찾아 조선 인민 혁명군에 편입되였다. 그 후 그들은 조선 인민 혁명군에서 존경과 우대를 받았고 맑스—레닌주의 교양을 받았으며 견실한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일제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하였다.

반일 부대들에 대한 공작

항일 유격대의 풍부하고 세련된 대중 전취 사업 경험 중에서 각종 반일 부대들에 대한 공작도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중국 반일 부대들 중에는 장 학량의 구 동북군의 일 부대들로 조직된 《항일 구국군》과 그 외에 《반일 의용군》 및 《반일 산림대》 등이 있었는바 이들은 일제를 반대하여 동북만의 여러 곳에 산재하여 행동하고 있었다.

그의 구성을 보면 상층은 대부분 지주, 부농, 토

호 등 착취 계급의 출신으로서 착취 계급의 의식과 특히 대국주의 사상이 농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항일 구국 정신은 협소한 자산 계급의 테두리와 민족 배타주의 감정에 파묻혀 있었다. 이로부터 곤난과 위험에 부닥치면 자주 동요 투항 변절하였으며 인민 대중에 대한 사상 관점에서는 완전히 착취 계급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들 속에서 행패와 인민의 재산에 대한 략탈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반일 부대들의 기본 대중인 하층 병사들은 로동자, 농민들이며 중국의 최하층의 빈민 출신이였다. 그들의 계급 의식은 물론 극히 미미하지만 애국적 량심과 선량한 항일 구국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상층과 구별되였다.

항일 유격대는 김 일성 동지의 방침에 의하여 항일의 정신에서 행동하는 반일 부대들과 련합 및 행동 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이 투쟁은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좋아하지 않은 것과 특히 《5. 30 폭동》의 후과로 인하여 매우 어렵고 희생적인 투쟁이였다. 그러나 가능한 모든 력량을 전취하기 위해서는 난관과 희생을 용감하게 무릅쓰고 꾸준히 별동대 공작을 전개하였고 중국어에 능숙한 공산주의자들을 정치 공작원으로 침투시켜 정치 공작을 전개하였다.

별동대들은 주로 그들의 상층과의 통일을 확보하면서 전투 행동과 일상 활동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 항일 유격대와 접근케 하며 련합 작전에 응하게 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정치 공작원들은 각종 반일 부대 내의 하층 병사 대중 속에서 조 중 인민의 단결과 항일 공동 투쟁 정신을 고취하며 신중한 행동과 방법으로 그들에게 은연히 계급 의식을 계발시킴에 노력하면서 밑으로부터 우로 항일 유격대와의 통일을 짓게 하는 데 추동적 역할을 하였다.

한편 전투를 통하여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실천과 행동으로써 그들을 감화 교양한 것은 그들과의 통일 전선 형성을 촉진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다.

반일 부대들과 련합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전투를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전투들에서 항일 유격대는 탁월한 전략 전술과 무비의 용감성과 헌신성으로써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었다.

그와 함께 유격대원들은 그들을 향하여 사격하는 적의 진지에 대하여 지원 사격을 조직하거나 대 소 위험들을 솔선 막아 주어 전투에서 그들의 동요와 패주 및 투항을 견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멋대로 내버려두고 간 그들의 지휘관과 병사들을 희생에서 구출하고 치료해 주는 등의 동지 우애심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이리하여 유격대원들이 발휘한 이러한 고상한 품성과 작풍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까지도 《과연 공산주의자가 진정한 애국자》라고 감격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공산주의자들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만일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반일 부대가 곤난을 이기지 못하여 패배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져 항일을 포기하고 적에게로 넘어 갈 우려가 있다면 김 일성 동지는 지체없이 그곳에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들을 파견하여 그들을 지원해 주고 고무하여 항일을 계속 견지하게 하였다.

이러한 공작과 모범으로 항일 유격대는 반일 부대의 병사들에게 항일 유격대의 위력에 대한 신뢰와 승리의 신심, 련합 작전과 행동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토비 행위를 일삼는 부대들이나 그의 괴수들에 대하여 기대를 걸거나 그와의 련합을 운운하는 것에 대하여는 우경 투항주의로서 견결히 규탄하고 용납하지 않았다. 왜냐 하면 이러한 것들과의 련합은 조 중 인민들로부터의 지지를 저절로 막아 버리는 범죄 행위로 되기 때문이다.

적을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

적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는 공작에 있어서도 항일 유격대는 혁명적 군중 관점에 엄격히 립각하는 원칙을 잃지 않으면서 기동성있게 공작하는 작풍을 수립하였다.

만주 괴뢰국 군대인 위만군은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을 반대하여 일본 군대와 같이 행동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만군은 일제 통치하의 식민지인 만주 괴뢰국의 군대이라는 점과 그의 절대 다수의 병사들이 피착취 계급의 출신이라는 사정은 그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그들 중의 많은 부분을 우수한 공작을 통하여 일제의 편에서 떼여낼 수 있게 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위만군 내 하층 병사들에 대한 와해 및 상층으로부터의 분리 공작을 진행하며 그의 병사 대중에게 일제에 대한 반항 정신을 고취하며 위만군의 수치스러운 대렬에서 빠져 나오게 하며 유격대에 의거하게 할 방침을 제시했다.

항일 유격대는 대담하고 경험이 많고 체질이 좋고 기질이 민감한 동무들을 선발하여 위만군 내에 침투시키고 그 속에서 장기적인 공작을 진행케 하였다.

이 공작원들은 위만군 내에 들어가 우선 《충실성》과 《모범》으로 신임을 얻은 다음에 점차 꾸준히 가장 은근하고 주의 깊은 방법으로 그리고 대상과 시간 및 장소를 잘 선택해 가면서 정치적 와해 공작을 진행하였으며 그들 내부에서 병변을 일으키게 하거나 모든 유격대와의 전투를 기피하게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일 부대를 거느리고 의거하게 하였다.

또 다른 공작 형태로서는 위만군 내의 로동자, 농민, 빈고농 출신의 병사들과 하급 군관과 그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전달하거나 신문, 포스타, 서적들을 보내여 그들에게 개심할 방도를 가르치는 일도 하였다.

또한 그들의 가족들을 유격대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그들을 교양함으로써 가족들 자신이 직접 위만군 부대에 찾아 가거나 편지를 통하여 아버지와 남편, 형제들을 설복하게 하였다.

또한 위만군의 하급 군관과 병사들의 가족, 친척, 친우들을 리용하여 위만군에 대한 와해 공작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었다. 전투 환경에서 일, 만 혼합 부대와 교전할 때에는 보통 일본 군경에게만 사격을 집중하면서 위만군에 대해서는 함화의 방법(일명 《입 대포》)으로 반항하지 않도록 설교하였다.

순 위만군만을 상대하였을 때에는 악질적으로 반항하는 자는 견결하게 괴멸시키지만 유격대를 은근히 동정하거나 동요하면서 겁을 집어 먹은 자들이나 부대들에 대해서는 전투를 피하고 함화와 적극적 호소로써 투항하게 하거나 될수록 의거하게 하였다.

항일 유격대는 또한 관대한 포로 정책과 포로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태도로써 적에 대한 와해 사업을 촉진시켰다.

포로들을 위협 공갈 총살하는 일은 절대로 엄금되였고 끝까지 그들을 해설하여 위만군의 수치를 깨닫게 하며 유격대의 관대 정책을 실제로 보여 주어 집에 돌려 보냈으며 집에 돌려 보낼 때에도 온갖 편의와 안심할 수 있는 담보를 보증하여 돌려 보냈다.

포로들 중에서 마음을 고쳐 일제와 투쟁할 것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우선 대담하게 믿고 총을 메웠으며 위만군에서 개심하고 유격대를 자원 찾아 온 자들에게는 그의 공로와 본래의 직위에 따라 대대장이나 지어 련대장의 직위까지 그대로 주고 실지 전투를 통하여 검열하였다.

이렇게 과거에는 자본가와 지주를 위하여 복무하던 사람이 일제를 반대하여 함께 싸우겠다고 나서는 것을 항일 유격대는 환영하였고 그들을 우대하고 교양하면서 검열은 전투 과정에서 하였다.

반간첩 투쟁

적의 간첩망을 와해시키는 반간첩 투쟁에서도 항일 유격대는 혁명적 원칙을 엄격히 견지하면서 사람들을 신중하고 세심하게 취급하였으며 한 사람의 인민이라도 잘못 의심하거나 잘못 처리하지 않도록 인민을 아끼는 작풍을 수립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적들이 파견한 간첩이나 적의 안내자라 하여 무조건 모조리 숙청하지 말며, 악질과 주모자들은 엄격히 처리하되 악질 주구가 아니거나 적에게 일시 롱락, 기만 당한 사람은 그의 행위의 동기, 의식 정도, 과오의 자각 여부, 개조의 가능성 등등을 타산하여 우리의 관대 정책의 의의를 해설해 준 다음에 관대하게 처리하여 돌려 보낼 것을 항상 강조하였다. 왜냐 하면 일제는 자기들의 편인 악질 주구놈들을 간첩으로, 앞잡이로 들여 보내기도 하지만 애매한 사람들도 롱락, 기만하여 들여 보내기 때문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반간첩 투쟁,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서투르게 잘못하면 반《민생단》 투쟁에서 겪은 쓰라림을 되풀이하게 되며 결국 반간첩 투쟁을 하다가 오히려 인민 대중과의 리탈을·가져 올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여러 회의들과 그리고 일상적 활동에서 이에 대하여 매우 큰 관심을 돌렸다.

1940년의 간고한 시기에 일제는 유격대와 인민 간에 리간을 조성시킬 목적으로 수 많은 농민들을 강제로 몰아다가 산간 지대에 소위 《정탐》으로 들여 보냈다. 이것은 탐지도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그만 못하지 않게 유격대가 농민들을 《처단》하도록 하자는 것이였다.

그러므로 일제의 이 교활한 책동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김 일성 동지는 분별없이 밀정이라고 처단한다면 놈들의 모략에 빠지게 될 것이며 그 때에는 일제가 《공비는 농민을 죽였다》고 악선전할 것이라고 교시하였다.

이리하여 유격대원들은 적들의 기도를 명확히 깨닫게 되였으며 아무리 곤난한 조건과 복잡한 전투 환경 속에서도 적아를 능숙하게 구별해내고 혁명의 원쑤가 아닌 이상에는 그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하였다.

그러한 결과 심지어 적의 모략에 걸려 리용 당하였거나 투항하였다가도 유격대의 관대 정책과 고상한 인민적 사업 작풍에 감화되어 자원 혁명 대렬에 참

가하여 투쟁한 사람들도 한두 사람이 아니였다.

그러나 항일 유격대는 이와 동시에 혁명의 리익에 손실을 주며 원칙성을 상실하면서까지 《관대성》을 베풀거나 악질적인 일제의 주구들과 타협하는 것을 변절 행위로 엄격히 규탄하였으며 그것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았다.

여기에서도 일관된 하나의 로선은 최대한 적을 고립 와해시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혁명의 편에 쟁취하는 데 있었으며 인민의 생명과 신변을 끝까지 옹호하는 데 있었다.

*　　　*

이상에서 인민의 리해와 지향을 구현하였으며 인민의 리익을 자기 활동의 최고 기준으로 삼고 인민과 같이 살고 항상 인민 속에 있으면서 적과 싸우는 전사이며 인민을 교양하고 선동하는 선전자이며 인민을 조직 동원하는 조직자로서의 항일 유격대의 군중 관점과 사업 작풍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보았다.

바로 이러한 혁명적 군중 관점과 인민적 사업 작풍으로 하여 항일 유격대는 일제의 가혹한 파쑈 테로 통치하에서도 인민 대중의 열렬한 지원 밑에서 15개 여 성상이란 긴 세월을 일제를 반대하여 승리적으로 싸울 수 있었으며 가는 곳마다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항일 유격대가 피어린 전투 행정에서 이룩한 고상한 인민적 사업 작풍과 군중 공작 방법은 오늘 우리 당이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빛나는 혁명 전통의 중요한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 당 일'군들과 당원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가일층 촉진시키기 위하여 항일 유격대의 사업 작풍과 군중 공작 방법을 더욱 진지하게 연구하면서 항상 사업에서는 대중의 기수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머니가 되도록 자체를 수양함을 더 없이 영광스러운 의무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서적 해제 및 평론

혁명 정신의 거울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읽고

신 구 현

1

오늘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하루 속히 올라 서기 위한 혁명의 고조기에 처해 있다. 천리마다운 전진과 전진, 비약과 비약 속에서 우리의 생활은 그 하루 하루가 새롭고 보람차며 마치도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줄기와도 같이 날로 푸르러만 가고 더욱 활기를 띠며 있다. 바로 이러한 혁명의 높은 파도 우에서 우리 인민들의 온 마음은 혁명적 과거의 빛나는 전통에로 쏠리고 있으며 그 전통에 대한 아름다운 회상과 추억으로 충만되여 있다. 그런데 이 회상과 추억은 과거에 대한 단순한 애착이 아니고 그 전통을 토대로 하여 우리 혁명의 불'길을 더욱 더욱 거세고 휘황 찬란하게 하기 위한 혁명적 지향으로 관통되여 있기로 하여 아주 고상한 것이며 실지로 그것이 우리 생활에서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

조선 인민들은 지난 시기에 무수한 혁명적 고비들을 넘어 왔다. 그런데 이 혁명적 고비들 가운데서 가장 간고하고도 가장 생기있고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고비는 1930년대 김 일성 동지를 위시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하고 지도한 항일 무장 투쟁 시기였다. 이 시기야말로 조선 인민들이 해결하려다 못한 채 축적되여 왔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들이 가장 날카롭게 드러난 시기였는바, 이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김 일성 동지를 위시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적인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실로 이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 전통은 오늘 우리 혁명과 직접 련결되여 있으며 우리의 보람찬 생활의 근간을 이루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금후의 진로를 더욱 휘황하게 밝히여 주며 우리 혁명 력량을 고무하고 추동하는 동력으로도 되고 있다. 때문에 이 혁명 전통을 직접 계승한 우리 당은 이 전통을 소중히 하고 이 전통을 일상적인 선전과 선동의 수단으로, 낡은 것을 반대하고 제거하는 직접적이고 전투적인 무기로 삼으며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의 이 혁명 전통에 대한 부정적, 속물적 태도를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하여 왔다.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로력적 위훈을 자부심을 가지고 말한다. 그러나 인민들은 그 위훈을 당과 그 혁명 전통에다 귀결시키고 있으며 당을 자기의 뜨거운 심장으로 고수하는 심정으로 이 혁명 전통을 한없이 소중히 여기고 있다.

이 혁명 전통과 이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우리 당의 투쟁 성과들을 거울 삼아 우리들은 오직 하나의 옳은 학설인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신심을 보다 굳건히 가지게 되는 것이며 공산주의적 사업 방법과 사업 작풍을 배우는 것이다. 곤난과 애로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 인민들은 이 혁명 전통에로 시선을 돌리며 그 전통에서 배우며 백배 천배의 용기와 투지를 얻는다. 이 혁명 전통은 우리들을 관찰력이 있고 사고력이 풍부한 인간으로, 창발력과 전개력이 강한 인간으로 개변시킨다. 이 혁명 전통을 이룩해 놓은 1930년대는 실로 우리 민족 해방 투쟁의 초점으로 빛나고 있다. 때문에 우리들의 중요한 과업은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주의 혁명의 거센 불'길을 위하여 이 혁명 전통의 초점을 백방으로 발양시키는 데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량강도 당, 정권 기관 일'군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이 고귀한 전통을 살리고 계승하는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이 교시를 받들고 이 혁명 전통을 연구하고 계승

하는 사업은 더욱 진지하게 전개되였으며 짧은 시일이지만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 직속 당 력사 연구소는 그 사업의 주요 부문의 하나로서 혁명 전통에 관한 자료의 발굴, 수집, 정리 및 출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문학 예술 기관들은 이 혁명 전통을 살리고 그를 형상화하는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있다. 이 성과들은 이미 근로자들의 공산주의 교양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으며 창조적 로력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들 성과는 고귀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만족할 수 없다. 왜냐 하면 혁명 전통의 고상하고 풍부한 내용에 비해 볼 때 우리가 거둔 성과는 대해일속의 감이 있기 때문이다. 천고의 밀림과 같은 30년대 혁명 전통의 고상하고 풍부한 내용을 어떻게 짧은 시일에 다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리유는 이 혁명 전통을 신중하게 취급하지 아니하는 연구가, 작가, 예술인들의 태도에 있다. 우리는 출판물을 통하여 30년대 항일 빨찌산들의 전기라든지 투쟁 모습을 그린 작품들을 대하게 된다. 그러나 적잖은 작품들이 필자들의 비신중성과 조급성으로 인하여 질이 낮은 것을 왕왕 보게 된다. 적잖은 필자들이 어떤 사건의 디테일적인 라렬에 치중하는 나머지 그 사건의 본질, 그 사건의 주인공들인 항일 빨찌산들의 고상한 정신 세계를 보여 주지 못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혁명 전통 계승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신이 중요하다고 교시하였다. 우리 항일 빨찌산들은 간고하고 무수한 사건들의 주인공들이며 가지가지의 파란 곡절을 불사조와도 같이 돌파해낸 영웅들이다. 이 사건들과 파란 곡절은 그의 대 소 여하를 불문하고 항일 빨찌산들의 고상한 정신 세계를 체현하고 있다. 우리는 《큰 사건》, 《흥미있는 사건》을 찾아 방황하는 나머지 많은 소재들을 임의로 헛되이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 하나를 소중히 하고 그 속에 담겨진 영웅들의 고상하고 풍부한 정신 세계와 성격상 특징들이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의 모범을 금번 당 중앙 위원회 직속 당 력사 연구소에서 출판한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제 1 집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회상기의 23명의 필자들은 모두 지난 날 항일 빨찌산 투쟁에 직접 참가한 동지들이다. 이 동지들의 26편의 회상기는 필자들이 지난 날 자기들의 혁명 투쟁 과정에서 직접 체험하였거나 보고 들은 무수한 사실의 일부를 아무런 허구없이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이 회상기를 읽고 흐뭇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300페지 미만의 소책자이지만 천언 만어로도 다할 수 없는 고상하고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이 회상기는 1930년대 영웅적인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력사적 현실을 생동한 화폭으로 이모 저모로 보여 주고 있으며 중요하게는 필자들도 포함한 항일 빨찌산들의 불요불굴의 혁명 정신, 인민과의 혈연적 련계, 혁명적 동지애,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 등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 전통을 산 생활을 통하여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 회상기가 우리를 감동케 하고 매혹케 하는 또 하나의 리유는 그것들이 말은 적고 과장도 허식도 없는 서술이지만, 어느 것이나 심장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생활의 진실과 문제의 본질을 있는 대로 토로한 글이라는 데 있다.

이 회상기들의 생활적 소재라든지 사건들은 어디까지나 지나간 력사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 생활적 소재와 사건 속에 담기여진 사상 내용은 혁명의 거울로서 해와 달과도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며 근로자들의 훌륭한 공산주의 학교로서, 문학 예술 창조의 풍부한 원천으로 복무할 것이다. 실로 이 책은 다함없는 민족적 긍지감과 불타는 혁명 정신을 불러 일으키는 영생 불멸의 회상기다.

2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의 진실성은 지난 날 항일 빨찌산들의 빛나는 혁명 투쟁과 김 일성 동지의 슬기로운 령도를 생동한 생활적 사실로 진실하게 보여 준 데 있다.

실로 김 일성 동지는 1930년대 정세를 옳게 분석하고 조선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적인 무장 투쟁으로 발전시키였다.

최 현 동지의 회상기 《잊을 수 없는 첫 상봉》은 필자가 1933년 9월에 왕청 유격 근거지에서 김 일성 동지를 뵈옵고 항일 빨찌산 투쟁의 전략 전술상 과업을 받게 된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이 회상기는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고 우리 나라를 쏘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자는 김 일성 동지의 원대한 계획과 이를 위한 전술상 당면 과업인 광범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 결성의 필요성과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한 그 방침을 서술하고 있다.

당 창건의 필요성과 방침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말씀을 필자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며 서술하고 있다: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우리의 위업을 달성하자면 우리는 반드시 맑스-레닌주의 당을 가져야 합니다. 더우기 우리의 혁명 투쟁은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나라를 쏘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 원대한 과업을 어떻게 혁명의 참모부가 없이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당——이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향도성입니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 당을 창건하는 것은 우리 조선 공산주의자들 앞에 제기된 가장 절실하고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14페지).

이 회상기는 일관하여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당시 조선 혁명 로선이 그 얼마나 정당하며 전술상 과업들이 그 얼마나 정확하였던가를 감명깊게 서술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존경의 심정으로 충만되여 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매개 문제들에 대하여 일일이 실례를 들어 가면서 어떻게나 정열적으로 흥미있게 말씀하시는지 나는 밤이 지새는 줄도 모르고, 그의 말씀에 온 정신을 집중하였다》 (8페지).

필자는 또한 탁월한 령도자로서의 김 일성 동지의 혁명적 통찰력과 리상을 아주 인상 깊게 서술하고 있다.

《김 일성 원수는 앞으로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데 대한 리상도 말씀하시였다.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조국 땅 우에 착취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풍만한 자원을 우리의 힘으로 개발하여 모든 인민들이 자유롭고 풍족하게 살게 된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종국적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는 먼 미래를 내다 보시며 깊은 사색에 잠기는듯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닙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리상은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필코 현실화되리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습니다>.

나는 확신에 넘치는 그 이의 말씀을 들으면서 광명한 앞날이 환하게 내다 보이는 것 같았으며 혁명 전사로서의 긍지와 희열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17페지).

《잊을 수 없는 첫 상봉》을 통하여 우리는 김 일성 동지가 항일 무장 투쟁 첫 시기부터 조선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로서 혁명의 전망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내다 보시고 혁명 로선을 명철하게 제시하였으며 혁명을 항상 승리에로 인도하신 것을 긍지감을 가지고 대하게 된다.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대한 인상깊은 서술은 림 춘추 동지의 회상기 《잊지 못할 5.1절》에서도 볼 수 있다. 필자는 자기 회상기에서 김 일성 동지의 혁명적 락관주의와 설복과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인민적 사업 작풍에 대하여 진실하게 서술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1절을 적들의 포위 속에서, 특히 식량이 완전히 떨어진 곤난한 환경 속에서 개구리 삶은 것으로 주린 창자를 채우면서 뜻깊게 기념하는데, 김 일성 동지의 육친적인 동지애와 혁명적 락관주의, 간곡한 고무 격려는 빨찌산 대원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굳게 다지게 하며 백배 천배의 용기를 솟구치게 하였던 것이다. 필자는 명절날 저녁에 대원들 속에 섞이여 진행한 담화를 상세히 그리고 감명깊게 회상하고 있다. 한 대문을 인용하여 보자.

《유명한 평양 국수, 달콤한 감자(고구마), 가을이면 유명한 대동강의 숭어, 기름진 백미, 경치 좋은 모란봉과 만경대, 그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우리들의 기억에 생생하다. 우리는 이 모든 자랑스러운 자연 풍경과 부원을 일제놈들에게 강점 당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의 간고한 투쟁은 반드시 오늘의 개구리 료리를 미구에 대동강의 숭어 료리로 전환시키고야 말 것이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는 하나의 진리이다》(22페지).

혁명적 락관주의는 공산주의자들의 속성이요, 절망과 고독은 멸망해 가는 계급들의 속성이며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속하지 않는다.

김 일성 동지는 산 실례를 들어 애국주의를 고취하시는 것이다. 조선 사람의 량심, 혁명적 량심을 수호하고 아름다운 우리 조국을 피로써 고수할 것을 호소하신 김 일성 동지의 담화를 필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소박한 사람들은 예로부터 하루를 살아도 량심적으로 사는 것을 영예스럽게 여기여 왔다. 우리들의 량심이란 곧 조국 해방을 위한 애국적 량심, 로동 계급의 사회적 해방을 위한 불요불굴의 투지, 두려움을 모르는 대담성과 강의성, 모든 곤난을 극복하는 인내성, 영웅성 등의 집중적 표현으로 되는바 바로 이것을 혁명적 량심이라고 하는 것이다》(23페지).

회상기의 필자들은 이구 동성으로 김 일성 동지의 육친적인 동지애와 그의 군중 관점과 인민적 사업 작풍을 감명깊게 서술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의

이 육친적인 동지애를 《잊을 수 없는 첫 상봉》에서는 [illegible]뿌리에 대한 필자의 회상에서, 《잊지 못할 5.1절》에서는 약간의 강냉이알을 룸에 삶아 드리는 것을 《병들어 앓는 동무들도 있는데 그 동무들에게 분배하여 주시요. 나는 아직은 앓지는 않으니까》하시고 굳이 사양하시는 회상에서도 력력히 살필 수 있으나, 아주 인상깊은 것은 백 학림 동지의 회상기 《한 홉의 미시'가루》다. 1938년 겨울, 김 일성 원수가 친히 령솔한 인민 혁명군 부대는 국경 일대와 국내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몽강 땅을 떠나 장백 지구를 향하여 행군하고 있었다. 식량 사정은 점점 급하게 되였다. 행군 도중의 어느 날 아침이였다. 전령병들은 자신이 굶는 것은 고사하고 김 일성 원수께 식사를 보장해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슴 아팠다. 전령병들은 배낭을 뒤져 비상용 미시'가루를 한데 모아 원수님께 드리였다. 미시'가루는 한 홉 가량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아무 말씀이 없이 전령병들을 둘러 보시다가 그 중 나이 어린 지 봉손 동무에게 주시였다. 지 봉손 동무는 그것을 먹지 않았다. 미시'가루는 다시 배낭 속에 들어 가게 되였다. 행군은 계속되였다. 저녁이 되여 숙영하게 되였다. 전령병들은 보관한 미시'가루를 적당히 갈라서 다음 끼니분을 보관하고 원수님 앞에 내놓았다. 김 일성 동지는 전령병들이 마지막 미시'가루를 자기에게만 권한다는 것을 짐작하시였다.

김 일성 동지는 배낭 속에 깊이 싸두었던 나머지 미시'가루마저 털어 놓게 하시고 자기 몫을 념두에 두지 않으시고 《이것을 한 말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배가 부를거요. 어서 받으라구》하시면서 고루 나누시였다. 전령병들은 자기 몫을 각각 덜어 원수님께 드리니 원수님은 다시 그를 고루 나누어 주시였다. 이리하여 김 일성 동지께는 가장 적게 차례지였다. 김 일성 동지는 전령병들이 그 미시'가루를 물에 타는 것을 보시고야 자기도 그를 물에 탔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베풀어진 이 육친적인 뜨거운 동지애를 직접 체험한 필자는 당시의 감격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나는 목이 메여 미시'가루를 탄 물이 넘어 가지 않았다. 그것은 나 뿐이 아니였다. 우리 셋이 모두가 그랬다.

원수께서는 한 홉을 한 말로 생각하고 먹으라고 하셨지만 수천 수만 두의 식량인들 그 이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무한한 애정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물론 행복이나 감격이 도저히 재부의 량으로 잴 수는 없는 것이다. 착취자들의 산해진미를 긁어 모은 호화로운 성찬이 그 때의 한 홉의 미시'가루의 맛보다 나을 수는 도저히 없다.

그것은 그 한 홉의 미시'가루가 고귀한 혁명의 량식이였으며 그것에는 원수께서 조국을 위한 자기 희생적인 복무의 정신과 동지에 대한 깊은 배려의 품성으로 우리를 길러 주신 고귀한 혁명적 자양이 깃들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31페지).

실지 항일 빨찌산들은 김 일성 동지가 가리키는 혁명의 길을 따라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을 발휘하였으며 김 일성 동지의 공산주의적 사업 방법과 군중 관점과 육친적 동지애에 튼튼히 립각하여 항일 빨찌산과 인민과의 련계를 어떤 힘으로도 끊을 수 없게 하였다.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는 이를 실증해 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수록하고 있다. 그 중 항일 빨찌산들의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을 서술한 회상기로서는 《연길 폭탄》, 《투쟁의 첫걸음》, 《동지들! 이 총을 받아 주!》,《대오를 찾아서》,《〈치도〉에 대한 이야기》, 《고난의 40일》, 《난관을 뚫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 《무장을 위하여》, 《길은 하나이다》, 《단합된 힘》, 《소년 유격대원들》, 《유격대의 군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회상기를 일관하고 있는 사상의 흐름에는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굳은 신심, 김 일성 동지에 대한 존경의 심정이 파도치고 있으며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이를 김 철호 동지의 회상기 《고난의 40일》에서 보기로 하자.

이 회상기의 필자며 주인공인 김 철호 동지가 스물 일곱살 쩍(1939년 8월)에 겪은 일이다. 주인공이 종처로 인한 고통을 무릅쓰고 전투를 하면서 중중첩첩 험한 산'길을 뚫고 나가는데, 종처가 승이 나고 몸에는 열이 높아 발'길을 더는 옮겨 놓을 수가 없게 되였다. 김 철호 동지는 부득이 사방 100 여리에 인가 하나 없는 산중 무인지경, 대원들이 사흘간 약속하고 떠나면서 나무가지로 지어 준 조그마한 초막에 홀로 남잖을 수 없었다. 이 때 심정을 필자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나의 머리 속에는 혁명 대오에 참가하면서 조국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다고 맹세하던 생각 또는 부모와 남편에 대한 생각 등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르며 지나간 생애의 가지가지 추억들이 눈 앞을 스치고 지나 갔다… 나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근심이 떠돌았다. 그것은 〈종처가 곪아 터지기 전에 적들의 습격을 받게 되면 어찌나〉하는 것이였다. 만약 그런 경우가 닥쳐 온다면 나는 마지막 피값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기병총을 몸곁에 바싹 당겨 놓고 돌맹이들도 앞에 모아 놓았다》(145페지).

주인공이 처하고 있는 환경은 확실히 위험한 것이며 따라서 그에게 근심이 떠도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추호의 절망과 실망도 하지 않는다. 주인공은 이 위험한 고비를 뛰어 넘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고비를 극복하는 길을 오로지 완강한 투쟁에서 찾고 있다. 주인공은 또한 이 고비를 우연한 것으로 보잖고 혁명 발전 과정에서 어느 때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락관하고 있다. 특히 주인공의 정신 세계에서 고귀한 것은 그가 현상의 형식 때문에 현상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즉 그가 산중 무인지경에 홀로 남아있다는 그것 때문에 대원들의 동지, 김 일성 동지의 육친적인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은 3일이 아니라 40 여일을 이 심산 궁곡에서 병마와 기아와 《토벌대》놈들과 싸우면서 대원들이 돌아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극도의 주림으로 실신 상태에 빠지였을 때에도 동지며, 수령의 육친적 사랑을 믿어마지 않고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주리고 주리여 곤드라졌을 때의 환상을 필자는 다음과 같이 시'적으로 회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기를 쓰며 일어나려고 버둥거린다… 이 때였다. 태산같이 큰 분이 나의 앞으로 다가 온다. 인자하게 웃으시는 거인의 얼굴, 아! 그 이는 경애하는 김 사령(김 일성 원수)의 모습이 아니신가? 그 이는 손을 들어 앞을 가리키며 부드럽고 억센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우리가 저 언덕에 올라서면 붉은 태양을 보게 될 것이요.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하오. 어서 일어나서 대렬을 따르시요!〉. 나는 그 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 본다. 아! 거기에는 장미'빛 려명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지 않은가! 나도 가야 한다! 그 이가 가리키는 길로 전우들과 함께 저 붉은 언덕으로 가야 한다!》(152페지).

필자는 자기의 체험을 통하여 항일 빨찌산 대원들이 중중첩첩한 난관을 뚫고 빛나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을 아주 정당하게 서술하고 있다.

항일 빨찌산들의 인민들과의 혈연 관계를 서술한 회상기로는 《장백현 사람들》, 《투거우즈의 인민들》, 《산전막의 로인》, 《무치허에서》, 《연집강에서의 개가》,《오풍동에서》 등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회상기의 사상 내용의 공통성은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가 항일 빨찌산들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으며, 김 일성 동지를 조선 인민들 사이에서 그들의 자유와 해방의 상징으로, 전설적 영웅이며 현명한 령도자로 서술하고 있으며, 김 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인민들과 항일 빨찌산은 혈연적으로 굳게 결합되고 있는 데 있다.

김 정필 동지의 회상기 《장백현 사람들》에서는 김 일성 동지를 하늘이 낸 장수로, 전설적 영웅으로 떠 받드는 장백현 사람들이 오직 김 일성 동지를 믿고 그가 령도하는 항일 빨찌산에게 그들 운명을 의탁하고 있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인민과의 굳은 련계는 항일 빨찌산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볼 수 있다. 《평생 소원을 풀었네. 잃었던 아들을 만난 것보다 더 기쁘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지여 주는 밥 한 술 뜨고 가게… 에구, 장하기도 해라…》(83페지)하고 항일 빨찌산들을 육친적으로 영접하는 투거우즈의 할머니나, 생사를 겁내잖고 산전막을 리용하여 빨찌산들에게 지성어린 식량을 공급해 주는 주가툰의 류로인이나, 《젊은이, 적지마는 장군님께 군자금으로 올려 주게, 그리고 장군님께 이 늙은 령감의 말이지만 꼭 전해 주게… 왜놈들을 꺼꾸러뜨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함이라면 우리 백성들은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겠다고. 내 말은 이뿐이네. 잘이 간수하고 떠나게》(217페지)하고 신신 당부하는 오풍동의 허 로인과 같은 애국 인민들의 존재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였다.

실로 항일 빨찌산 부대는 이러한 인민들의 지원과 군중적 지반에 의거하였기로 하여 일제 강도배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에는 동지애를 서술한 회상기로서는 김 명화 동지의 《돈화의 수림 속에서》가 있고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서술한 박 성철 동지의 회상기 《고귀한 은정》이 있다. 《돈화의 수림 속에서》는 《고난의 40일》과 비슷한 회상기로서, 그 회상기의 필자며 주인공인 김 명화 동지가 련대장 명령으로 병이 위독한 비로까데라는 대원을 간호하느라고 돈화 밀림 속에 머물러 있잖으면 아니 되였다. 식량이라고는 전우들이 모아 준 옥수수'가루 쉰 네 술가락밖에는 없다. 하루 세 끼에 세 술가락씩 환자에게 대접만 한다면 여섯 술가락이 부족한 20일분밖에 되지 않는다. 주인공은 이 식량을 가지고 천고의 밀림 속에서 중국 동무이기로 하여 말이 잘 통하잖는 비로까데를 극진히 간호하면서 77일을

보내잖으면 아니된다. 련대가 속히 돌아 오지 못할 경우를 미리 타산하고 환자를 위하여 주인공은 옥수수'가루를 한 숟가락도 먹지 않고 취, 버섯 등 초근목피로 련명하는 것이다. 10, 20일이 지나 식량이 떨어지자 그는 환자를 위하여 잣나무를 찾아서 온 산을 헤매는 것이다. 멀건 잣죽을 가지고 비로까데는 어머니(주인공)도 같이 나누어 마시자느니, 주인공은 자기는 병이 없기 때문에 아니 먹어도 일없고 그 대신 나물을 먹는다느니 권하고 사양하는 장면은 그저 읽어 갈 수 없다. 이렇게 곤난한 환경에서도 주인공은 락망과 실망없이 련대가 돌아 오기를 믿으면서 락천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련대도 이 수림 속을 한시라도 잊지 않았다. 련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었다. 거의 매일 원쑤를 맞받아 싸워야 했다. 그러느라고 시일이 걸린 것이다. 임무를 수행하자 련대는 두 달 17일만에 자기 전우를 찾아 수림 속으로 돌아 왔던 것이다. 《믿었소, 이렇게 살아있을 줄 언제나 믿었댔소!》 하는 련대장의 말도 감격적이고 《련대장 동무! 나는 저 어머니를 영원히 잊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비로까데의 목멘 소리도 그냥은 읽을 수 없다. 오직 혁명 승리를 위하여 항일 빨찌산들은 이렇게 고귀한 동지애로써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굳게 단결되였기로 하여 15개 성상 혁명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고귀한 은정》은 공동의 원수 일제 날강도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행정에서 항일 빨찌산과 중국 인민들간에 맺어진 혈연적 친선 관계에 대한 회상기다. 공작을 나갔다가 열병으로 부락에 떨어지지 않을 수 없었던 필자가 십가장 부부와 그 딸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써 병마와 경찰놈들의 추격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산 모범으로, 보는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의 내용을 개괄하면 이상과 같다. 이러한 개괄로 《회상기》의 그 고상하고 풍부한 내용을 다 할 수는 도저히 없다. 문제는 독자들이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자기 심장으로 읽는 데 있다. 나는 이 회상기가 공산주의 교양의 산 교과서로, 혁명 전통 연구의 안내자로서 크나큰 반향을 일으킬 것을 확신하여 마지않는다.

《근 로 자》 제 5호 (루계 163호)

편 집 위 원 회

발 행 소 • 근 로 자 사　　인 쇄 소 •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 행 • 1959년 6월 15일　　인 쇄 • 1959년 6월 10일

ㄱ—30364　　값 50 전

서 적 안 내

사회주의 건설과 기계 제작 공업

4×6판, 예정 페지 64페지, 예정 값 14전,
발행 부수 10,000부, 발행 예정 8월.

이 책에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기계 제작 공업이 가지는 의의와 역할, 기계 제작 공업의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 기계 제작 공업의 발전을 위한 금후 과업 등이 상세히 서술되여 있다.

공산주의 도덕과 우리 생활

4×6판, 예정 페지 50페지, 예정 값 9전,
발행 부수 40,000부, 발행 예정 7월.

이 책은 근로자들의 공산주의 도덕 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통속 서적이다.

공산주의 도덕이란 어떠한 것이며 이것과 배치되는 낡은 자본주의적 도덕 관념과 습성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실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낡은 도덕 관념과 습성의 해독성 그리고 공산주의 도덕 교양의 필요성을 리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상 서적들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

• 1959년 6월 •